

월간

우리 문화

M A G A Z I N E



월간 우리문화 · 2001년 12월호(통권158호) · 등록번호: 라-3627(1984.7.12)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우 121-715) · 값 3,000원



2001 **12**
ISSN 1599-4236



한겨울의 동백꽃처럼 당신을 사랑합니다

대부분의 꽃들이 눈꽃 속에 숨어 봄을 준비하는 한겨울에 우리의 남쪽 섬지방에는 한창 망울을 터뜨리는 꽃이 있습니다. 동백꽃. 마침 눈이라도 내리면 흰 눈과 피처럼 붉은 꽃잎, 샛노란 수술, 질푸른 잎사귀가 빛어 내는 조화는 보는 이를 숨막히게 하죠. 동백꽃은 벌이나 나비가 활동하지 않는 겨울(12~1월)에 동박새의 도움으로 수분을 하기에 '조매화' 라고도 합니다. 동백은 꽃이 질때 가장 아름답게 핀 상태에서 마치 목이 부러지듯 송이째 툭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동백꽃의 꽃말은 '신중·허세부리지 않음'입니다. 그래서 혼례식에서 생명과 굳은 약속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하죠. 동백은 우리네 옛 생활 속에서 친숙한 꽃나무입니다. 씨앗에 서는 맑은 노란색 기름을 짜내 식용, 조명으로 사용했죠. 또 말린 꽃가루는 지혈작용을 하고 화상, 타박상 등에 쓰인 가정응급약이었으며, 나무는 재질이 단단해 얼레빗, 다식판, 장기쪽 등의 소재로 쓰였습니다. 동백나무는 한국, 중국, 일본이 원산지로 늘푸른 넓은 잎 키작은 나무(차나무과의 상록활엽교목)입니다. 추위와 건조한 기후에 약해 기온이 5℃ 이상 돼야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화분에 심어져 있으면 실내에 들여 놓거나 비닐로 씌워 양지에 두어야 합니다. 동백나무를 화분에 심고 싶으면 꺾꽂이로 번식시킬 수 있고 6~9월 중순에 가지를 잘라 화분에 꽂아두면 뿌리를 내립니다.

월간

우리 문화

2001 · 12

2001년 12월호(제15권 12호 통권 158호)
 등록 / 라-3627(1984. 7. 12)
 발행처 / 전국문화원연합회
 주소 / (우:121-7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화 / 704-2311~3
 FAX / 704-2377
 인터넷 / www.kccf.or.kr
 발행겸 편집인 / 李秀洪
 사무총장 / 安辰洙
 인쇄소 / 크리홍보(주)
 발행일 / 2001년 12월 1일
 정가 / 3,000원

*월간 「우리문화」는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펄펄 쏟아집니다. 동네 개구쟁이들은 새들이 뒹 안으로 더 많이 모여들길 기다리며 뽀뽀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녹이고 있죠. 겨울 추위에 담벽이 터지고 아이들의 손등이 갈라져도 온 동네를 포근하게 감싸안은 눈이불에 오하려 따 뜻합니다.

표지 일러스트 정진웅
 프리랜스 일러스트레이터.
 한국 출판미술협회 운영위원.
 국제 어린이 도서협의회 회원.
 1988년부터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9 ◆ 고향이 좋다④-강릉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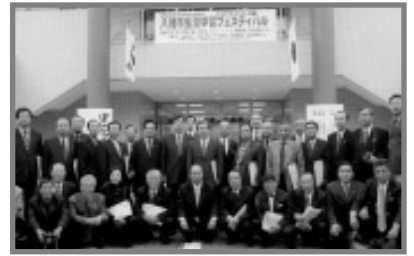
49 ◆ 행사-“조례제정으로 지립할 수 있는 기반을”



36 ◆ 문화상품을 만드는 사람들㉞



54 ◆ 참관기-일본 公民館 연수를 마치고



- 2 ◆ 날줄씨줄 · 2001년 문화계가 남긴 것 이용원
- 4 ◆ 역사再조명 · “명성황후 · 대원군 갈등은 5년뿐이었다” 최문형
- 8 ◆ 이달의 문화인물 · 최고의 판소리 명창 ‘송만갑’ 편집부
- 9 ◆ 고향이 좋다④ · 때묻은 달력일랑 겨울바다에 던져 버려라 강민철
- 17 ◆ 특집 · 文化로 본 ‘주 5일 근무제’ 노원명 · 이흥재 · 허명범 · 한성화
- 24 ◆ 문화계 CEO의 삶과 일 · 한국향토문화전지대전은 ‘우리 정신문화의 기둥’ 박계현
- 26 ◆ 향토문화연구 · 제16회 향토사 공모 대상에 향토사가 강성복씨 당선 전명찬
- 28 ◆ 이달의 세시풍속 · 팔죽의 붉은 색 보면 귀신들 달아난다고 믿어 박후식
- 30 ◆ 월드컵! 지역문화로 이기자 · ‘조선통신사 재현’ 등 문화행사로 더 넘는다 이명관
- 33 ◆ 우리문화논단 · 테마파크 조성으로 위락단지 · 지자체 관광캐릭터 가치 창출 이희곤
- 36 ◆ 문화상품을 만드는 사람들㉞ · “흙으로 ‘사람’과 ‘세상’을 빚는다” 강민철
- 38 ◆ 전통의 멋과 맛 · 중국 天子와 孔子도 즐겨먹던 보신탕 류장수
- 41 ◆ 2001, 지역문화의 해 · 향토사와 문화유적은 지역 정체성의 ‘노른자위’ 김두진
- 49 ◆ 행사 · “조례제정으로 지립할 수 있는 기반을” 박계현
- 52 ◆ 행사 · ‘서산문화원’ 최우수문화기반 시설로 선정 편집부
- 53 ◆ 행사 · 단위축제의 자생력 강화 방안 필요하다 편집부
- 54 ◆ 참관기 · 일본 公民館 연수를 마치고 이만희
- 58 ◆ 대중문화 · 욕망의 끝에서 꿈꾸는 飛上, 그러나 폐곡선에 갇혀버린 새 박계현
- 60 ◆ 다시생각 · 日本, 말로만 반성 실제론 역사 왜곡 여전 편집부
- 64 ◆ 지역문화 뉴스 · 이수홍 회장 등 2차 일본공민관 연수 편집부
- 72 ◆ 오픈북 · 고려 도공의 후예 이용희씨 편집부
- 76 ◆ 시간안내 · 김해관광안내 교육자료집 등 편집부
- 78 ◆ 문화원 네트워크 · 전국에 214개 문화원이 있습니다 편집부
- 80 ◆ 지방문화원 홈페이지 순례 · 진안문화원 박계현

2001년 문화계가 남긴 것

한 세대쯤 지나 한국 현대사를 다시 쓸 때, 2001년 문화예술계에서 벌어진 일로서 첫머리에 기록될 '사건'은 무엇일까. 아마 작가 이문열 씨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 곧 '이문열 책반납 운동'일 것이다.

책반납 운동이란 것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인데다, 그같은 사태가 벌어지게끔 만든 2001년의 사회·문화적 풍토는 그야말로 특징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확대될지, 아니면 머잖아 마무리 될지는 2001년 말인 현시점에서는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

먼저 '이문열 사건'의 전개과정을 정리해 보자. 이문열 사건의 배경에는 새해 들어 더욱 활발해진 언론개혁 논쟁이 있다. "우리사회에서 언론도 마땅히 개혁의 대상"이라는 일부 언론·시민단체의 주장과 "언론개혁은 정권의 탄압 논리일 뿐"이라는 반발이 맞선 가운데 국세청은 2월 중앙 언론사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언론개혁 논쟁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고 지식인 사회도 그 흡입력에 도리 없이 빨려들어갔다.

그 와중인 7월1일 이문열 씨는 조선일보에 '언론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고 깃발을 들었다. 이에 일부 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책을 반환하겠다고 항의하자, 이씨는 9일자

동아일보 기고에서 "홍위병" 운운하며 반격을 가했다. 갈등은 확대 재생산됐다. 11월3일 이씨의 집필장소인 경기도 이천 부악문원을 찾은 40여명은 장례 형식을 빌어 책 700여권을 돌려주려고 했다. 이씨 측의 거부로 주인을 잃은 책들은 결국 고물상에게 넘어갔다.

'이문열 사건'은 여러가지 과제를 안겨주었다. 사회에 대한 지식인의 책임은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고민이 그 하나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세상을 떠난 시인 서정주를 두고 올해 '친일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우리의 토론문화를 하루빨리 개선시켜야 한다는 당위를 일깨워주었다. 여차하면 감정싸움으로 비화해 흔히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이 시대 토론문화를 바꾸는 일은,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이루어야 할 몫이다.

그러나 '이문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상처는, 극심한 평가르기에서 자유로운 영역은 이제 더이상 없음을 확인했다는 데 있다. '너는 나에게 야근 아니면 적'이다. 그러므로 중용은 용납되지 않고 갈등은 봉합되지 않는다. 지식인 사회조차 전염시킨 이 한국병을 우리는 어찌 치유해야 할 것인가.

'이문열 사건'의 어두움에서 벗어나 '한국영화 중흥'이라는 밝은 세상으로 옮겨가 보자. 2001년은 한국영화가 완벽하게 되살아났음을 입증한 한 해였다. 연초부터 '친구' 열풍이 불어 영화 흥행 800만 시대를 선언하더니 '신라의 달밤' '엽기적인 그녀' '조폭 마누라' 등이 잇따라 전국에서 수백만 관객을 불러모았다. 이러한 흐름은 11월 개봉



이 용 원
대한매일 논설위원

한 '킬러들의 수다' '달마야 놀자' 까지 이어졌다.

이같은 관객동원 기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한국영화 흥행의 역사를 돌아보면 금세 드러난다. 1993년 '서편제'가 관객 100만명선(서울 기준,당시는 지방 관객이 집계되지 않았다)을 처음 돌파했을 때 영화계는 환호했다. 6년후 '쉬리'가 할리우드 영화 '타이타닉'을 누르고 역대 흥행 신기록을 세우자 모두 기적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10년내, 아니면 영원히 깨지지 않을 기록"이라고 들 예상했다. 그러나 '쉬리'는 다음해 '공동경비구역 JSA', 'JSA'는 그 다음해 '친구'에게 계속 수위를 넘겨 주었다.

한국영화로 서울 기준 100만 관객을 넘긴 영화는 지금까지 8~9편에 불과한데, 그 가운데 5~6편이 올해 생산된 것이다. 이제 영화팬들은 아놀드 슈워제네거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찾지 않는다. 한석규 유오성 장동건을 보러 영화관에 몰려든다. 한국영화는 이제 극장가의 주인이 된 것이다.

그러나 빛이 밝으면 그늘도 짙은 법. '대박' 영화가 잇따르면서 흥행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잘나가는 영화는 혼자 스크린 수십개를 잡아 상영되지만 대부분의 영화는 상영관에 오르지 며칠만에, 심하게는 하루만에도 막을 내렸다. 그 결과 영화발전의 토양인 다양성은 급격히 사라졌다. 올해 조폭영화가 일방적으로 각광받은 것이 그 좋은 예다. 다양함과 실험성을 담보하지 않고는 영화계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상업적 성공을 지속하면서 다양성을 유지하는 일은 영화인들에게 숙제로 남아 있다.

올해 문화예술계의 특징적인 사업 가운데 하나가 문화관광부가 추진한 '지역문화의 해' 행사다. '지역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각 지역 문화전통을 새롭게 조명해, 한국문화의 질적·양적 발전을 꾀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각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 지역문화인들과의 현장 대화 등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각종 연구보고서도 잇달았다. 그러나 지역문화 발전이 1~2년새 이루어질 일이 아닌만큼, 올해 바탕을 깔 사업을 앞으로 얼마나 내실있게 실행해 나가느냐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와

올해 문화예술계의

특징적인 사업 가운데 하나가

문화관광부가 추진한 '지역문화의 해' 행사다.

'지역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각 지역 문화전통을 새롭게 조명해, 한국문화의

질적·양적 발전을 꾀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각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


지역문화인들과의 현장대화 등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각종 연구보고서도 잇달았다.

함께 정부의 문화 부문 예산이 2001년에 이어 2002년도에도 1조원을 넘는 사실은 문화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으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01년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따른 국민적 분노가 불붙은 해이기도 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우리는 역사교육을 제대로 하는가'라는 자성의 계기가 됐다. 지난 7월 나온 풍납토성 발굴 제1차 공식보고서는, 이 토성이 한성백제의 도읍지였음을 분명히 보여주는데도 역사학계의 반응은 묵묵부답이다. 우리 역사, 우리 말글을 홀대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가,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이밖에 IMF때보다도 훨씬 심해진 출판계의 불황, 서울대 박사과정 지원자가 미달일 정도로 수렁에 빠진 인문학의 위기 등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해묵은 과제들이다. 

명성황후 시해의 진실 ①

“명성황후 · 대원군 갈등은 5년뿐이었다”

명성황후(민 왕후) 시해는 일본의 국익이 걸린 사건으로 일본정부에 의해 주도됐다. 저돌적 성격의 주한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나 무뢰한으로 알려진 낭인(浪人)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개인 차원의 사건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일본정부의 사건 관여에 대한 입증에 있다.

그렇다면 일본정부가 민 왕후를 시해한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해답은 민 왕후의 ‘인아거일책’ (引俄拒日策)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즉 러시아를 끌어들이어 일본의 압제를 배제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 왕후가 당대의 외교를 주도하게 된 시대 배경과 아울러 그의 인물됨부터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민 왕후는 “뛰어난 침착성(masterful poise)과 무엇인가를 탐색해내려는 듯한 눈빛(searching eyes)을 가진 총명한 여인”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먼저 해명해두어야 할 말이 있다. ‘명성황후’는 1897년에 추서된 명칭으로 시해당시에는 ‘민 왕후’ ‘민후’ 또는 ‘왕후’라고 칭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고종을 ‘왕’이라고 하며 그 비를 ‘황후’라고 칭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도 현재성을 살리기 위해 본문에서는 ‘황후’가 아니라 ‘왕후’로 표기했음을 밝혀 둔다.

먼저 민 왕후의 인물됨을 살펴보자. 왕후에 대한 인상기는 여행가 비숍, 벙커 부인 그리고 언더우드 부인(Lillias H. Underwood)등 서양 여인의 것만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민 왕후가 시해되기 직전인 1895년에 만난 사람들이다. 이들보다 12년 전에 만난 유일한 서양 여인으로는 주한초대미국공사로 부임해온 푸트 장군의 부인(Rose Q. Foote)이 있을 뿐이다.

푸트 부인은 왕후가 “뛰어난 침착성(masterful poise)과 무엇인가를 탐색해내려는 듯 한 눈빛(searching eyes)을 가진 총명한 여인”이라고 했다. 그리고 언더우드 부인은 이를 뒷받침하듯 “왕후는 좀 창백하고 마른 얼굴에 생김새가 날카로웠고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 한 총명한 눈빛을 갖고 있었다”고 평했다. 용모에서 힘과 지성 그리고 강한 개성을 읽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성품을 바탕으로 민 왕후는 남편 고종에게 정치 기반을 마련해 준 왕의 정치 파트너가 되었다. 이 글은 왕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정치가로서의 왕후에 대한 고찰에 다름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 왕후는 1851년 민치록의 외동딸로 태어나 1895년 10월 8일에 시해되었다. 44세라는 아까운 나이로 인생을 마친 것이다. 그리고 1866년 16세에 왕후로 간택되었으니 그의 왕후 생활은 29년간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29년간에 걸쳐 민 왕후와 대원군이 대등



최 문 형
한양대 명예교수

한 힘을 가지고 내내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데 있다. 두 사람의 갈등이 마치 당대 역사의 전부였던 것처럼 그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이는 싸움질이나 하는 조선 당국자의 자질 부족을 과장함으로써 일본의 조선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일본인들의 관계에서 비롯된 이야기다. 두 사람의 대립은 1868년경에 시작되어 1873년의 대원군의 실각으로 약 5년간 계속되었다. 물론 그 후에도 대원군은 두 번에 걸쳐 집권한 사실은 있다. 그렇지만 임오군란 때의 두 번째 집권은 그 기간이 33일에 불과했고, 청일전쟁때의 세 번째 집권기간도 4개월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나머지 20여 년 이상의 오랜 세월동안 그는 사실상 연금생활을 강요당한 셈이 된다.

“민 왕후의 대립 상대는 청과 일본”

민 왕후의 대립 상대는 대원군이 아니었다. 이는 청과 일본이었다고 해야 옳다. 대원군은 필요시 청과 일본에 의해 민 왕후 견제용으로 번갈아 이용당했을 뿐이다. 청일전쟁 당시 대원군은 이미 76세의 고령이었다. 그는 노욕(老慾)을 억제하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민 왕후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두 사람이 서로 상대를 헐뜯느라 여념이 없는 사이(1868~1873)에 일본은 메이지유신으로 근대국가를 이루어 옥일승천의 기세로 발전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다음은 민 왕후의 대외관계 주도에 관한 문제다. 민 왕후는 임오군란(1882) 이후 내정은 물론 대외관계까지 모두 주도한 것으로 알고들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당시 조선의 최대과제는 청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었다. 러시아의 야욕을 막기 위해 청이 끌어들인 영·미·독 등 열강이 임오군란을 틈타 조선을 자기들의 경제 식민지로 만들려 하자 청은 아직까지의 방임정책을 바꾸어 조선에 대한 속박을 크게 강화했던 것이다.

그러자 청의 속박 탈피라는 조선의 지상과제를 김옥균 등 급진 개화파가 먼저 맡고 나섰다. 그들의 방법은 영국과 미국의 힘을 이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약자가 강자를 이용한다는 것은 몽상과도 같은 일이다. 영·미라는 오랑캐의 힘을 빌려 러시아라는 오랑캐를 막겠다면 이홍장의 ‘이이제이(以夷制夷)’가 실패했듯 영·미의 힘을 빌려 청의 압제를 벗어나겠다는 김옥균 등의 ‘이이제이’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 급진 개화파는 1882년 말 도쿄에 체류하는 동안 주일 영국공사 파아크스(Harry Parkes)를 여러 번 만났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에게 속아 한 영조약(1882. 6. 6)의 인준을 거부하고 새로이 한영신조약(일명 파아크스조약, 1883. 11. 26)을 맺어, 관세만을 거의 반으로 깎아주었을 뿐이었다. 파아크스는 애로우호 사건을 도발한 포함외교(砲艦外交)의 명수이자 18년간이나 주일공사를 지낸 50대 후반의 노회한 영국 외교관이었던데 반해 김옥균은 32세, 박영효는 22세에 불과한 소박한 청년이었다. 아무 정보도 없이 오로지 열정 하나만으로 이 외교 베테랑을 이용하겠다는 발상은 무모하기 이를 데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이들의 외교 행각이



경기도 여주의 명성황후 생가·기념관에 걸린 명성황후 영정. 그러나 영정의 진위에는 논란이 많다.

민 왕후의 대립 상대는
대원군이 아니었다.

이는 청과 일본이었다고 해야 옳다.
대원군은 필요시 청과 일본에 의해

민 왕후 견제용으로 번갈아
이용당했을 뿐이다.

청일전쟁 당시 대원군은
이미 76세의 고령이었다.



주일 영국 공사 파아크스(위)와 김옥균.

● 파아크스는 애로우호 사건을 도발한 포함외교(砲艦外交)의 명수이자 18년간이나 주일공사를 지낸 50대 후반의 노회한 영국 외교관이었던데 반해 김옥균은 32세, 박영효는 22세에 불과한 소박한 청년이었다. 아무 정보도 없이 오로지 열정 하나만으로 이 외교 베테랑을 이용하겠다는 발상은 무모하기 이를 데 없었던 것이다.

●

실패로 드러나자 왕후는 이들을 대신 하여 자연스럽게 외교를 주도하고 나섰다. 이제 청의 속박 제거(拒淸)라는 지상 과제를 왕후가 떠맡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영·미 이용 계획이 실패했으니 왕후는 '거청'을 위해 자연스럽게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방법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引俄). 따라서 한러수호조약(1884. 7. 7)은 민 왕후의 외교 주도로 이루어진 첫 작품인 셈이었다.

50대 후반의 노회한 파크스 對 32세의 소박한 청년 김옥균

그렇다면 왕후의 주목적이 언제부터 '인아거청'에서 '인아거일(引俄拒日)'로 바뀌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우리 역사책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 연원을 조선을 둘러싼 열강간 대립이라는 국제관계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한러밀약'을 기화로 영국해군이 거문도를 점령함으로써(1885. 4. 15) 블라디보스톡의 함대가 기능을 상실하게 되자 러시아는 자국의 아시아령 방위정책을 전면 수정하게 되었다. 즉 아시아령 방위를 해군력 의존에서 육군력 의존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도부설이 선행되어야 했다. 육로로 러시아 중심부에서 시베리아까지 가려면 2년이나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베리아 철도부설 논의는 일찍이 1886년부터 제기되었지만 1891년에 와서야 비로소 착공되었다. 그러자 그 충격은 즉각 일본에 미쳤다. 러시아의 진출방향이 동쪽으로 고정되었고, 이제 자국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되

었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에서도 이런 사태진전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의 이른바 '외교정략론'(外交政略論, 1890)이 이를 입증해준다. 즉 조선을 자국의 이익선(=적성국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지역)으로 규정하고 러시아가 바로 이를 위협하는 일본의 주적(主敵)이라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러시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된즉 이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간의 전쟁준비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후 일본은 배후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먼저 청과의 전쟁부터 서둘렀다. 그러려면 개전의 구실을 찾아야만 했다. 여기서 제기된 문제가 바로 '방곡령'(防穀令)을 둘러싼 분쟁이었다. 이는 일본상인들이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는 것으로 크게 확대될 여지가 없는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오이시 마사미(大石正巳)라는 강경파를 주한공사로 임명, 이 사건을 전담시킴으로써 조선에 대해 갖은 협박을 가해왔다. 이는 조선의 중주국이라던 청을 자극하기 위한 행위였다.

오오이시의 불손함은 원세개를 훨씬 능가했다. 궁궐출입규정을 무시하고 편전 계단까지 가마를 타고 드나드는 무례쯤은 말할 것도 없었고, 청의 기세를 꺾으려는 듯 '상왕' 행세를 하던 원세개에게까지 모욕적인 언동을 서슴지 않았다. 마치 비복(婢僕)을 다루듯 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대청(對淸)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유리한 개전 날



흥선대원군(오른쪽)이 실각 후 은거했던 공덕리 별장(왼쪽).



짜의 선정만을 남겨놓고 있던 당시 일본의 입장을 반영한 행태였다.

여기서 왕후는 일본의 횡포를 몸으로 체감했던 것이다. 이것이 왕후가 '거침' 보다 '거일'에 치중하게 된 배경이다. 그러나 그녀가 '인아거일' 책을 확정해 일본을 격양케 만든 결정적 계기는 바로 러시아가 주도한 3국 간섭(1895. 4. 23)이었다. 일본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얻은 요동반도를 러시아의 일갈(一喝)에 굴복, 속절없이 청에 되돌려주는 꼴을 본 왕후는 곧바로 자신의 생각을 '거일'로 굳혔던 것이다.

민왕후 '구중궁궐' 한계 넘지 못했으나 국제 정세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

그러나 민 왕후는 구중궁궐의 한계를 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영·러 대립이라는 세계적 규모의 대립과 청·일의 대립이라는 아시아적 규모의 대립이 한반도에서 함께 얽혀 돌아가는 판국을 그녀의 감각만으로는 감당해 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러시아공사 웨베르(Karl Waeber)의 호의를 러시아정부의 호의로 착각하여

'인아'는 이미 확보된 것으로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러시아정부로부터 아무런 구체적인 보장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시베리아철도가 완공될 때까지는 어떤 야욕도 표시할 수 없었던 러시아는 조선문제도 조선정부를 제치고 일본 정부와 상의하고 있는 형세였다. 실상 민 왕후의 '인아거일' 책에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상황에서 왕후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했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 러시아 외상 기어즈(N. K. Giers)가 자국의 주청·주일공사로부터 정세보고를 받고 나서도 일본보다 청을 더 위협하게 생각했던 사실과 비교하면 왕후의 감각은 그야말로 뛰어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그녀는 근대의 정규교육도 받지 못했고 구중궁궐 속에 은거하고 있어 세계정세에 대한 정보도 없었다. 오늘날의 이미지만을 가지고 19세기말의 민 왕후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사진제공 : 도서출판 지식산업사 刊 '명성황후 시해의 진실'을 밝힌다'

● 민 왕후는

구중궁궐의 한계를

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영·러 대립이라는 세계적 규모의

대립과 청·일의 대립이라는

아시아적 규모의 대립이

한반도에서 함께 얽혀

돌아가는 판국을

그녀의 감각만으로는

감당해 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최고의 판소리 명창 ‘송만갑’

송만갑은 판소리사의 명문(名門), 그 중에서도 동편제(東便制) 소리의 가문의 후예로 집안의 소리 맥을 이어가리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은 인물이다. 그러나 자신의 소리 세계를 다지는

과정에서 ‘청중과 교감할 수 있는 소리가 진정한 예술’이라는 자각을 하고, 과감히 가문의 소리 전통을 벗어났다. 소리의 예맥을 ‘법통(法統)’이라 여기는 풍토에서 송만갑의 결단은 대단한 과묵을 일으켰다. 집안에서는 물론 동편제 소리를 중시하는 선후배, 동료 소리꾼들 사이에서 ‘패려자식’으

로까지 지탄을 받았으나, 송만갑은 그런 이견을 대할 때마다 ‘전방 보는 사람이 어찌 모본 단만 가지고 장사를 하겠느냐’는 말로 자신의 소리 입지를 밝힌 것으로 유명하다. 이 말 뜻은 ‘옷감 가게에 온 사람이 비단을 원하면 비단을 팔고, 무명을 원하면 무명을 팔 듯이 청중이 원하는 소리를 자유롭게 불러 그들과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송만갑의 이런 주장은 20대부터 전국을 주유하며 다양한 청중을 만난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뿐

송만갑(宋萬甲: 1866-1939) 조선조 말부터 20세기 초 반까지 활약한 최고의 판소리 명창. 본관은 은진(恩津). 창극 ‘춘향전’ ‘흥보전’ ‘심청전’ ‘숙영낭자전’ ‘어촌야화(漁村夜話)’ 등의 지휘를 맡는 한편, 대원로임에도 불구하고 창극의 단역(端役)을 맡아 동참하는 등 창극의 발전에 열정을 다 바친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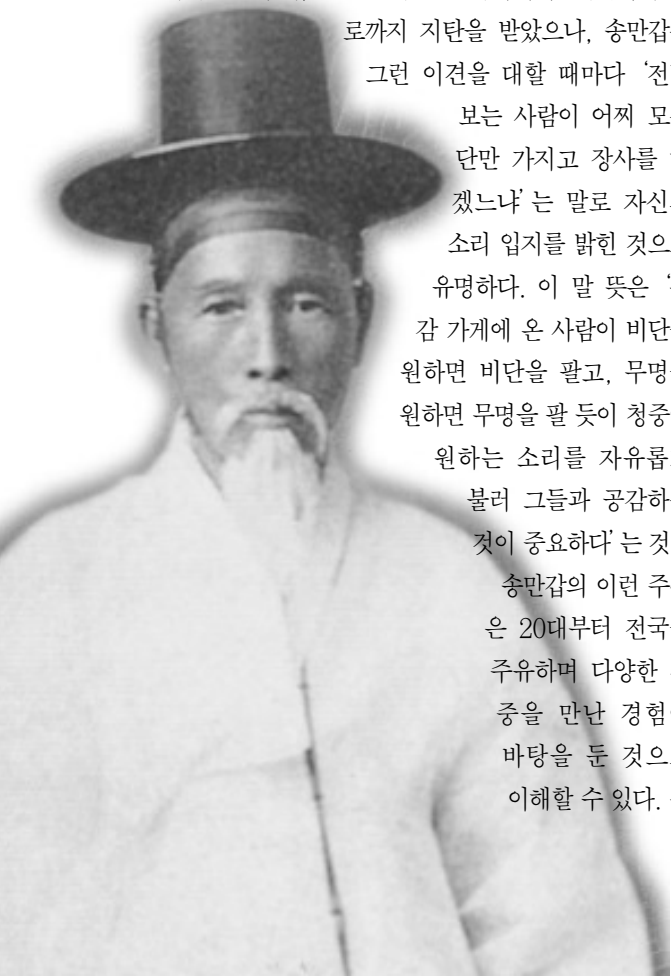
만 아니라 송만갑은 소리예술포로 일가를 이룬 시기인 30대 후반에 서울에서 공연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무렵 외국 문물의 유입으로 모든 것이 놀랍게 변화해 가는 시대 상황과, 공연문화를

맛닥뜨리면서 얻게된 ‘소리꾼의 통찰’일 수도 있을 것이다.

송만갑은 국가의 지존인 황제에서부터 극장에 모인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청중의 ‘눈높이’에 맞는 소리를 불러 ‘시대의 최고 명창’이 됐다. 보통 말할 때는 쉼 목소리가 나오지만 일단 그가 소리를 시작하면 고음(高音)의 매력적인 철성(鐵聲)으로 청중들을 사로잡았다. 또 동편제 소리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송만갑 소리의 기본은 세성(細聲:falsetto)을 쓰지 않은 통성의 소리였다. 송만갑이 소리를 하면 ‘칼빈총을 쏘는 것처럼 대단했다’는 회고는 송만갑의 성량과 통성을 주도하는 발성의 특징을 대변해 준다.

뿐만 아니라 송만갑이 잘 불렀다는 적벽가 중 ‘새타령’이나 춘향가 중 ‘십장가’ 대목에서 새 소리를 묘사하거나, 춘향이 매를 맞으며 부르짖는 표현을 할 때는 마치 하모닉스(倍音)를 내는 것 같은 신비로운 소리를 내는 등, 오직 송만갑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고유 소리세계를 지녔던 것이다.

50대부터 작고하기 몇 년 전인 70대에 이르기까지 주로 노년기의 소리가 담긴 유성기 음반에는 그가 즐겨 부른 단가진국명산과 남도민요 농부가를 비롯해 춘향가, 적벽가, 흥보가, 수궁가, 심청가 등 판소리 다섯 마당이 망라돼 있다. 그는 작고하기 직전까지 아픈 몸을 이끌고 무대에 섰으며, 제자들에게 소리를 가르치는 등, 생애의 끝 날까지 판소리 명창의 예술혼을 불살랐다. 송만갑 사후, 김정문(金定文), 박봉래(朴奉來) 등의 동편제 소리 제자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이 20세기 판소리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 **■**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시 퍼런 물살에 하얀 이를 드러내며 우는 겨울바다에 가면 속이 시원하다. 정동진. 한반도의 바른 동쪽 그 곳에는 서둘러 첫 동이 뜨기 전에 갈 일이다. 白紙처럼 마음을 비우고 소원을 빌어라. 손에 무엇을 쥐기 전에 손에 쥘 그것을 버려라. 때묻은 달력일

랑 차가운 겨울바다에 던져 버려라. 애정과 증오, 믿음과 불신, 삶과 죽음... 언제 끊어질 줄 모르는 넝쿨 줄기에 매달린 채 하루 끼니를 놓고 싸움질 하고, 진실과 거짓속에서 부대끼고, 아픔과 환희속에서 해매는 사바(娑婆). 어느 스님은 '이보다 더 험난하고 더 고단한 탁발과 수행길이 있을까?' 라고 되뇌었다. 우리는 1년의 수행길을 걸어 간이

역에 다다랐다. 간간이 바람부는 정동진은 평일인 탓인지 젊은 연인과 아버지 아들 몇쌍만이 사진을 찍거나 파도를 바라볼 뿐 을씨년스럽다. 여기저기 흔하게 보이는 모래시계를 하나 사서 장난질을 친다. 모래더미는 나와 상관없이 점점 함몰한다. 그 소리없는 변화에 멈칫 무섭증마저 인다. 그렇게 2001년이 저물어 간다.☞

그곳에 가고싶다 12월에 가보는 정동진

때묻은 달력일랑 겨울바다에 던져 버려라

문화원장 인터뷰 '단오제' '답교놀이' 자랑하는 정호돈 강릉문화원장 문화원사 소유권 확보한 '봉이 김선달'

이 주시장을 마지막으로 만 33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끝내고 고향인 강릉의 향토문화 지킴이로 일하고 있는 정호돈 강릉문화원장(65). 그는 공무원 할 때 못지 않게 지금이 바쁘다고 말한다. 여기 저기서 그를 부르는 손짓들이 많지만 모두 마다하고 평일에는 꼼짝없이 원장실에 앉아 문화원 일에 매달린다.

“하루 이틀만 자리를 비워도 미제가 수북히 쌓여요. 그리고 문화원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문화원에 와 보고 원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그렇다고 주말에 편히 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문화원장이 되고 난 후부터는 혼례를 앞둔 예비신랑신부와 부모들로 부터 주례 청탁이 끊이지 않는다. 인터뷰 하기 바로 전날에는 “세탕을 뛰었다”며 웃는다. 하지만 이것도 ‘문화원장=학덕과 신망이 높은 지역유지’란 문화원의 부가적 이미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뿌리치지 못한다. 강릉시민들이 문화원을 그만큼 애정과 관심을 갖고 높이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과도 같기 때문이다.

“강원도 문화재 25%가 원주에”

그 역시 고향 강릉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지정한 강원도의 문화재가 4백여점되



강릉문화원사 준공을 위해 힘을 보태준 이들의 성은(盛恩)에 감사한다고 말하는 정호돈 강릉문화원장

는데 그중 1백여점이 강릉에 있어요. 비율로 본다면 강원도 전체의 25%로 18개 시군중에서 가장 높아요. 그만큼 강릉 시민이 우리문화원에 거는

기대가 큼니다”

강릉문화원은 ‘第一江山’이란 계간지를 18호까지 펴내며 지역민 뿐만 아니라 출향민들에게 고향 소식을 알리

고 있다. 또 강릉의 역사를 정리해 ‘완역 增修 임영지’ ‘강릉단오제 백서’ ‘하평마을민속지’ 등 수종의 향토문화 관련 서적을 펴냈다.

‘주민 참여’ 강릉단오제의 저력

그러나 강릉문화원에서 주력하는 사업은 뭐니뭐니해도 강릉단오제다. 따라서 정 원장에게 있어서도 1년중 음력 5월은 가장 바쁜 달이기도 하다. 그도 그럴것이 24만 강릉시민의 큰잔치이자 국내 10대 축제인 강릉단오제의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원 역시 사무국 직원과 함께 현재 인근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경하 팀장(34) 등 단오제 전문요원 4명이 ‘한지붕’ 살림을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문화원 조규돈 사무국장(54)은 강릉단오제 제례부문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로 강릉단오제위원회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서울의 모 대학원에서 문화산업을 전공하고 있는 심오섭 기획총무부장(35) 역시 단오제 총괄 부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3일부터 7일까지 4박5일동안 9개 분야 74개 종목에 걸친 대규모의 단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빴다. 하지만 국내서 흔치 않게 연인원 1백만명이란 인파가 몰려드는 등 대성황을 이뤄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하늘을 날듯 가벼웠다.

청량리를 출발해 강릉에 도착하는 ‘단오관광열차’도 운행됐는가 하면 초등학교에서 하루 혹은 이틀동안 수업 대신 강릉단오제를 체험케 함으로써 남녀노소 모두의 난장으로 승화됐다.

학생들은 ‘창포머리감기’ ‘진또배기 깎기’ ‘씨름’ 등에 참여하며 향토문화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강릉단오제는 단오굿·제례·관노가면극을 세개의 큰 기둥으로 하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축제로 그 역사가 무려 1천년을 넘는데도 민간인에 의해 그 원형이 잘 전승되고 있습니다. 또한까지 자랑할 만한 것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축제라는 점입니다. 다시말해 국가·지방 보조금외에 민간인들이 십시일반으로 추렴한 돈으로 경비가 조달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강릉단오제의 가장 큰 특징이자 저력입니다”

이렇게 단오제를 설명하는 정원장은 올해 예산을 총정리한 보고서를 꺼내 보이며 말을 이었다.

“총 6억7천8백여만원의 축제 예산 중 국비·지방비는 4억7천3백만원이고 나머지 주민 협찬금이 무려 2억5백만원에 달합니다. 한예로 씨름은 강릉 JC(청년회의소)가 맡아했는데 지원금



프랑스 페리그 미모스 마임축제에 초청된 강릉 관노가면극 공연자들과 강릉문화원 임직원.



관노가면극 공연자들과 함께 외국인들이 흥겹게 춤을 추고 있다.



명동에서 강릉단오제를 홍보하고 있는 정호돈 강릉문화원장(오른쪽)



강릉문화원 문화원사

이 불과 2백만원에 지나지 않았습니
다. 하지만 강릉JC는 스스로 주민으로
부터 3천5백만원이란 거금을 모아 송
아지도 사고 금반지도 마련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네의 경
우는 총예산이 1천3백50만원인데 지
원금이 3백만원이고 주민협찬금이 1천
5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단오제는 일본 돗토리현 민속
춤 공연단과 중국 호북성 형주시 민속
공연단등 외국 예술단을 초청해 인기
를 끌었으며 밀양 백중놀이등 국내 중
요무형문화재 7종을 한자리에서 공연
해 주민과 관광객들로 부터 좋은 반응
을 얻었다.

이런 호평에 고무된 강원도와 강릉
시는 2003년 단오장에서 국제관광민
속전을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에앞서 강릉문화원은 지난
해 초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페리
그시 마임축제에 강릉의 판노가면극을
초청받아 2일간 4회에 걸쳐 공연해 찬
사를 받은 바 있다. 이처럼 판노가면극
을 세계적 수준으로 까지 올려놓는데
온힘을 다한 정호돈 원장과 조규돈 사
무국장 · 심오섭 부장은 세계인들

이 좋아하는 것을 이국 현지에서 직접
보고는 뭐라 형언할 수 없는 보람과 환
희에 젖었다고 말한다. 정 원장은 이
강릉단오제가 내년도에 유네스코 지정
무형문화재로 등록될 가능성이 거의
유력시 된다고 귀땀했다.

‘하평답교놀이’ 대통령상 수상

또한 강릉은 최근 ‘하평답교놀이’ 라
는 민속예술로 한껏 유명세를 타고 있
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경북 영주에서
열린 제42회 한국민속축제에 도대표로
출연한 강릉 사천의 하평답교놀이가 대
통령상을 거머쥔 것. 이 모두가 강릉문
화원이 밤낮으로 공들인 결과다. 강릉
시로부터 3년전에 민속예술축제를 위
탁받아 갈고 닦은 결과 전국민속예술축
제에서 국무총리상까지 받고 좌절됐던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이다. 특히, 하평
답교놀이는 다른 출품작들이 인원이 부
족하다는 이유로 학생이나 군인등을 무
작위로 출연시키는 것과 달리 공연자
모두가 순수하게 마을주민으로 이뤄졌
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들은 집을 비워
두면서까지 수개월에 걸쳐 구슬땀을 흘
린 결과 대통령상이라는 영예를 안았
다. 정 원장은 앞으로 하평답교놀이 보

존회도 구성하고 회관
도 지을 것이라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시로 부터 지원금 받 고 시유지 매입

이말고도 정 원장은
또 하나의 흐뭇한 일
이 있다. 지난 54년
미공보원으로 출범한

강릉문화원의 46년 숙원사업인 강릉문
화원사를 비로소 건립한 것. 여기에는
아는 사람만 아는 비화(秘話) 한토막
이 내려오는데 이 때문에 정 원장은
‘봉이 김선달’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 97년 4월 취임 당시 문화원사
건립을 공약한 정 원장은 막상 문화원
건립을 하려 손을 대자 시멘트 한포 철
근 하나 살 돈 만들기가 여의치 않고
주위에선 불가능한 일이라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심적으로 많은 불안
감과 중압감에 휩싸였다. 그러나 정 원
장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이를 돕는
다’는 격언을 떠올리며 문화원 건립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전략’을 세
웠다. 결국 정 원장은 문화관광부로부터
4억여원을 끌어당기기 위한 힘든
과정을 겪으며 부지 11억, 건물 27억
등 총 38억원을 마련해 지난해 7월 지
상3층 지하1층의 문화원사를 세우는
패거를 이룩했다.

그러나 이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단
지 문화원사를 지었다는 점이 아니라
문화원 소유의 건물이라는 점 때문이
다. 현재 대부분의 문화원사들은 사용
권만 갖고 소유권은 해당 시군에 있는
게 현실이다. 정원장을 ‘봉이 김선달’
로 부르는 것은 뭉니뭉니해도 소유주
를 처음부터 문화원으로 했다는 것.
‘시유지에는 민간소유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법적인 제한을 안 정원장
은 강릉시로 부터 문화원사 건립을 위
한 지원금을 먼저 받은 후 강릉시에게
돈을 주고 시유지를 사는 방식을 택해
부지를 문화원 소유로 바꿔놓았던 것
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강릉문화원은 여느



올해 대통령상을 수상한 ‘하평답교놀이’.

문화원들이 번듯하게 문화원사를 지어 놓고도 시로 부터 무상임대 계약을 맺는 것과는 달리 소유권을 강릉시가 아닌 강릉문화원이 가질 수 있도록 법적 요건을 확보해 사후에 생길지 모를 문화원사 공간 사용에 대한 문제를 미연에 제거했다. 정 원장은 문화원사 마당 한편에 '강릉문화원사 준공기'란 표지석을 세우고 문화원사 건립에 힘써준 당시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과 김진선 강원도지사 · 최규근 전 강원도지사 · 조순 전 국회의원 · 최옥철 전 국회의원 · 황학수 전 국회의원 · 심기섭 강릉시장 · 최종설 전 강릉시의회 의장등의 '청은(盛恩)'에 감사한다는 글귀를 새겨놓으며 그 공을 돌렸다.

임영문화학교 · 도서정리 '귀감'

강릉문화원은 또 문화학교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임영문화학교로도 유명하다. 11개 교실을 열어놓고 있는데 다른 문화원과 달리 한국문화 관련 교실에 관한한 1-3-3-3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1년동안 문화학교에서 개론을 배우고 나면 3년동안 서예를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또 이



를 마친 사람만이 사군자를 3년동안 공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사군자를 3년 동안 공부한 사람만이 비로소 한국화를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한국화를 제대로 알려면 '10년 공부'를 해야 하는 셈이다. 때문에 보통 1백 50명의 수강생 가운데 1백10~1백20명정도가 상위단계로 올라간다.

한편 정 원장은 문화원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큰 관심을 쏟는 눈치다. 회원 10만원, 이사 20만원하는 연회비용 외에 공연장 1일 20만원, 전시장 1일 5~6만원하는 식으로 대관료를 매겨 문화원 사업에 쓰고 있다. 특히,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책자도 공공기관 · 단체에는 무료로 배포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유료로 판매해 연간 5백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 '매월당 김시습 학술세미나 자료집'이 1만5천원이고 '임영민속연구'가 1만원, '임영문화' 3천원, '강릉시사(상하)'가 7만원이다.

특히 강릉문화원은 도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어 다른 문화원의 귀감이 되고 있다. 옥상에는 도서보관을 위한 창고를 두개나 지어놓았다. 앞으로 도서 DB(데이터베이스)도 갖출 계획이다. 정 원장은 "아직도 문화원장과 사무국 직원들이 단칸방을 쓰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문화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문화원들이 전반적으로 그 수준과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정 원장은 "문화원 사무국 직원들에게도 '나의 직업이다'라는 생길 수 있도록 '대접'을 해주어야 앉아 있다"며 특하니 침을 놓았다. **문**

조규돈 사무국장

강릉문화원에 26년동안 봉직한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정선군 공무원으로 일하다 지난 75년 문화원에 발을 들여놓은 조규돈 사무국장(54)은 4대 박남철 원장부터 10대 정호돈 원장까지 26년동안 4명의 원장을 보필하며 문화원 살림살이를 꾸려온 '문화원의 터줏대감'이다.

첫해 월급이 당시 돈으로 1만5천원 가량됐다고 회고한다. 문화원 보수가 적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집안에서 농사를 지어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한다. 조 사무국장은 문화원에 들어온 해부터 단오제에 종사하기 시작해 지난해 7월 강릉단오제 제례부문 중요무형문화재 기 · 예능보유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예전의 단오제는 제례 · 단오굿 · 관노가면극 · 그네 · 시조병창 · 농악 · 씨름 · 궁도 등의 프로그램만이 있었는데 현재는 투호 · 창포 · 떡메치기 · 창포비녀깎기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겨났다고 말한다.

현재 강릉단오제위원회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다.



강릉문화원 추천 출향인사 인터뷰 MBC 대하드라마 '조선왕조500년' 집필한 草堂 신봉승 “출향인사 고향 돌아가면 큰 힘 될 것”

‘조선왕조(朝鮮王朝)’. 누군가 이 당당한 네글자를 되찾아 오지 않았다면 아직도 ‘이조(李朝)’라는 비속어를 쓰고 있을지 모른다.

MBC 대하드라마 ‘조선왕조 5백년’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극작가 초당(草堂) 신봉승(68). 그는 사학가 아닌 사학가다. 하루에 1백페이지 읽어도 4년이 걸리는 방대한 분량의 ‘조선왕조실록’을 독파한데다 지난 20년동안 1주일에 2백자 원고지 260매 분량의 원고를 집필함으로써 범인(凡人)으로 하는 하기 어려운 대업을 이뤘다.

때문에 대학교수들조차도 그 앞에서

‘조선왕조실록’에 대해 논쟁을 거는 것은 승산이 없는 게임이다. 혹자는 그를 ‘걸어다니는 조선왕조실록’이라 부른다.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을 지낸 조병화 선생도 “신봉승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조선의 역사”라며 “당당히, 꼴꼴이, 뚜렷이 서 있는 草堂 앞에 서면 나도 살아가는 기쁨, 생기가 돌며 젊어지네”라고 노래했다.

소설 ‘홍길동’의 작가 허균의 고향 강릉에서 태어난 그는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극작가로 이름을 날렸다. 몇해 전에는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에 오르는 영예도 안았다.

‘正史의 대중화’에 큰 공로 세워

그가 문학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51년 1.4후퇴로 무릎까지 차는 눈길을 걸어 고향 강릉에서 울산 남목리까지 피난 가 봄을 맞이했을 때 한 산 가득히 핀 자목련을 바라보면서다. 그의 나이 열여덟이었다.

문예지에 시를 발표하던 그는 나이 28세때 시나리오 ‘두고온 山河’가 국방부에서 주최한 3백만환 현상모집에 당선되면서 극작에 전념한다. 그리고 불혹의 나이에 이르러 TBC에 일일연속극 ‘思母曲’을 집필하는 계기로 역사드라마만을 쓰게 된다. MBC에 ‘眞夫人’을 써 내시를 병신으로만 보는 시각을 바꾸기도 했으며 일본으로 건너가 조선 도공 심수관 일가를 집중 취재하기도 한다.

저서는 무려 103권. 지난 66년에 나온 ‘시나리오의 기쁨’이 처녀작이고 12월 1일 출간되는 ‘이동인의 나라 I’이 103권째. ‘이동인의 나라 I’은 일본의 명치유신 성공과 우리나라의 근대화 실패를 동시에 그리고 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금자탑을 이루는 것은 단연 MBC를 통해 인기리에 방영된 ‘조선왕조500년’. 그는 83년부터 90년까지 장장 8년동안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충실히 극화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조선왕조’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그의 공로를 말한다면 '정사(正史)의 대중화'다.

나이 48세에 늦깎이로 들어간 대학원 졸업논문 제목도 '역사소설연구'. 이광수·김동인·박종화등 선배 소설가들의 작품이 정사와 얼마만큼 거리가 있는지 분석하고 입증하는 것이었는데 당대의 문단에 일대 충격을 안겨 주었다.

그는 정사를 토대로 사극을 쓴 첫 작가다. 보통사람들에게도 역사를 항목이 아닌 흐름으로 읽기를 권한다. 또 사극의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에 대해서도 "극(劇)은 한자어 풀이가 그렇듯 '호랑이와 돼지가 칼을 들고 싸운다'는 픽션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사실이 맞느냐 안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대의 삶을 옳게 그리고 있는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교훈을 주고 있는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일본의 구마모토縣 참고해 볼만”

사극만이 아니라 고향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각별하다. “강릉은 우선 풍광으로 볼 때도 바다와 호수·산이 있어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작고한 미당 서정주 선생도 생전에 강릉에 밋자리 하나 봐달라고 농담할 정도였으니까요”

특히 강릉은 등단 시인이 20명이나 될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보기드물게 예술원 회원이 둘 나왔을 만큼 수 많은 문화예술계 인사를 배출했다.

그는 고향 발전을 위한 출향인사 역할론을 강하게 피력한다.

“출향인사가 고향으로 돌아가 소임을 맡아줘야 합니다. 그것이 지역문화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의 호소카와(細川)총리대신이 구마모토현(熊本

縣)지사로서 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출향인사를 불러들이는 일이었습니다. NHK의 중견 아나운서로 하여금 구마모토현 극장장을 시키고 현 정부는 일체 간섭하지 않은 결과 세계적인 명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선시대에는 중앙정부에서 소임을 다 마친 후에는 고향에 내려가는 미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장차관도 내려가지 않고, 국회의원에 출마할 때만 내려가는 풍조입니다”

그는 “가장 원기 왕성했던 53세에 고향인 강릉에 새집을 짓고 스스로 예총지부장을 맡아 8년동안 일하기도 했다”고 말한다. 이런 경험속에서 중앙에서 얘기하는 문화정책이 지방의 현실과 얼마나 다른지 몸소 느껴 이는 중앙부처 장차관에게 말해도 얘기가 안 통하더라고 털어놓는다.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문화원에 대한 주문도 잊지 않는다. “문화원은 ‘광의의 문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광의의 문화’는 곧 우리의 삶입니다. 문화원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지방에서는 본격뮤지컬을 한번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곳에서도 뮤지컬을 보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교향악·연극·뮤지컬·오페라등 본격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도 하지 않고 문화인프라가 깔리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문화원 역시 공염불에 그치지 마련입니다. 문화원은 본격예술등을 통해 삶의 문화가 고루 전파되도록 애쓰는 곳이어야 합니다”

초당 신봉승이 글을 쓴 정동진 시비



자식 앞에서 방바닥에 등댄 적 없어

지난 68년의 생애를 '기관차' 처럼 살아온 그에게 있어 쉽없는 동력이 되어준 스승은 '아놀드 토인비'. 대학때 그의 저서 '역사의 한 연구(A Story Of History)'를 읽고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은 이후로 평생동안 존경심과 그리움을 품고 산다고 말한다. 고회를 앞둔 그는 요즈음 하루 9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원고도 쓰고 인터넷도 서핑한다. 무료하다 싶으면 10대들처럼 게임도 즐긴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면 옆을 안볼 만큼 맹렬하다. 아직까지 낮잠을 잔 적이, 가족끼리 드라이브간 적이 한번도 없다. 주말이라고 해서 놀아본 일도 없다. 그는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방바닥에 등들 댄 일이 없었다”고 말한다. 요즘은 대학·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 교포단체로 부터도 강연 요청이 쇄도해 스케줄을 적는 화이트보드가 점점 까매진다. 따르릉. 서울 인사동에 있는 그의 한국역사문화연구소 전화벨이 또 울렸다.☎



축제예산 30% 주민 '추렴' ... 연인원 1백만명 방문

강릉단오제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인 강릉단오제는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치러내는 전국 최고·최대의 민속축제다. 총예산의 30% 가량을 주민들이 거출해 조성한다. 올해 열린 2001 강릉단오제는 전체 9개 분야 70개 종목에 걸쳐 다채롭게 행사가 펼쳐져 주민·국내외의 관광객 등 연인원 1백만명이 몰려드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강릉단오제는 제례·단오굿·관노가면극을 세개의 기둥으로 삼는다. 이밖에 그네·씨름·창포머리감기·단오수리치떡 만들기·창포뿌리 비녀만들기 등 주민 참여·체험형 프로그램이 열린다. **문**

특집

文化로 본 '주 5일 근무제'

노사정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는 그 실시 이후를 볼 때 단순히 노사정만의 얘기는 아니다. 그것은 곧 일반시민들의 생활패턴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주5일 근무제는 문화의 변혁을 가져오는 전기(轉期)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문화의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기회와 만족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이번호에서는 △기존 주5일 근무자 어떻게 주말 보내나?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지방문화원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나는 이렇게 여가를 보내고 싶다 등의 주제로 특집을 꾸민다. <편집자 주>



기존 주5일 근무자 어떻게 주말 보내나?

기혼자 ‘가족과 함께’ 미혼자 ‘문화 즐기기’

주5일 근무제는 웬만한 외국계 기업이나 ‘잘 나가는’ 일부 국내 기업들이 이미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제도. 그렇게 낮설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세계 최장수 노동시간에 시달렸던 한국 노동자들이 보면 매주 이들의 휴식은 여전히 마음 설레는 얘기다.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노동자들 역시 ‘가슴 설렘’과 막연한 불안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이유없이 불안한 육체적·정신적 관성이다 편안한 근무 여건을 따지기 이전에 당장 직장이나 일감 자체가 절박한 경제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조조영화, 그리고 한낮의 드라이브

(주)모토롤라코리아 기획조정실 이수형 차장은 토요일이면 한껏 게으름을 피운다. 지난 주에도 평일보다 2시간 늦은 아침 9시에 일어나 아내와 느긋한 아침식사를 끝냈다.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은 이미 학교에 가고 없다. 아내의 제안에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 토요일 조조영화를 보러 서울 양천구 목동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인 신촌의 극장을 찾았다.

영화는 ‘달마야 놀자’. 영화가 끝난 후 인근 백화점에 들러 일주일치 생필품을 사던

차에 아들에게서 휴대폰 전화가 왔다. 친구 집에서 노느라 늦게 집에 온다는 전갈. 이후 양수리로 차를 돌려 가벼운 외식이다 카페에서 차까지 마시고는 한가로이 저수지 주변을 산책하다 보니 벌써 날이 저물어 간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아들과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며 놀아준다 아내와 맥주 한잔을 걸친 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엔 새벽같이 북한산에 올라야 한다.

“지금 회사를 계속 다니건 옮기건 어쨌든 토요일근무를 하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는 것이 아내의 ‘엄명’입니다”

모토롤라코리아는 1992년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차장은 국내 굴지의 자동차 회사에서 11년간 근무하다 4년 전 이곳으로 옮겨왔다. 토요일 야간근무, 경우에 따라선 일요일 근무까지 당연시하는 조직 분위기에 익숙했던 그는 주5일 근무 조건에도 ‘우리나라에서야 일 있으면 주말에도 출근하는 거지. 별 수 있나’고 대수롭지 않아 했다. 그러나 ‘천지개벽’이 없는 한 지켜지는 주말근무 없는 회사생활 4년은 그와 가족의 삶, 인생관까지 완전히 바뀌 버렸다.

#주말은 단지 휴식만이 아니다

이들을 선다는 것은 단순히 휴일이 하루 늘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도무지 쉬는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우리 근로자들에게 이틀은 그냥 놓고 보내기에는 너무나 긴



노 원 명
한국일보 기획취재부 기자

시간이기 때문.

올해 4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주)삼성테크스코의 고영실(28·여)주임은 “예전에는 다음주를 대비한 휴식 이상을 생각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회사생활과 구분된 자신만의 계획을 구상하고 실천할 여유가 생겼다”고 만족해 했다.

고 주임은 주5일 근무제로 바뀌자마자 종로에 있는 주말 영어회화반에 등록, 토·일요일 각각 3시간을 꼬박 공부에 투자하고 있다.

때문에 남자친구와의 데이트시간은 오히려 예전보다 줄어드는 예기치 못한 결과가 생기기도. 사내 레저동호회 ‘케세라’를 이끌고 있는 태경실(38·여)과장은 “래프팅, 번지점프, 윈드서핑 등 장거리 이동을 해야 가능한 취미생활을 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며 “최근 동호회 합류를 문의해 오는 동료들이 부쩍 늘었다”고 소개했다.

삼성테크스코가 최근 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혼자의 경우 76%가 토요일을 가족을 위해 보낸다 고 응답한 반면, 미혼자는 41%가 문화생활, 33%가 자기개발에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주말을 온전한 자신만의 시간으로 계획하려는 분위기 탓에 직장 회식문화도 많이 바뀌었다.

99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LG 칼텍스 가스의 김창수(47) 과장은 “과거에는 금요일이면 동료들간의 술자리가 밤늦게까지 이어졌지만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다들 주말에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대가는 따른다

모토롤카로리아의 김경덕 과장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 퇴근까지 점심시간 한 시간을 빼면 그야말로 잠시도 쉴 틈도 없이 일을 해야 한다”고 전한다.

“출근하자마자 그날 처리해야 할 업무과약부터 합니다. 어느 땐 점심먹을 시간조차 부족할 만큼 타이트하죠.”

직원들간의 대화가 잡담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시간 중에는 바로 옆자리에 앉은 팀원들간의 의사소통도 사내메일을 통해 해결할 정도다.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잔무 정리로 신경이 팽팽히 곤두서는 것도 주5일 근무제하에서의 ‘신종증후군’. 갈끔한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치러야 할 대가다. 문화관광부에 근무하는 김모 서기관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한 공무원의 기대감이 무척 높긴 하지만 현재와 같은 느슨한 근무풍도가 그대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며 “업무의 계량화와 집중화, 이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적응자도 있다

약도 체질에 따라 받는 경우가 있고 거꾸로 역효과가 나기도 하듯, 주5일 근무제 역시 모든 사람에게 만족스런 것은 아니다. 특히 전통적 근무시스템에 인이 박힌 중견 직장인의 경우는 다소의 부작용 증세가 드러나기 마련. 삼성테크스코의 김모 과장은 “이틀이나 집에서 뒹굴러니 집사람·아이들 눈치가 보인다”고 농반진반으로 말했다. 이유 인즉, 일요일 하루만 쉴 때는 피곤하다

는 핑계로 ‘당당하게’ 휴일 내내 낮잠을 잘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용납이 안된다는 것.

“아이들 등상에 피곤해 죽겠어요. 놀러가는 것도 한 두번이지, 어른이야 뭐 재미가 있나요. 그렇다고 특별한 취미생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의 집에 있으면서 먹는 것만 찾는다고 구박합니다.”

김 과장은 출근을 핑계로 토요일 오후에 친구들과 어울려 맥주 한잔을 기울이던 ‘반공일의 여유’가 몹시 그림자라고 했다.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는 유모씨의 경우 주말을 모조리 자신의 취미생활에만 투자해 원성을 듣는 케이스. 토요일은 거래회사 관계자들과 골프약속, 일요일엔 대학 동창들과의 등산계획으로 그의 주말 일정은 언제나 빡빡하다.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 살가운 느낌도 사라진 아내의 얼굴을 이틀동안 마주해야 하는 것은 사실 좀 고역”이라고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었다.☞

문화관광부에 근무하는

김모 서기관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한 공무원의 기대감이 무척 높긴 하지만 현재와 같은 느슨한 근무풍도가 그대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며 “업무의 계량화와 집중화, 이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박물관 연장 개관... 스포츠 · 관광 '열기'

여가가치의 재산성

삶의 가치를 재는 척도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최근 일자리난이 심각해 여가 이야기가 마땅치 않지만, 요즘에는 노동과 동시에 쉬는 것을 중시한다. 잘 쉬는 것이 오히려 최선인 것처럼 보인다. 주5일 근무제(주2일 휴무제)는 이러한 시대변화의 소산이다. 심지어 '학력제일주의' 대신 '락력(樂歷)제일주의' 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쉬는 시간을 잘 지내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이다.

이제 불원간 우리도 5천만 레저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생각해보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일하는 것만이 최고 덕목이던 시대를 지나면서 잘 산다고 하는 기준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람 있게 사는 것이 최고인 것으로 바뀌었다. 적어도 이제는 생존차원이 아닌 생활차원의 시민으로서 '고품위 생활'을 기대한다. 머지않아 우리는 '생활문화 시대'로 진입하게 되면서 '레저의 문화화'와 '문화의 레저화'를 동시에 실현하게 될 것이다. 국가가 나서서 이를 지원할 것이며, 기업들도 직원의 문화활동이나 국민들이 선호하는 장르에 대한 메세나활동을 자연히 더욱 강화하게 될 전망이다. 지방에서는 문화나 관광수요에 맞춰 자기 지역의 문화역사자원을 상품으로 홍보하게 되고 이를 지역활성화의 계기로 활용할 것이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가정이나 개인의 생활

패턴에서 변화를 보일 것이다. 문화소비란 원래 시간 및 소득 탄력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개인 여가생활의 걸림돌이었던 생활시간 배분에서 여가가 생겨나게 됨으로써, 막상 늘어난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칫 비생산적인 시간낭비나 시간소모에 그치지 않을까도 우려된다.

우리보다 더 일찍부터 여가시간을 늘려 지내던 외국의 경우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우리는 놀아본 경력이 없어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

여가가 최고인 프랑스인들

프랑스에서는 1936년에 주 40시간 노동제가 도입되었다. 그해 첫 여름휴가를 보낸 프랑스인들은 '행복한 1936년'이라고 말할 정도로 기뻐했으나 그것도 잠깐, 세계대전 등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는 10년뒤인 1946년부터였다. 이때 정부는 여가 경험이 적은 근로자 등의 단체여가 활동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뒀다.

그 이후 프랑스인들의 바캉스 열풍은 우리가 익히 들을 정도로 중요한 연중행사가 됐다. 각종 유스호스텔이 만들어지고 박물관 개관시간이 연장돼, 심지어는 근로자 열차여행 요금도 인하돼 그들을 신나게 해줬다. 여가활동은 점차 여가향유, 예술향유 등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로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나 민간업자들이 이에 편승해 대



이 흥 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수석연구원

중관광협회가 창설되고 청소년층의 여행·스포츠활동이 활성화됐다.

1998년에는 드디어 주35시간제가 도입돼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휴가에 돌입하는 여가행태를 보이면서 다시 여가는 '보다 짧게, 보다 자주' 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권 내 문화활동이 급격히 활성화되기에 이르렀다.

여가를 소중히 하는 일본인들

일본은 1989년 1월부터 주 40시간 노동제가 도입됐다. 소위 '주휴이일제(週休二日制)'라고 하는 것이고, '어린이들에게 여유있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목적으로 2001년부터 학교에서도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주거내 여가활동이 주류를 이루던 전통적인 일본인들의 여가는 총리부 '여가와 여행에 대한 여론조사'(1986)에서도 잘 나타나있듯이, '아무 것도 하지않고 빈둥댄다거나 TV나 신문들을 본다'는 식의 휴양개념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주휴이일제 조치이후 국민의식의 중점이 여가생활을 즐기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졌고, 간단한 운동이나 스포츠활동, 외식이나 쇼핑, 숙박여행, 당일치기 왕복여행, 드라이브 등의 관광레크레이션이 증가하게 됐다.

정부의 의도적인 노력은 여가 일수 조정에서도 나타나 노동시간의 단축을 도모하는 가운데 연속 휴일의 확실한 보급이나 연차유급휴가를 더욱 많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가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해외여

객수는 최근 15~30%정도씩 증가하고 있으며 여행이 좀더 다양화하고 고급화되는 추세이다. 관광행락시장은 약 30조엔 시장(2000년현재)으로서 최근 평균 약 10%씩 상승세를 타고 있다. 여기에 민간에서 군침을 당기지 않을리 없어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이 다투어 나오고, 여가정보가 공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스트레스 해소산업·건강관련 산업등이 날개를 달고 번창하고 있다.

노동을 중시하는 중국인들

전통적으로 노동을 신성시하는 풍토인 중국은 1995년 3월에 쌍휴일(雙休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설날과 같은 연휴에 익숙한 중국인들이지만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우선 관광휴가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중국인들이 즐겨하는 외식서비스업이 큰 폭으로 증가돼 증가율면에서 타 업종이 엄두도 못할 정도인 매출액 30%신장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차원에서의 대응으로 우선 체육관시설의 증가와 활용도 제고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잔디구장, 수영장, 헬스클럽, 테니스코트 등이 주요도시에서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다. 가족입장권, 연간이용권 등 다양한 형태로 손님들을 유혹하고 있다.

학교들이 쌍휴일정책에 맞춰주고 있어 중학생들의 경우 다양한 클럽활동이 눈부시게 이뤄지고 있다. 문화예술, 오락, 체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클럽활동을 지도하고 참여하는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대학에서는 쌍휴일을 통

해 학습에 더 열중한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에 아르바이트나 가정교사에 시간을 할애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연속 이틀간의 가정교사활동으로 반달분의 용돈수입을 챙기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학생들의 쌍휴일 중 소비가 급격히 증가한다. 대학주변의 식당에서 대학생들의 소비금액은 보통가정의 일주일소비와 맞먹을 정도라고 하니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래서 각종 신문들은 대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의미 있는 쌍휴일을 보내도록 해야한다는 논지를 내보내고 있을 정도이다. 국가교육위원회도 통지문에서 '인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쌍휴일인만큼 '과학기술, 문화, 예술, 가정, 스포츠 등 심신의 건강에 유익한 다양한 행사를 조직'하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선도하고 있다.

한가지 역설적인 것은 90년대 보다 근무시간은 증대됐다고 하는 점이다. 주민들의 30%정도는 전에 비해 근무시간이 늘어났는데, 이는 근무의 성격과 방식도 변화하고 있어 휴일을 철저히 쉬기 위해 노동압박이 가해진 것이며 대부분 연장근무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중국사회에서 우려되는 또 하나는 여가소비의 양극화 심화문제이다. 한가한 시간이 감소된 일부 사람들과 달리 중년 노인이나 노년 주민들은 학습시간도 필요하고 오락에 쓸 돈도 없어서 한가한 시간만 늘어나 시간이 많아진 것 그 자체가 오히려 짐이 되는 것이다. 

지방문화원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산성 찾기 · 농촌체험 개발해 볼 만”

오 늘날을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호모 루덴스(놀이하는 인간)는 사라지고 호모 에코노미쿠스(생산하는 인간)만이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여가와 레저가 이 시대의 화두로 등장했지만 이 ‘문화’의 진정한 정체는, 자동차를 타고 ‘놀이’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느라 고속도로에서 휴식은 커녕 온몸이 탈진해 버리고 마는 데서 바닥이 드러나 버린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은 향후 여가활동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전기도 지방문화원의 준비를 요구한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우선은 이들을 쉬더라도 여가시간을 돈 쓰는 데 바치는 이른바 금전소비형 여가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각 지방 문화원에서는 기존의 일회성, 단순 관람형 문화사업을 지양하고 늘어난 여가시간을 문화의 장으로 끌어안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전통문화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레저활동과 연계하거나 해당 지역의 다양한 사회봉사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권역 개발 등과 다각적 접목을 통한 가족중심의 체류형 문화관광 상품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지방 문화원의 인적·물적 현실을 감안해 실현 가능한 문화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의 향토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기존의 지역문화재 탐

방에서 벗어나 주말시간을 이용해 가족단위의 산행프로그램으로 각 지역에 산재한 산성 찾기를 시도해 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다. 여기에서 참가자들은 레저와 문화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으며 향토사랑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둘째, 도·농 문화원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농촌체험·도시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해 볼만하다. 참여자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생태교실, 문학교실, 전통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되 문화원은 지역의 환경운동단체나 문예단체 등과 조직적인 연계로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늘어난 여가시간에 쓸 자금압박을 느끼는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은 여가 향유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의 혜택에서조차 소외되는 사회계층에 대한 배려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지방문화원에서는 사회교육활동을 대폭 강화해 늘어난 여가시간을 자신의 창의적 소질을 개발하기 위한 유익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노동중독증 사회에서 탈출하기, 해방과 일탈로서의 여가 되찾기, 진정한 문화를 즐기기,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상상력을 되찾아 그로부터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면서 자신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문화원의 역할과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문**



허 명 범
지천문화원 사무국장

나는 이렇게 여기를 보내고 싶다

“영화 · 전시회 보고 운동 · 등산 하고 싶어”

‘보다 많이, 보다 빠르게, 보다 싸게’ 라는 말이 구호처럼 쓰이던 시절이 있었다. 참으로 힘들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시절이었다.

그때 우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같이, 우리나라가 잘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보고 싶었기에 웬만한 고통은 고통으로 여기지도 않고 땀흘렸다.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가정이 주말이면 승용차에 가족을 태우고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일터에서 퇴근해 귀가하자마자 밥 먹기가 무섭게 내일 일을 위해 쓰러져 자야만 하는 근로자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5일 근무제 운운 한다는 것은 그들의 어깨에 자존심만큼 남아 있는 힘마저 빠지게 하는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시대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세계는 생산과 소비의 시장 경제 사회로부터 정보와 통신의 문화 창조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개인의 삶도, 삶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회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에 들어서 있다. 앞으로 우리는 ‘노동은 의식주 해결’이라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즐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주말을 즐기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내 경우만 해도 주말이 되면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변변히 문화생활을 즐길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오히려 더 고달프고 힘든 날이 많았던 것 같다.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면 시간적 · 정

신적으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다. 영화 한번 보러 가려면 시간 맞추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는데 조금은 수월해질 것이고, 남편이 그리도 좋아하는 음악회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밖에 전시회 · 연극 등 같이 가고 싶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남편과 같이 운동하러 다니는 것이다. 항상 일에 쫓겨 바쁘는데 과음하는 날이 많은 남편의 건강이 걱정되기도 하고, 나 자신도 요즘 들어 운동이라고는 거의 하지 않으니 몸이 조금만 아프면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운동 삼아 산책도 하고 또 산을 좋아하니 등산도 할 생각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요일마다 산에 갔는데, 다음날 곧바로 출근해야 하는 부담감이 적지 않았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간 산에 자주 가지 못해서 (남편의 가장 큰 불만) 우선 등산을 꾸준히 하고 싶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시간도 많아져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또한 내가 이런 혜택을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더욱 열심히 할 것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주 5일 근무제의 근본 취지인 만큼, 꾸준한 자기 계발과 건전한 문화생활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 성 화
광진문화원 회원(도우미)

장을병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우리 정신문화의 기둥'

박 계 현 기자 fire@kccf.or.kr

지난 10월 9일, 경기도 분당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는 작은 변화의 바람이 일었다. 이 연구원을 이끌 '뉴 리더'로 장을병 원장(68)이 취임한 것. 장원장의 취임 당시 세상에서는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그의 이력을 염두에 두고 '혹여 정신문화연구원에 다시 정치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장원장은 취임한 지 두 달 남짓 사이에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켰다. 장원장은 그간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연구원의 업무와 사정을 모두 파악한 결과라고 말했지만, 세간의 곱지 않은 선입견을 잠재운 데는 아마도 그의 학자적 양심과 관련이 깊을 듯 싶었다.

성균관대학교 정치학과 출신인 장원장은 동(同)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61년도부터 시간강사를 거쳐 총장을 역임하기까지 반평생을 학문에 매진해온 학자이며 교육자다. <한국정치론>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인물로 본 한국의 민족주의> <정치의 패로독스> 등 그가 집필한 많은 정치학 서적은 정치학도들의 필독서로 쓰일 정도다. 장원장은 그 누구보다도 '학문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자임



에 틀림없다. 다시 학(學)의 장(場)으로 돌아온 장원장은 “학문의 자율성을 제1과제로 삼아 그 소임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한다. 바로 그것이 지금까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거쳐간 원장들과는 다른 “12대 장을병 한국정신문화원장”만의 장점일 것이다.

“항간에서는 외도라 할 4~5년간의 정치생활에 대해 우려를 하지만 오히려 이것은 정치적 외풍을 막아 줄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적극 지원 할 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수장으로서는 장원장이 표방하는 것은 ‘민족주의’다. 그는 “90년대 이후 유행어처럼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국제화·세계화·지구화’라는 용어를 한번쯤 곱씹어 봐야한다”며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이 세계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편의상 내세우고 있는 세계화니 국제화니 지구화니 하는 말들을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철딱서니 없는 짓’”이라고 쓰아 붙인다. 장원장은 “미국보다 힘이 약하다고 덩달아 따라가는 것은 우리 정신문화의 축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주체성과 주관을 지켜 구심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설령 끌려간다 할 지라도 우리의 것을 재발굴하는 것. 그것이 장원장이 정의 내리는 ‘민족주의’다. 그러한 철학 때문인지 장원장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발간에 관심이 많다. 우리의 지방문화 발굴은 남에게 휩쓸리지 않는 ‘우리의 것’을 찾는 일이기 때문이

다. 전국 각 시·군·구의 향토문화표준분류체계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화를 위한 기초연구 단계에 있는 이 사업에 대해 장원장은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있어 든든하다”며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전국의 문화원을 통해 향토사료를 발굴해 키우고 지켜나가는 몫을 해주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그 자료를 누구든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고 체계화하겠다”고 말한다.

또 12월 14일 있을 ‘제16회 전국향토사논문발표회’에 대통령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장원장은 “올해 논문부문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상인 ‘특별상’을 제정하게 돼 기쁘다”며 “문화관광부 차원을 넘어선 ‘대통령상’도 제정해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을 새삼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한다.

‘촌놈기질’ 이 삶의 모태

삼형제 중 둘째인 장원장은 초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중학교로 진학하지 못했던 우울한 유년시절의 기억을 갖고 있다. 줄곧 1등만 하는 형은 장손이라 집안에서 어떻게든 학교공부를 시켰는데 3~4등밖에 못하는 자신에게까지 진학의 기회가 돌아오기에는 당시의 집안형편이 그리 넉넉치 않았던 것. “나뭇짐을 해서 돈을 모아 중학교에 진학할 때쯤 아버지가 군청에 취직해 집안 살림이 폄했습니다. 일년동안 내가 나무를 팔러 다니지 않았어도 학교에 갈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장원장은 그때 아무런 대책없이 형편이 나아지길 뉘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장원장은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나 자연과 더불어 자란 ‘촌놈’입니다. 고등학교도 ‘삼척공고 광산과’를 졸업했지요”라며 웃는다. 촌놈이기에 장원장은 약속 빠른 계산에 둔하다. 그런 그의 ‘촌놈기질’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어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생회장으로, 성균관대 재학시절에는 삼척군 재경학우회 회장으로, 대학원 입시 때는 유일한 합격자로 그의 삶의 과정에서 어김없이 그 힘이 발휘됐다. 어디 그 뿐인가. 삼선개헌반대, 5·18 민주화운동, 134인 지식인 선언 등 군부독재 시절의 역사적인 사건에서 ‘장을병’이란 이름이 빠진 적이 없었다. “지명수배령 1번 타자, 동가식 서거숙, 지하3층 어둡컴컴한 공간, 전기 불빛 하나, 참나무 몽둥이, 협박, 죽음에 대한 공포...” 역동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는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온갖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그가 고초를 겪는 사이에 신길동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부인의 병원은 ‘박살’이 나고 집안도 엉망이 됐다. 장원장은 “최도 자꾸 얻어터지면 강철이 된다”며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전가시키지 않기 위해 모든 일은 내가 주동한 것으로 뒤집어쓰면서 동료들과의 의리를 지켰다”고 말한다. 이해관계가 둔하고 의리를 중요시하는 것. 그것이 장원장의 ‘촌놈기질’이고 그의 삶의 바탕에 깔린 아름다운 무늬다. 장원장은 “다시 학문의 장(場)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돌아와 마음이 편하다”며 창 밖의 맑은 공기를 한껏 들이마셨다. 

제16회 향토사 공모 대상에 향토사가 강성복씨 당선

최우수상엔 정우영 장위중 교사·김강산 태백문화원 사무국장

전 명 찬 전국문화원연합회 문화정보과장

12월 1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상식 및 발표회

제 16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공모전 심사결과 국무총리상인 대상에 강성복(37·姜成福·금산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씨의 논문 「日帝下 解放以後 ‘松契’ 研究—금산 지역을 중심으로—」가 당선됐다. 논문 및 사료부문 문화관광부장관상에는 정우영(36·鄭又榮 서울 장위중 한문교사)씨와 김강산(50·金剛山 태백문화원 사무국장)씨가, 금년에 신설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상에는 백승명(32·白承明 직산위례문화연구소장)씨가 각각 입상했다. (표 참조)

대상을 차지한 강성복씨의 「日帝下 解放以後…」는 충남 금산지역의 촌락 조직인 「松契」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민속, 역사, 사회경제 등 면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생활문화사적인 특성을 잘 규명한 논문이다.

심사위원들은 “주제의 선정이나 논리의 전개, 체제면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논문으로 평가한다”면서 “조선후기의 ‘松契’ 운영의 모습을 보완했으면 보다 좋은 논문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강씨는 『금산의 탐신앙』, 『장벌리 탐제와 동화제』 등 민속 및 역사분야에

10여권의 저서와 수십편의 논문을 발표한 대전·충남 지역의 대표적인 소장파 향토사가다. 지난 1997년 제12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에서 「한국의 탐신앙에 관한 연구」로 당시 최고의 상인 문화체육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정우영씨의 논문 「雲溪寺 古石碑와 紺嶽山 巫俗信仰의 始原」은 감악산이 지닌 군사요충지적 성격과 지형의 경계, 신앙의 모태가 되는 설인귀 등 풍부한 논거를 통해 논증하여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했다는 평을, 김강산씨의 「陟州東海碑文과 眉叟 逐穢文의 考察」은 삼척지역의 지리적 상황과 기후, 재양조사를 통해 碑文과 逐穢文을 해석한 연구로서 논리 정연하고 眉叟 逐穢文의 原作者가 許穆임을 입증한 점이 각각 높게 평가됐다.


한편 올해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60여편의 작품이 응모됐는데, 특히 두드러진 현상은 응모자 중 20~40대의 연령층이 전체의 64%를 차지했으며(수상자의 경우 15명중 12명으로 80%에 해당) 1/3은 석사과정자 이상으로 고학력층의 향토사연구자 편입이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역대 처음으로 일본인 유학생이 응모하는가 하면 정선아리랑을 주제로 한 영상논문이 응모되기도 했다.

심사위원들은 “응모작의 수준이 예

년에 비해 매우 우수해 심사에 난항을 겪었다”면서 “입상하지 못한 작품 중에도 우수한 것이 많아서 아쉽다”라고 입을 모았다. 심사기준으로는 논문부문은 현장조사·자료의 성실성, 주제 선정(의식) 및 소화능력, 기존 연구동향 및 성과점검여부, 체제나 논리, 지역사 기여도와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며, 사료부문은 발굴성과와 새로운 자료, 사료의 해석과 의미부여, 체제 논리, 지역문화(사) 및 연구기여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심사위원은 임동권(중앙대 명예교수) 정구복(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김선풍(중앙대교수) 이해준(공주대교수) 이영춘(국편위 편사연구원) 등 5명이 1, 2차에 걸쳐 심사를 했다.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는 1986년부터 민족문화의 근간인 향토문화의 체계적인 연구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향토사가의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기 위해 매년 향토사 논문 및 사료를 공모해 시상하는 제도로서 국내에서 유일한 전국 규모의 향토사 논문 공모대회다.

시상식과 수상작발표회는 12월 14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있으며 이번 대회의 수상작을 묶은 작품집이 발행된다. 수상작은 본회 홈페이지(www.kccf.or.kr)에서 볼 수 있다. 

<논문부문 대상>



강성복

<논문부문 최우수상>



정우영

<사료부문 최우수상>



김강산

<제16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심사결과>

부문	상 격	성 명	논 문 명	상금 (만원)
논 문	대 상 (국무총리상)	강성복 (금산문화원향토사연구위원)	日帝下 解縵以後 '浹權 郿鉞 - 금산지역을 중 심으로-	300
	최우수상 (문화관광부장관상)	정우영 (서울 장위중학교 교사)	礪糲類 鑿扉捋와 捋捋糲 浹捋綸鷓의 簷嶸	200
	특 별 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상)	백승명 (직산위례문화연구소장)	天瘋 策蹠 櫛糲糲 地囁 類刹郿鉞 - 圖天類址 를 中唳으로-	150
	우 수 상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상)	정광순 (중앙문화원향토사연구소장)	朝牌靄馮 漢耕縵 「馱糲燈糜糜」의 職耗에 蠟 한 郿鉞	150
	우 수 상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	이운선 (목포대대학원석사과정)	縵埤地囁 浹捋과 蚘遷에 대한 郿鉞 -무당 송 순단과 진도지역을 중심으로-	150
	장 려 상 (전국문화원연합회장상)	서중원 (중앙대민속학과 4년)	捋縵지역 波謫 -礪察	100
	장 려 상 (전국문화원연합회장상)	박종안 (밀양시 밀성고 교사)	蚘踴筍糲堤에 대한 검토	100
	장 려 상 (전국문화원연합회장상)	곤노케이꼬 (전남대대학원석사과정)	강강술래와 일본 전통 가무와의 비교고찰	100
	장 려 상 (전국문화원연합회장상)	김일용 (통영시향토역사관 관장)	統縵鉞可에 관한 郿鉞	100
	사 료	최우수상 (문화관광부장관상)	김강산 (태백문화원사무국장)	陟州礪海捋醇과 捋斐 逐糲醇의 礪察
우 수 상 (국사편찬위원회장상)		이은우 (서산향토사연구회장)	서산지방 謫場의 懾邾	100
우 수 상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		유대균 (정선교육청 장학사)	정선아리랑 전수교육 연구	100
장 려 상 (전국문화원연합회장상)		심현용 (울진역사연구회 연구원)	경북 駮珍지역 고인돌 조사보고	50
장 려 상 (전국문화원연합회장상)		정기범 (음성군청 학예사)	음성(翻) 거북놀이	50
장 려 상 (전국문화원연합회장상)		이현우 (안산문화원 사무국장)	대부도(農縵) 지명유래에 대한 고찰	50

동지

팥죽의 붉은 색 보면 귀신들 달아난다고 믿어

박 후 식 전국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

동지는 일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로, 양력으로는 12월 22·23일경이다.

동지를 '음해가 되는 날(亞歲)', 또는 '작은 설'이라 해서 크게 축하하는 풍속이 있다. 민가에서는 붉은 팥으로 죽을 쑤 자신의 나이만큼 죽 안의 새알심을 먹는다. 팥죽 국물은 역귀(疫鬼)를 쫓는다하여 벽이나 문짝에 뿌리기도 한다.

한편, 궁중에서는 관상감에서 만들어 올린 달력을 '동문지보(同文之寶)'란 어새(御璽)를 찍어서 모든 관원들에게 나누주는데, 이 달력은 황장력(黃粧曆)·청장력·백력 등의 구분이 있었고, 관원들은 이를 다시 친지들에게 나누어 줬다. 이러한 풍속은 여름에 부채를 주고받는 풍속과 아울러 '하선동력(夏扇冬曆)'이라 했다.

제주도에서는 동지 무렵 글과 감자를 진상하고 평안도, 함경도에서는 메밀 국수로 냉면을 만들어 먹고, 청어를 친신했다. 궁에서는 동지 절식으로 우유와 우유 죽(타락죽)을 내공신에게 내려 약으로 썼다.

동지에 얽힌 이야기

중국 진나라에 공공이라는 사람에게 골칫덩어리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아들 때문에 하루도 맘 편한 날이 없었는데,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인 그 어느 동짓날에 공공의 말썽장이 아들이 죽고 말았다. 그런데 죽은 아들이 그만 역질(천연두)귀신이 됐다.

그러니 공공은 자신의 아들이었다 해도 그냥 둘 수가 없었다. 공공은 아들이 팥을 무서워했다는 기억을 떠올리고는 팥죽을 써서 대문간과 마당 구석구석에 뿌렸다. 역질 귀신이 된 아들이 공공의 집에 왔다가 팥죽을 보고 달아나 버렸다. 그 날 이후로 사람들은 역질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동짓날이 되면 팥죽을 썼다. 동짓날 팥죽을 먹지 않으면 귀신을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쉽게 늙고 잔병이 많이 생겨 일 년 내내 몸이 불편해진다고 여겼다.

한편 동지가 음력 11월 10일 이전에 들때를 '애동지'라고 하는데 그때는 팥죽을 쑤어 먹으면 아이들에게 나쁘다고 팥죽을 쑤어 먹지 않았다.

팥은 곡식들 중에서도 유난히 붉은 색을 지닌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귀신은 밝은 것, 즉 붉은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색을 보면 달아나거나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남자 아기를 낳은 집에 붉은 고추를 새끼줄에 꿰어 놓는 것도 그렇고 또 귀신들이 소녀를 좋아한다고 해서 소녀들은 봉숭아 꽃잎을 찢어 손톱에 빨갭게 물들이게 했다. 이런 풍속은 요즘도 남아있어 아기들의 백일이나 돌에 수수 팥떡을 한다.☞



동지음식

팥죽

동지 팥죽은 먼저 사당에 놓아 차례를 지낸 다음 방, 마루, 광 등에 한그릇씩 떠다놓고, 대문이나 벽에다 팥죽을 뿌리고 난 다음에 먹는다. 이 풍습은 팥이 액을 막고 잡귀를 없애 준다는 데서 나온 것이다. 또한 색이 붉어 잡귀를 쫓고자 할 때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동네의 고목에도 뿌리는 풍습이 있다.

전통적으로 팥죽 만드는 법 : 삶은 팥을 걸러, 물을 적당히 섞고 소금으로 간해 동노구(큰솥)에 한참 곤다. 쌀을 넣고 퍼지면 새알심을 넣고 다시 쑈다. 그 다음 꿀을 조금 치고 꺼낸다. 새알심은 팥 삶은 물과 생강즙을 조금 넣어 빚고, 고을 때 대추를 넣으면 매우 좋다.

팥죽을 맛나게 끓이는 응용법 : 처음에 팥을 삶아 찻물은 버리고, 새물을 붓고 삶아야 쓴맛이 없다. 새알심은 익반죽하고, 폭 삶은 팥을 끓은 체에 걸러서 오래도록 달이다가 쌀을 넣고 잘 퍼졌을 때 새알심을 넣는다. 소금 간을 하여 그릇에 담고 식성에 따라 꿀로 단맛을 더한다.

우유

우유는 서양풍물이 들어온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나라의 '고려사'를 보면 시인 이순의가 우유에 대해 관에 상고한 기록이 있다. "우유를 약용으로 즐겨하여 의관들이 농민의 젖소를 징발하여 우유 죽을 만드니 경기도 지방의 농사를 지을 소마져 상하게 하니 이를 금하게 해 달라" 하는 것이 있다. 몽고와의 교류 뒤 국가의 상설 기관으로 '유우소(乳牛所)' 또는 '목우소(牧牛所)'가 있었는데 조선 시대에는 '타락색(駝酪色)'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타락'이라는 이름은 돌궐(突厥)어의 '토라크'에서 나온 말인데 말린 우유를 뜻한다. 조선조에선 우유제를 통틀어 '타락'이라 불렀다. 우유를 그대로 마시는 일은 드물고 낙죽 혹은 전약(煎藥)의 재료로 썼다. 특히 왕의 병에는 궁전 안의 약방에서, 대신의 병에는 왕이 하사도록 해 이를 만들어 올렸다.

우유 죽(타락 죽) 쑈는 법 : 쌀 1컵을 곱게 갈아 체에

말쳐 3컵의 물을 붓고, 된죽을 쑤다가 2~3컵의 우유를 넣고 몽우리 없이 풀어 부드럽고 묽게 해, 따끈할 정도로만 데워 낸다. 식성에 따라 꿀, 소금을 넣어 먹는다. 끓이면 맛이 시어지고 너무 시간이 지나면 삭으니, 죽을 쓸 때는 돌솥에 나무 주걱이 제일 좋은 도구다. 죽의 반찬은 부드럽고 작게 하며, 된장조치보다는 젓국조치가 잘 어울린다. 흰죽을 쓸 때 쌀의 일부는 참기름을 넣고 갈아서, 쌀의 6배의 물을 붓고 끓이다가 나머지 통쌀을 넣고 잘 퍼지도록 끓여 내면 한 보시기의 흰죽이 보약보다 낫다 했다.

냉면

주로 함경도나 평안도 지방에서 바깥의 기온이 뚝 떨어져 있을 때, 따끈한 구들목 위에서 이가 시리도록 즐겨 먹었다는 풍속이 전해지는데 요즘은엔 이열치열이 아닌 한더위 때에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좋아하는 음식이 됐다. 냉면은 메밀을 곱게 가루 낸 후 매우 가늘게 국수를 뽑아 삶아서 찬물에 씻어 건져 두고 위에 무, 오이, 배, 유자, 돼지고기 편육, 달걀 지단채를 얹는다. 그 위에 살얼음이 낀 동치미 국물을 붓는다. 겨자와 식초로 맛을 맞춰 먹는다.

비웃구이와 비웃젓

청어는 기름진 겨울철 생선으로 나라에서는 청어를 종묘에 천신하는 풍습이 있었다. 청어는 기름기가 많아 고소하므로 주로 구워 먹었다. 보관이 어려워 들것하고 기름진 것을 담아 먹었다. 한 마리씩 꺼내어 갖은 양념해 쪄 먹기도 한다.

전약

우유에 말린 생강, 정향, 계심, 꿀을 섞어 만든 것을 '전약'이라 한다. 고려 때 팔관회의 진찬이었다. 우유가 부족할 때는 대신 우족고(牛足膏)를 쓰고, 말젖으로 대응하는 일이 있었다고 전한다.

부산

‘조선통신사 재현’ 등 문화행사로 日 넘는다



월드컵과 지역문화

민족주의와 상업주의 확산에 대한 비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올림픽과 월드컵은 단순한 국제 스포츠 행사라기보다는 지구촌 국가들이 펼치는 국력의 각축장이 된 지 오래다.

국제 스포츠 축제를 유치함으로써 얻게 되는 부가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대회 기간 중의 관광 수입이나 관련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이미지 고양을 통한 외교적인 성과도 엄청나다. 국민을 결속시키고 자부심을 높이는 등 정치적인 효과도 뒤따른다. 올림픽과 월드컵 유치를 위해 지구촌 국가들이 국운을 걸고 나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올림픽과 월드컵을 모두 유치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프랑스·스웨덴·영국·독일·스페인·멕시코·이탈리아·미국 등 11개국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이어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80년대 이후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위상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 버금가는 경제력과 국제 스포츠 행사를 무리없이 치러낼 수 있는 국가라는 국제사회의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2002년 월드컵이 이제 불과 7개월 앞

으로 다가왔다. 88년 서울 올림픽은 6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모습을 국제사회에 유감없이 보여준 무대였다. 이제 2002년 월드컵은 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더욱 발전된 우리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확인시켜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2002년 월드컵은 일본과 공동으로 치르는 대회다. 한국과 일본 모두가 10개 도시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점도 이채롭다.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2개 국가 20개 도시에서 경기가 열리는 만큼 공동 주최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지구촌의 관심은 그 어느 대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월드컵은 양국이 국가와 국민의 총체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경쟁의 장(場)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은 경제력이나 스포츠 인프라 측면에서 우리보다 우위에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다양한 전통을 지닌 우리가 유리하다. 우리나라가 2002년 대회를 일본보다 더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월드컵조직위원회가 2002년 월드컵의 성격과 목표를 ‘경제월드컵’ ‘문화월드컵’ ‘환경월드컵’ ‘국민월드컵’ ‘평화월드컵’으로 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의 바탕 위에서 형성된 우리의 문화를 지구촌 가족들에게 널리 알리



이 명 관
부산일보 문화부장

는 그 자체만으로도 경제적인 가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월드컵에서 지역문화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다. 한 국가의 문화란 곧 지역문화의 복합체에 다름 아니다. 경기가 열리는 전국 10개 도시의 문화가 곧 한국문화를 대변하는 셈이다.

월드컵과 부산

부산은 2002년에 두 개의 중요한 국제 스포츠 행사를 치러야 한다. 아시안 게임과 월드컵 예선전이 그것이다. 예선전 3경기가 치러질 월드컵 경기는 6월에, 아시안게임은 9월에 열린다. 부산으로서는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행사다.

특히 월드컵 본선 조 추첨 행사가 오는 12월1일 부산에서 열린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FIFA 관계자와 선수 임원 보도진 등 전 세계에서 4천여명의 외빈이 참석한다. 80분 이상 소요되는 조 추첨행사는 실시간으로 위성을 통해 지구촌 곳곳에 중계되며 10억명 이상이 TV를 통해 지켜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부산은 당장 12월부터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가 휘몰아칠 전망이다.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 대비, 정부와 부산시는 그동안 경기장 등 하드웨어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 결과 월드컵 예선전과 아시안게임 메인 스타디움으로 활용될 대규모 경기장은 이미 지난 9월 완공됐다. 지난 96년 착공, 6년 만에 완공된 새 경기장의 정식 명칭은 아시아드주경기장(Busan Asiad Main

Stadium)으로 5만4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종합 경기장이다.

이밖에도 본선 조 추첨장으로 활용될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9만2천7백61.44㎡(8천평)의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도 역시 지난 6월 완공된 상태다. 아시아드주경기장과 BEXCO는 규모나 시설 면에서 선진국의 어느 곳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부산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문제는 하드웨어 보다 소프트웨어에 있는 것 같다. 훌륭한 시설에 걸맞은 인적 자원이나 운영 노하우의 확보도 관건이지만 특히 문화 행사와 관련해서 준비가 완벽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 월드컵 문화행사는 정부, 월드컵조직위, 개최도시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정부나 조직위는 “중앙과 지방의 개성

있고 다양한 문화행사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월드컵을 구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바람에 부산의 경우 월드컵 문화행사는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준비중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부산시가 구상하는 월드컵 관련 부산지역 문화행사는 경기장 문화행사 4종, 일반 문화행사 8종으로 구성돼 있다.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관계로 아직은 계획 자체가 유동적이다.

경기장 문화행사로는 경기가 열리는 아시아드주경기장을 중심으로 월드컵 프레이드, 개막 및 경기 축하행사, 한국 체험 퍼포먼스 등으로 짜여져 있다.

일반문화행사로는 대회 기간중 부산역광장 등에 월드컵플라자를 운영, 대형 스크린을 통해 경기를 중계하고 부산지역 무형문화재 공연을 통해 부산지역 문화의 실체를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각종 문화행사 공연 △월드컵 거리축제 △국제락페스티벌 △뮤직비디오 경연대회 등을 통해 부산이 전통과 현대의 문화가 조화된 도시라는 점을 전 세계에 알린다는 구상이다.

또 부산의 지형적인 이점을 최대한 살려 해변민속축제를 열어 국제영화도시로 새롭게 각광받는 부산의 이미지를 한층 드높일 계획이다. 이밖에도 부산시는 월드컵 기간중 세계법선대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부산의 '아시아드주경기장'은 5만4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종합 경기장이다.

●

프랑스가 98년 대회 당시 경기가 열린
보로도 랑스 마르세이유 낭뜨 등
10개 도시의 문화유적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월드컵이 단순히 국가 간의
축구 기량을 겨루는 장이 아니라
주최국의 문화를
즐기는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이를 관광자원화하는데 성공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월드컵 지역문화행사의 과제

지난 98년 프랑스 월드컵을 지켜본 TV 시청자가 연인원 3백60억명인 점을 감안하면 2002년 월드컵대회는 전 세계에서 연인원 4백10억명 이상의 축구 팬들이 시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관람객 수만도 3백5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따라서 월드컵이야말로 올림픽을 뛰어넘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월드컵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유구한 전통과 문화유산의 지닌 문화국가임을 지구촌 가족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문화행사를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

부와 월드컵조직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정부는 월드컵 지역문화행사의 전체적인 윤곽을 하루빨리 마련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행해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흥미 위주의 일회성 프로그램은 가급적 지양하고 지방 고유의 문화적 향취를 관람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지역문화행사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가 98년 대회 당시 경기가 열린 보로도 랑스 마르세이유 낭뜨 등 10개 도시의 문화유적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월드컵이 단순히 국가 간의 축구 기량을 겨루는 장이 아니라 주최국의 문화를 즐기는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이를 관광자원화하는데 성공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부산은 바다와 산이 어우러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해운대해수욕장, 동래온천, 범어사, 태종대 등 이미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관광자원도 풍부하다.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수영들놀이이나 동래들놀이, 동해안별신굿, 좌수영어방놀이를 비롯해 동래학춤, 동래지신밟기, 부산농악 등 야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지역의 독특한 문화도 많다. 이런 토대가 월드컵 부산지역 문화행사에 세밀하게 녹아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맑은 날씨면 부산에서는 일본의 대마도를 눈으로 볼 수 있다. 부산은 역사적으로 일본으로 오고가는 관문이었다. 2002년 월드컵이 한국과 일본간의 국가 자존심이 걸린 행사라면 부산의 성공은 곧 2002년 한국월드컵 성공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김**



지역캐릭터 디자인 도입현황과 육성 방안

테마파크 조성으로 위락단지 · 지자체 관광캐릭터 가치 창출

‘지자체 캐릭터’.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유수의 지자체는 일본의 지자체 관광문화산업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유행처럼 캐릭터를 서로 경쟁하듯 만들었다. 충분한 사전 지식없이 너도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 또는 안하면 시대에 뒤지는 것처럼 앞뒤 생각없이 만들었다. 그 결과 왜 만들었는지를 물어보면 천편일률적인 대답이 나온다. 첫째 홍보, 둘째 캐릭터상품, 셋째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게임 등 멀티미디어 제작이 그것이다. 한마디로 넘도 보고 뽕도 따겠다는 식의 일석 삼조식 사고다. 홍보도 되니 좋고 수익사업도 된다하니 더욱 밀질게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막상 이 세가지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성공한 지자체가 있다고 한다면 손으로 꼽을 정도다. 가장 큰 이유는 ‘마케팅전략의 부재’라고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크게 두가지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첫째, 국내 캐릭터기반산업의 미숙함이다. 일본의 경우는 일반 캐릭터상품시장이 넘쳐나고 또 넘쳐났을 때 새로운 소재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지자체캐릭터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바로 기존 캐릭터 개발 및 발전시스템에 맞물려 성공의 길에 누구나 들어설 수 있었다. 처음부터 홍보 및 상품개발에 적합한 캐릭터를 개발하는 전문집단이 존재해 참여했고 캐릭터상품개발이라는 또 전혀 다른 전문작업도 순조롭게 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전문집단이 홍보마케팅, 특히 캐릭터상품에 적합한 캐릭터를 만드는 데 대한 경험이 전무했고 중앙·지방간 디자인 격차가 심한 현실에서 지방 디자인업체 우선이라는 원칙에 밀려 양산된 캐릭터들은 사실상 홍보응용의 기초단계에서는 물론(활발한 응용형 전개) 캐릭터상품디자인에 매우 부적합한 것들이었다. 캐릭터상품 디자인은 또 전혀 다른 전문분야인데 이것 또한 그 전문성이 국내에는 널리 배양돼 있지 않았다. 즉 전문대행집단이 희소하기 때문에 아마추어적인 상품개발이 횡행했으며 그 결과는 팔리지 않는 상품 즉 악성제품만 양산했다. 시작부터 비극이었다.

둘째, 지자체의 아마추어적 접근이다. 수익사업이면 철저히 손익의 개념으로 별도 사업체를 독립시켜서 장기적인 계획하에 적정 투자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며 일본의 경우는 물론 그렇게 하고 있다. 힘들게 마련한 예산이지만 캐릭터상품을 만들어서 안팔리면 선물로 주면 그만이라는, 더 나아가서 아예 그걸 염두에 두고 판매용이라기보다는 무상 기념품에 가까운 캐릭터상품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최소한의 진지한 산업적 접근 방식이 아닌 민간부문 경제지원에서 보듯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할수 없다는 식의 밀빠진 독의 물붓기가 돼 버렸다. 최소한 지방공사에 사업권을 이양시키든 아예 공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한 지자체로 본



이 희 곤
(사)한국캐릭터협회 부회장
(주)매스노벨티 대표이사

다면 얼마 안되는 돈이었지만 우리나라 전체로 본다면 너무나 많은 돈이 캐릭터상품, 문화관광상품이라는 환상에 헛되어 낭비됐다.

지금 그 수많은 지자체캐릭터가 극히 몇 개의 성공사례를 빼고는 숨을 죽이고 있으며 3년전 처음 시작했던 지자체캐릭터, 지역캐릭터산업의 정당성마저 깃잡고 있다.

분명히 일본지자체의 캐릭터산업 성공사례의 벤치마킹은 옳았다. 특산물과 관광, 이 두가지 말고는 분명히 대다수 지자체들의 수익분야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근래 관광은 유명관광지 중심이 아닌, 특성관광이다. 지자체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자연, 전통문화, 이벤트가 테마파크다.

지자체는 테마파크다. 테마파크에는 그 모든 것을 아주 독창적으로 단순하게 상징하는 캐릭터가 필요하다. 테마파크는 캐릭터로 집중홍보해 홍보효율을 높이고 상품을 만들어 팔아 심층홍보와 수익을 겸한다.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성공적일 때 애니메이션, 게임, 멀티미디어도 결합되기 시작한다. 아주 자연스럽게.

지역캐릭터 구성원들부터 생활화해야

지역캐릭터는 홍보만 잘되면 그 다음 상품화단계는 물흐르듯 자연스럽다. 그러나 대부분 '홍보'는 잊고 건너뛰어서 바로 다음단계인 '상품'으로 뛰어간다. 그러나 처음에는 수익은 잊고 홍보만 생각해야 한다. 그것으로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90퍼센트는 완성됐다고 본다.

우선 그 지자체 구성원들의 생활에

서부터 지역캐릭터를 느끼게 해야 한다. 안내, 교통, 시설물에 쓰이는 안내판, 안내에서 발행하는 모든 홍보 인쇄물들, 각종행사나 축제에 쓰이는 홍보물이나 상품들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구성원들부터 충분히 활용해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외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행정식으로 외관만 발라서는 안된다. 그러다 보면 캐릭터응용형이 필요에 의해서 늘어나고 상품개발도 자연발생적으로 하게 된다.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상품도 축제때 일부 만들어 테스트마케팅도 해 보고 명승지에 걸맞는 상품도 병행개발해야 한다.

그런데 흔히 캐릭터의 탄생배경과 캐릭터 상품 성립배경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만화나 만화영화가 유명해지면 그 주인공이 유명한 캐릭터가 되며 그 유명한 캐릭터의 상품이 성립돼 무조건 잘 팔리게 된다는 믿음이 그 예다. 물론 아주 가끔은 미국 월트 디즈니사의 장기적 캐릭터 비즈니스 전략과 일본의 캐릭터 산업 신디케이트 같은 내용들이 단편적으로 기사화 되기도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수긍의 정도에 그치기 마련이다.

유명 캐릭터는 만화·만화영화보다 더 광범위하고 많은 매체에서 탄생한다. 방송프로그램의 인형캐릭터(텔레토비, 세사미 스트리트, 혼자서도 잘해요), 광고캐릭터(웍시맨, 섹시라이언), 게임캐릭터(세가소닉, 스타크래프트), 스타캐릭터(찰리채플린, 잭스키스), 이벤트 캐릭터(올림픽, 월드컵, 엑스포 꿈돌이)등을 그러한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매체를 통해 유명해진 캐릭터라도 상품화에 성공할 확률은 아주 낮다. 성공한 수많은 애니메이션에도 불구하고 상품화로 성공한 캐릭터는 미비하기 때문이다. 즉 상품화에는 또 다른 전문화된 영역, 전문상품기획·마케팅 능력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명해진 캐릭터로 상품화하는 것이 '매체 캐릭터'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캐릭터 상품 생산에 그 목적을 두고 캐릭터를 설정해 매체과정 없이 직접 캐릭터상품을 제조·유통하는 것은 '설정캐릭터'다. 설정캐릭터로는 테마파크(간사이공항, 에버랜드), 팬시 캐릭터(헬로키티, 파자마 시스템즈), 지자체 캐릭터(오짜르트 고향, 남원시, 청도, 영월)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고도의 전문화된 상품기획과 마케팅으로 오히려 캐릭터 가치를 높이게 된다.

인천국제공항 등 테마파크 조성

캐릭터는 상품이다. 매체(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를 통해 생성된 캐릭터 파위가 캐릭터 상품으로 증폭해 산업화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모델이다. 이에 반해 설정캐릭터로 대표되는 테마파크가 차지하는 역할 또한 커지고 있다. 흔히 전형적인 캐릭터 테마파크의 시초는 미국의 디즈니랜드로 알려져 있다.

수많은 캐릭터 상품이 이 테마파크를 전진기지로 삼아 탄생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인 미키마우스 라이선싱 시장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테마파크

는 디즈니랜드처럼 미디어의 후광에 힘입어 탄생되지 않았다. 글자 그대로 고유한 테마에 따른 캐릭터를 미리 만들어 입히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테마파크 캐릭터상품은 테마파크 울타리 안에서만 그 시장이 형성된다.

우리나라에는 그 규모와 수준을 가늠해 볼 때 세계정상에서 있는 두개의 테마파크를 갖고 있다. 에버랜드와 롯데월드가 그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테마파크다. 이런 테마파크는 대규모 기업형 위락단지는 물론 소규모 지자체 관광캐릭터를 창출할 수 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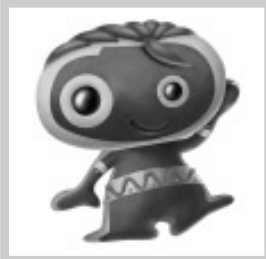
예로 인천국제공항 캐릭터인 '허비'의 상품화 사업을 들 수 있다.

우선 유동인구가 많고 다양한 기호의 소비형태를 접할 수 있는 국제공항(국내공항 포함)을 넓은 의미에서 테마파크라고 보고 있다. 한국의 특성상 특별한 곳에 직접적인 선투자로 대형 위락단지 조성과는 같은 위험한 생각 대신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찾은 것이다. 첨단시설의 국제공항을 하나의 테마파크로 발상을 전환했고 이것은 적중했다.

허비의 성공을 바탕으로 동해, 속초,

설악 관광권과 금강산 육로관광으로 거대 인파가 예상되는 강원도 양양국제공항, 제주도청, 그밖의 많은 국내의 지자체들까지 '테마파크화'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명히 캐릭터 비즈니스는 우리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다가올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어느 한 캐릭터가 세기의 인기를 얻기까지, 상품화 돼 이익을 창출하기까지는 세심한 전략의 시나리오로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



보령의 머돌이 · 머순이



철원의 캐릭터(이름 공모중)



인천국제공항의 허비



달성의 캐릭터(이름 공모중)



속초의 해오미

철원(이름은 현재 공모중)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철원의 '두루미'를 의인화 했다. 스타일은 수호천사를 모티브로 했다. 평화를 지향하고, 언제나 희망을 간직하며 순수함을 잃지 않는 해맑은 어린 아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령(머돌이, 머순이)

보령시의 대천해수욕장의 머드축제 이미지를 반영한 캐릭터로 대답하고 독특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달성(이름 공모중)

비슬산의 참꽃축제를 상징한다. 참꽃을 소재로 참꽃의 의인화를 통해 자연친화적이고 휴양·위락의 도시를 상징한다.

속초(해오미)

속초시 특산물인 오징어의 이미지를 차용해 디자인했다. 설악산의 멋스러움과 푸른바다 물결을 통해 진취적 기상을 표현한 머리와 뒤로 이어지는 시선끝에 일출을 상징하는 해의 모양을 담고 있는 캐릭터의 모습은 귀엽고 친근하다.

인천국제공항(허비)

HUBY (HUB + Y)
2001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 개항일)탄생된 캐릭터로 꿈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탄생한 희망의 상징이다.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은 호박을 머리에 이고 가는 어머니와 그 옆을 세상이 온통 궁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따라가는 막내아들’

‘생활도자기’의 고향 여주에서 토우(土偶)를 만들고 있는 박요한 샐터조형도예연구소 대표(42)의 공방에 놓여진 ‘모정’이란 제목의 문화상품이다.

‘다정한 어머니와 아들’. “그래 우리에게도 저런 때가 있었지”하는 생각이 들며 순간 어머니가 그리워진다. 한낱 흙으로 빚어진 조그만 인형이 세파속에서 딱딱해진 사람의 마음을 흔든다.

우리네 정서 담긴 토우에 ‘매력’

박씨는 국내에서 토우 제작가로 유명하다. 토우는 글자 그대로 흙으로 빚은 인형이다.

물고기가 매달린 낚싯대를 어깨에 매거나 머리를 동그랗게 팔로 감은 꼬맹이등이 친진난만 그대로다. 꼬마 신랑신부와 동네 아이들, 호박과 물고기를 머리에 인 꼬맹이, 고양이·강아지 등이 한데 어울린 ‘꼬맹이와 동물토우’도 따뜻함을 느끼게 한다.

전남 광주가 고향인 박씨가 토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94년 무렵 양평에 3년간 머물다 여주로 옮겨오면서 부터다.

그는 무엇보다 여주는 도자기 고장이란 명성에 걸맞게 흙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예를 위한 시스템, 그리고 도예인 간의 공감대가 잘 형성돼 있어 토우를 만드는데 더할나위 없이 좋은 곳이라고 말한다.

토우 만드는 박요한 샐터조형도예연구소 대표

"흙으로 '사람'과 '세상'을 빚는다"

그래서 “여주에 ‘말뚝 박고’ 살게 됐
다”고 표현하는 그는 여주를 ‘제2의 고향’
이라고 부른다.

이곳에 정착하며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바로 토우다. 하지만 그는
전남대 미대 재학시절 테라코타를 몇
번 만들어 본 것 말고는 사실상 흙을
굽는 작업에 대해 그리 큰 관심을 가져
본적이 별로 없다고 한다.

여주에 와서도 처음에는 토우를 만
드는 일이 한낱 ‘호구지책’에 불과했
다. 그러나 얼마 안가 곧 토우에게서
새로운 의미와 가능성을 발견했다. 불
때는 온도와 재료·굽는 기법에 따라
천태만상으로 나타나는 점이 평생을
연구해도 부족한 분야라는 생각이 들
게 했다. 더욱이 우리네 정서와 아름다
움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공예품중
의 하나라는 점이 마음을 끌었다.

그는 “음악·연극 다 포함해서 문화
상품이라 하겠지만 미술쪽에서 보면
가장 쉽게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문화
상품이 공예”라며 “우리 나라 공예시
장이 매우 열악한 이유는 전통이란 틀

에 얽매어 있거나 서양 상품에 휩쓸리
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진단한다.

“무엇보다 한국적 정서에 호소하는
문화상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토우뿐만 아니
라 길상문을 이용한 소품과 장신구등
에 반영됐으며 이는 곧 전국공예품대
전에서 총 3회에 걸쳐 수상하는 영예
를 안겨 주었다.

그가 만든 문화상품들은 시계·종·
촛대·액자·화병·핸드폰줄등 다양하
다. 이 중 토우는 효자상품이다. 토우는
흙의 종류나 상품 크기에 따라 초벌만
하거나 재벌까지 하는등 제작법이 다양
각색이다. 이같은 재질 특성을 알기 위
해 그는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
다. 가격 역시 천차만별인데 새끼손가락
만한 토우는 2천원이고 30센티미터 높
이의 토우는 세트에 17만원 정도 나간
다. 1백만원 안팎의 상품들도 적잖다.

다품종 소량생산체제. 서울 명동의
명품관이나 인사동 등지에서부터 주문을
받아 납품한다. 일본에도 꽃·과일바
구니·화병등 정물을 소재로한 도판 1

만2천개 가량을 수출했다.


하지만 박씨는 홍보나 마케팅면에서
는 느긋한 입장을 취한다. 빨리 유명해
지거나 빨리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지
모른다고 생각은 하지만 ‘금은 어디가
도 굴’이라는 신조로 때가 저절로(?)
무르익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토우미술관’ 세우는 게 꿈

공방에는 전남대 예술대 캠퍼스 커
플로 만나 결혼을 한 부인 김은숙씨
(37)와 직원 3명이 일하고 있다.

현재 여주도예인협회장직까지 맡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박씨는 자신
뿐만이 아니라 도예인들이 더 끊임없
이 상품을 개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세계도자기엑스포때에는 토우와 함
께 ‘항아리속에서 머리를 내밀며 노는
아이들’을 소재로한 모델이 한 점의 재
고도 없이 팔려나가는등 대히트를 쳤다.

박씨는 내년 가을 개인전을 열고 또
면훗날 토우미술관을 세우는 게 꿈이다.
조만간 개설될 홈페이지는 www.saemteoart.co.kr (031-886-2923) 

샘터의 문화상품들

토우는 크기나 재질에 따라 가격이 2천원
~1백만원 이상으로 천차만별이다. 다품종
소량생산체제. 샘터의 문화상품들은 명품관
이나 인사동 등지에서 구할 수 있다. 수량이
많을 경우 주문 제작도 가능하다.



중국 天子와 孔子도 즐겨먹던 보신탕

서양사람들의 비난은 이해 부족 탓

류장수 前 월간 '우리문화' 편집주간

보신탕은 한국인의 식문화다. 그런데 왜 보신탕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지 이해 할 수 없다. 월드컵 축구대회를 주최하게 될 한국사람들이 보신탕을 즐긴다고 해서 국제축구연맹(FIFA)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고 한다.

지난 88년 서울올림픽대회를 앞두고도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지역 애견가들이 “한국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 것은 야만 행위다. 이런 야만 국가가 올림픽대회를 주최하는 것은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킨 바 있다. 정부는 서양사람들의 이같은 주장이 확산돼 가자 올림픽주최국의 이미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서울시내에서의 보신탕 판매를 규제하는 조치를 취했고 결국 도심지의 보신탕집은 번두리로 쫓겨나가거나 영업을 중지해야 했다.

국제축구연맹 관계자는 “한국사람들이 보신탕을 먹는데 대해 국제적 비난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면서 “월드컵 축구대회 주최국으로서 국제여론을 감안해 서울올림픽 때처럼 정부가 나서서 판매를 규제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고 한다.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나

라마다 식습관이 다르며 문화도 다르다. 그런데 자기네 비위에 거슬린다고 해서 남의 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을 비난하고 이질문화라고 매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옳고 좋은 것은 아니다. 더우기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없는 것이다. 서양사람들이 한국사람의 보신탕 식문화에 시비를 거는데 대해 같은 서양사람들도 남의 나라 식문화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서울올림픽 때처럼 보신탕이 수난을 당하게 될지 무사히 넘어가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계절음식에서 보양식으로

한국의 보신탕은 여름철 삼복더위 때의 시식(時食)으로 계절음식이었다. 지금처럼 전문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이 아니라 마을사람들이 어울려 시원한 계곡을 찾아 숲을 걸고 만들어 먹던 보신탕음식이었다. 복날이면 더위에 지친 몸의 기력을 북돋고 피서도 할겸 청유를 즐기면서 먹던 음식. 보신탕은 원래 ‘개장국’이라 불렀다. 그런데 이 개장국이 몸을 보(保)하는 음식이라고 해서 ‘보신탕’으로 개명됐는데 언제부터 생긴 이름인지는 알 수 없다.

앞에서 말했듯이 보신탕은 여름철

삼복더위 때 별식으로 해먹는 계절음식이었고 중병을 앓고 난 후 몸보신을 위해 해먹던 보양음식이었지 지금처럼 사계절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은 아니었다.

그런데 8·15광복 후 북한에서 공산통치를 피해 월남한 사람들(특히 함경도 사람들이) 서울에 보신탕집을 개업하면서 보신탕의 대중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전문식당이 생기면서 계절에 관계없이 사철 보신탕을 먹을 수 있게 돼 ‘사철탕’이라는 또하나 이름도 얻게 됐다.

보신탕에 대한 시비 많아

보신탕은 개고기를 끓인 국이다. 그래서 ‘개장국’이라고 불렀다. 이 개고기를 먹는데 대해 한국사람들도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 충청도를 비롯한 일부지방에서는 “개고기를 먹으면 재수가 없다”면서 기피했고 특히 불교에서는 개고기를 먹는 것을 금기시 했다.

불교에서 개고기를 기피하는 것은 윤회 사상과 관계가 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업보에 따라 죽은 후 극락에 가서 태어나거나, 도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지만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는데 특히 개로 환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개를

잡아먹는 것은 자기 조상을 잡아먹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신도들은 개고기를 기피했는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신도였으므로 자연스럽게 개고기를 멀리하는 사람이 많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일반 가정집에서도 개념새로 인해 부엌에서 개고기 요리하는 것을 꺼렸고 개고기를 먹고 냉수를 마시면 기생충이 생긴다고 해서 어린이들에게 개고기를 먹이지 않았다. 그래서 개장국 대신 쇠고기를 개장국 비슷하게 끓인 육개장을 개발해 개장국대신 먹었다.

또 개는 옛날부터 인간이 사육한 최초의 가축으로 사람을 잘 따르고 영리하며 냄새를 잘 맡고 청각이 유난히 발달해 도둑을 지키는 역할을 훌륭히 담당했다. 개는 사람들의 사냥을 돕기도 하고 사람과 함께 정을 나누면서 생활해 왔다. 기록에 의하면 개는 기원전 1만5천년 전부터 사육됐다는 증거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인간과 오랜동안 친숙해진 개는 애완용은 물론 사냥견과 군견으로 활약하기도 하고 범인을 잡고 마약을 찾아내는 등 수사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개는 의리가 있다. 주인이 위급할 때 자기 생명을 희생하며 구해내는 충견 이야기도 많고 실제 그런 실례도 많다. 전국 여러 곳에 이같은 충견에 대한 전설과 비문이 전해지고 있고 개무덤도 찾아 볼 수 있다. 이처럼 의리있고 충성스런 개를 잡아 먹는 것은 잔인한 짓이라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다. 이같은 개에 대한 측은지심은 서양의 애견가나 우리나라 애견가나 그 심

정이 비슷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보신탕으로 먹는 개는 수백종의 개 중에서 소위 '똥개'라고 하는 별로 쓸모없는 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는 지난날 개잡는 법의 잔인성이다. 복달임으로 보신탕을 해 먹기 위해 개를 잡을 때 오라줄로 목을 졸라 매어 교수하는데 이때 목을 조르면서 몽둥이로 개를 마구 두들겨 패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고기가 연하고 맛이 좋다고 해서 그런 잔인한 수법으로 개를 잡는다는 것인데 재래식 개잡는 법은 확실히 야만적이고 끔찍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금의 보신탕용 개는 대량으로 사육되고 위생적으로 도살해 보신탕집으로 공급되고 있으니 옛날 개잡는 잔인한 방식은 사라졌다 고 봐야 할 것이다.

천자와 공자도 즐겨먹어

중국의 주례(周禮)에는 개가 식용가축으로 기록돼 있고 예기(禮記)의 월령(月令)에 맹추(孟秋)에 천자(千字)가 개고기를 먹는다고 했는데 맹추는 우리나라 7월(음력)에 해당되므로 삼복이다. 즉 복에 천자도 개고기를 먹었다는 얘기다. 이처럼 개고기의 식용역사는 매우 유구하다. 또 주례에는 개를 제사 때 희생물로 쓴다는 기록이 있고 종묘 제사에도 개고기가 제물로 오른 것이 기록돼 있다. 논어(論語)에도 제사 때 반드시 개고기를 쓴다고 했으니 개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한(漢)나라 때부터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개의 주인에 대한 충성스러움을 높이 사니 점차 개고기의 식용을 피했다. 이것은 청나라시대 많은 요리책

●

8·15광복 후 북한에서
공산통치를 피해 월남한 사람들
(특히 함경도 사람들이)
서울에 보신탕집을 개업하면서
보신탕의 대중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전문식당이 생기면서
계절에 관계없이 사철 보신탕을
먹을 수 있게 돼
사철탕이라는 또하나 이름도
연게 됐다.

●

불교에서
개고기를 기피하는 것은
윤회 사상과 관계가 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업보에 따라
죽은 후 극락에 가서 태어나거나,
도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지만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는데
특히 개로 환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

●

공자도

먹은 개고기를

기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개고기 요리는 계속 발달해

보양식으로 확고한 위치를

점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개가 제물로 보다는

보양음식쪽으로 발전하였으니

이것도 불교의 영향이

아니었나 싶다.



이 발간됐으나 개고기의 요리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을 봐서도 알 수 있다.

중국쪽의 이같은 변화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유학을 숭상하면서 주나라 풍습과 예법을 따랐으니 공자도 먹은 개고기를 기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개고기 요리는 계속 발달해 보양식으로 확고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에서 개가 제물로 보다는 보양음식쪽으로 발전하였으니 이것도 불교의 영향이 아니었나 싶다.

양질의 단백질, 소화흡수까지 잘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부터 여름철 삼복더위에 땀을 뺀뺀 흘리면서 개장국을 먹으며 복늘이를 했다. 한여름 불볕이 내려쬐이는 대낮에 더위에 부대끼고 밤이면 모기 등에 시달려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식욕마저 저하되니 몸에 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좋은 보양음식이 바로 개장국이었던 것이다. 한방의학(동의보감)에서는 “개고기는 성질이 더운 음식으로 사람이 먹으면 양기를 돋우고 허한 곳을 보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개고기는 음양오행설에서 화(火)에 해당되고 복(伏)은 금(金)에 해당되기 때문에 화극금(火剋金)으로 보신탕을 먹으면 더위를 이겨내고 체력을 보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더위 때문에 쇠약해진 몸을 더운 성질을 가진 보신탕을 먹음으로써 이열치열(以熱治熱)의 원리에 의해 만병을 물리치고 몸을 건강하게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더구나 개는 싼값에 손쉽게 얻을 수 있으니 가난한 서민들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육류였다.

현대 영양학으로 볼 때도 개고기는 아미노산 조성이 사람의 근육과 가장 근사한 양질의 단백질로서 소화흡수까지 잘되니 영양보충에는 안성맞춤이라 할 것이다. 삼복 때 시식으로 삼계탕이 있으나 보신탕을 당하지 못한다. 개장국을 보신탕이라 이름지은 것은 아주 제격이라 하겠다. 식료본초(食料本草)에 “개고기는 오노칠상(五勞七傷)을 보하고 양사(陽事:성생활)를 돕는다”고 했고 명의별록(名醫別錄)에는 “개고기는 오장을 안정시키고 기를 보한다”고 했다. 이처럼 보양식으로 손색이 없는 보신탕이 국제적 비난여론에 시달린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세계적인 보양음식으로 공인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해본다. **문**



개고기는

음양오행설에서

화(火)에 해당되고

복(伏)은 금(金)에 해당되기 때문에

화극금(火剋金)으로

보신탕을 먹으면

더위를 이겨내고 체력을

보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더위 때문에 쇠약해진 몸을

더운 성질을 가진 보신탕을

먹음으로써

이열치열(以熱治熱)의

원리에 의해

만병을 물리치고

몸을 건강하게

보전할 수 있다.



월간 '우리문화'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www.kccf.or.kr

구독 · 광고문의 T.(02)704-2311

2001



도 좋아하는 지평선상

圖金地興東大

2001 지역문화의 해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관심은 오래 전부터 꾸준히 있어왔다. 이는 1995년 당시 문화체육부와 한국문예진흥원이 배포한 '지역문화선언'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올해 '2001, 지역문화의 해'를 계기로 지역문화가 새롭게 발전되길 기원해 본다.

이번호로 "2001, 지역문화의 해 뉴스파일"은 마감합니다.

지역문화의 해 2001



탐방대화

경북 산간지역에서 지역문화의 미래를 찾는다

향토사와 문화유적은 지역 정체성의 '노른자위'

김 두 진 '2001, 지역문화의 해' 사무국팀장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는 문화관광부·한국문예진흥원의 후원으로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경북 지역문화 현장 탐방 및 대화'를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실시했다.

추진위는 경북 문경시·영주시·봉화군 등지의 문화유적을 탐방하고, 도내 23개 시군의 문화활동가 및 관계관들과 함께 경북의 지역문화 활성화 방

안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

첫날은 문경시 문경읍사무소에서 경주, 문경,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지의 지역문화 활동가들이 발표를 하고, 추진위 관계자들과 함께 문경새재와 TV 드라마 「태조 왕건」 촬영장을 탐방했다.

이날 발표에서 김종우 의성문화원장과 서종택 군위문화원 사무국장 등은 '지역 문화유적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보존·활용방안'을 주장했고, 천필영 영양문화원장은 '지역문화유산에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이튿날 오전에는 영주시의 읍내리 고분벽화와 부석사 등을 탐방하고 오후에는 영주 청소년수련관에서 안동, 영주,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등지의 향토지킴이들이 문화현안과 대안을 발표했다. 금수문화예술마을의 최재우 회장이 '성주문화의 정체성 찾기'를, 안준영 고령향토문화학교 대표가 '고령의 달맞이문화축전'을, 권용희 난설독서회장이 '칠곡군의 아카시아별꽃축제를 통한 지역정체성'을 주제로 지역성과 지역문화의 독자적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 날에는 봉화군 봉화읍사무소에서 김천, 구미, 영천, 경산, 봉화, 울진 등지의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발표를 하고 조선 중종 당시 문신으로 이름 높인 충재 권벌의 유적이 남아 있는 '답실마을'을 둘러봤다.

이날 발표에서는 전민욱 경상북도 향토사연구회 사무국장이 '유불교 문화권 개발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고, '시민의 신문' 남효선 기사는 '울진의 문화적 전통과 축제'에 관한 의견을 발



부석사 전경



태조왕건 촬영장

표했다.

이번 경북탐방을 평가하자면, 다른 지역과 달리 향토사와 문화유적, 지역 정체성 등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이는 지역정체성의 형성에 역사문화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국가 단위의 역사적 사건이나 귀중한 문화재 위주로 연구, 보존 정책이 집중되다 보니 변변한 지역 향토사학자들의 인명과 그들의 전문 분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지 못해 왔다. 근래 들어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인터넷 웹사이트(kccf.or.kr)를 통해 향토사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고 있음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향후 지역 현장에서 맨발로 뛰고 있는 이들의 성과를 눈여겨 보고 그들의 피땀 어린 성과가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력(文

化力)을 형성해 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끌어안고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제기된 자리였다. **■**

뉴스

12월 5일과 6일 양일간에 걸쳐 포천 베어스 타운에서 경기도를 대상으로 올해의 마지막 탐방대화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경기도권은 서울과 인천 등 대도시를 보듬어 안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일찍부터 문화향수 기회나 시설 및 인력들이 다른 광역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탐방에서는 경기도내 전체 31개 시군 중 17개 지역의 문화활동가들이 경기도의 지역축제를 집중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경기문화재단과 공동주최로 열리게 된다.

탐방 사업 총평 지역문화 오딧세이-10개월간의 탐방을 마치며

지역문화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과 열기 확산

지역문화현장 탐방 및 대화' 사업은 강원도 원주시를 시작으로 모두 10개 광역시도의 27개 지역을 탐방했다. 모두 7회의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총 1백44개 시군의 지역문화활동가들이 현장의 어려움과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지난 5월 백령도에서 있었던 전국 도서지역 문화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는 문화관광부의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함께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그동안의 토론회에서 자주 언급된

몇 가지 문제를 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늘려야

올해 문화예산의 삭감설이 있어 많은 이들이 우려를 했다. 문화야말로 미래의 역점 산업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에 대한 투자는 영상·음반·게임 등 콘텐츠산업에 집중되며, 지역문화, 전통문화 등을 가꾸고 연구하는 인력들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를 위한 지원은 빈약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재력가가 돈을 투자하거나 개인의 봉사정신 또는 문화

애호가들의 취미생활로는 한계가 있는, 곧 공공적 성격이 강한 일들이다. 그러기 위해 보다 많은 예산이 문화기반을 다지는 일에 투자가 돼야 한다고 많은 발표자들이 입을 모았다.

2. 문화 행정인력의 전문화

지역의 문화사업을 위해서는 관(官)의 행정력과 예산, 민(民)의 창의적인 기획력이 서로 어우러져야 한다. 그럼에도 담당공무원의 잦은 보직변동과 비전문성은 많은 문화활동가들과 지역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



라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사무직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도 지적됐다. 이들의 업무를 전문적인 직종으로 인정하고 그에 적절한 대우를 보장해야 고급인력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역문화사업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3. 문화재 등 역사자원의 연구와 활용

많은 발표자들이 향토사와 문화재, 지역출신 역사인물 등에 대한 연구와 보존, 관광자원화를 주장했다. 이는 지역문화와 정체성의 형성에 이들 역사자원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뜻한다.

지금까지 지역 차원의 역사사실과 인물 등에 대해서는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과 문화적 사실은 다른 각도에서 이해해야 한다. 중앙사, 국가사의 관점에서 보면 하찮은 일일 지라도 지역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의미를 갖는 사실(史實)과 인물, 문화재라면 모두 그 의미가 중하다.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지역사와 관련된 연구와 활용이 시급하며,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4. 특성없는 지역축제는 이제 그만

대다수 참석자들이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신명이 없는 축제의 난립을 우려했다. 그 원인으로는 기획담당 인력의 비전문성, 부족한 예산, 경험 미흡, 축제에 대한 단편적 이해, 무리한 관광수입 기대 등이 주로 거론됐다.

물론 성공사례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함평나비축제는 조그맣고 참신한 소재와 기획이 성공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처럼 축제는 반드시 지역의 역사와 관련 지을 필요도 없고 구태여 지역 정체성을 내세울 필요도 없다. 문제는 '다름(difference)'이다. '다르다'는 것은 거부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즐길 김의 대상이다. 그것은 상상력을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가 얼마나 정착되느냐라는 커다란 문제와 연결된다.

그것은 차근차근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질 문제로서, 성급하게 축제를 양산하는 것은 오히려 축제에 대한 국민의 냉담한 반응만 유도하기가 쉽다. 이름만 거창한 축제를 기획하기 보다는 작고 특성있으며, 지역주민이 스스로 즐거운 놀이판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원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저절로 모이는 행사를 만들고, 홍보와 기획, 세련화 작업은 나중에 해도 좋다. 급할수록 돌아가는 지혜가 지역축제 분야에 필요하다.

이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때

연초 백가쟁명 대토론회와 10개월 간에 걸친 지역탐방대화 행사를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과 열기를 불러 일으켰다는 점은 높이 평가 받을 만하다. 이들 토론행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연말에 펼쳐질 백화제방 대토론회에서 다시 사회 전체에 퍼져 나갈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었다. 우선 디지털시대의 지역사회와 지역문화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단지 지역문화를 어떻게 디지털화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포함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문화논리를 가진 새로운 세대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21세기에 그들과 어떤 방식으로 조우하며 지역문화의 현안을 풀어야 할 것인가라는 데 대한 논의가 없었다.

지역의 요리, 지역의 숙박과 교통, 지역의 화장실 등 정말 다뤄져야 하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논의가 있었다면 금상첨화였을 것이다. **국문**

<탐방지역>

강원도 3. 27~29	원주, 고성, 강릉	경상남도 8. 16~18	산청
충청남도 4. 23~25	논산, 청양, 당진	충청북도 9. 25~27	영동, 보은, 괴산, 충주, 제천, 단양
백령도 5. 29~31	전국 12개 도서지역	전라북도 10. 29~31	부안, 김제, 전주
전라남도 6. 26~28	영암, 담양, 순천	경상북도 11. 21~23	문경, 영주, 봉화
제주도 7. 19~20	제주, 서귀포, 남제주, 북제주	경기도 12. 5~6	포천

영상공모

청소년 중심 영상공모 심사 결과 발표

발랄한 소재와 진지한 주제의식 돋보여

지난 4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청소년 중심 지역문화 영상공모' 사업의 심사결과가 발표됐다.

이 사업은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가 영상세대로 불리는 청소년들이 지역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지역주민이 스스로의 문화를 콘텐츠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총상금 2천4백50만원에 모두 26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었던 이번 공모에는 3개 분야 총 46개 응모작이 접수됐고 모두 17개 작품이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성실하게 발로 뚫 작품들이 많고 발랄한 소재와 진지한 주제의식이 돋보였으나, 이에 비해 촬영 수준이나 음향 수준 등은 다소 떨어진다고 평가했으며, 이로 인해 당초보다 9개 작품을 덜 뽑게 됐다고 한다.

'영상세대 카메라출동' 청소년부

카메라출동 청소년부는 만13세 이상 만18세까지 해당되며, 촬영지역의 제한이 없었다. 모두 11개 작품이 출품됐으며 대부분 문화재와 지역축제를 소재로 하고 있었다. 형식은 다큐멘터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뮤직비디오 형식도 1편 있었다.

최고상인 문화관광부장관상(상금 150만 원)은 경북 상주시의 고등학생들인 김민정·민희선양(만17세)으로 이들은 「도자기의 고장 문경 도요지를 찾아서」를 함께 제작, 촬영했다.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장상(상금 각 1백만원)은 2개 작품으로 제주的高한조군(만15세)으로 「잊혀져가는 노래들」이란 제목으로 제주민요의 전승 실태를 취재했고, 서울의 배운선양은 경기도 여주의 도자기 제작 현장을 탐방하며 촬영한 「흙으로 빛은 미래」란 작품으로 수상하게 됐다.

한국문예진흥원장상(상금 1백만 원)은 김수진양(만18세)의 「한양대학교엔 뭔가 특별한 게 있다?!」가 선정됐다.

'영상세대 카메라출동' 성년부

이 분야는 만19세부터 만30세 미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촬영지역의 제한은 없었다. 모두 12개 작품이 응모했으며, 역사와 풍속을 대상으로 한 작품들이 많았다. 형식은 역시 다큐멘터리가 많았으며 뮤직비디오도 2편 있었다.

문화관광부 장관상(상금 250만 원)은 배원정씨(만20세)의 「손님」이라는 작품으로 안정된 화면과 일반인들의 여행이 쉽지 않은 분단의 현장인 백령

도를 소재로 택하였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추진위원장상(상금 각 150만 원)은 역시 2개 작품으로 이순임·최지애·홍승기씨 등이 공동 응모한 '달려라 홍대 앞'은 새로운 문화가 설새 없이 생산되는 젊은 거리 홍대앞의 풍경을 담았으며, 조세랑씨(만24세)의 「찾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용강마을 답사기」는 지방의 작은 마을을 답사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마을주민의 삶을 담았다.

한국문예진흥원장상(상금 150만 원)은 고희정씨(만25세)의 '모란장의 가축팔자'라는 작품으로 수도권의 몇 안되는 전통장으로 유명한 성남시 모란장의 민속을 소재로 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지역주민 대상

이 분야는 연령 제한없이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거주지역의 문화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했다. 모두 23개 작품이 접수됐고, 축제, 인물, 풍속, 문화재 등 다양한 소재가 많았다.

문화관광부 장관상(상금 250만 원)은 제주도의 오경현씨가 지역축제를 소재로 한 「머리에 꽃을」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선정됐다.



추진위원장상(상금 각 150만 원)은 2개 작품으로 이희광씨의 「과천 - 자전거」와 강재명씨의 「정조대왕, 금천현에 납시었네」가 선정됐다. 전자는 과천시 주민 생활공간을 잔잔한 화면으로 묘사하면서 생활현장의 문화화(文化化)에 관해 생각하게 해주며, 후

자는 금천구의 역사문화적 사건을 다뤘다.

한국문예진흥원장상(상금 각 50만 원)은 신한솔씨의 「줄타기」, 정종훈씨의 「섬의 노을」, 강릉문화의 집 시민영상제작교실의 「강릉 단오, 세 가지 이야기」, 조정희씨의 「겨울이야기」, 오경

민·오은주·황혜경씨의 「2001, 과천 마당극제」, 성연귀씨의 「Seoul Express - 종로 2가 피맛골」 등이 선정됐다. 특히 성연귀씨의 작품은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대도시 한복판의 문화를 지역문화라는 시각으로 다룬 것이 특징이었다. **문**

각종 지원사업과 사회의 관심 분야별로 풍성한 결과 맺은 ‘지역문화의 해’ ‘지역문화의 시대’는 ‘남은 숙제’ 이자 영원한 지향점

1. 컨설팅

총 94명의 각 분야, 각 지역의 문화 전문가들이 컨설턴트로 나서 줬으며, 전국 각지의 지역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총 82건의 컨설팅 요청이 의뢰돼 62건을 실시했고, 20건이 신청자측 요청으로 취소됐다.

취소 사유로는 대개 지방자치단체의 축제와 관련해 담당공무원들이 신청했던 것으로 담당자의 보직 변경으로 흐지부지된 것들이었다. 이는 탐방대화에서 발표자들이 지적했던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이 지역문화 진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실시된 62건은 축제나 각종 문화행사의 프로그램 기획과 시설 및 단체의 운영에 관한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역시 탐방대화 당시 많은 이들

이 제기했던 문제로 지역문화에서 가장 긴급한 문제는 단체와 시설의 운영을 위한 예산과 각종 행사에서 필수적인 독특하고 재미있는 기획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컨설팅 성과로 돋보이는 것은 경남 합천군 덕곡면의 오광대탈장승축제와 문화마을 조성, 울릉도오징어축제 개최, 서울 중구 소재 초전섬유퀵트박물관의 전시기법과 박물관 운영 등이다. 이밖에도 한국문화학교, 전국문화원연합회, 전국문화의집운영협의회 등 굵직한 조직들에 대한 컨설팅과 상주·안동·구미의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컨설팅의 효과로는 각지의 현장활동가들에게 경영마인드와 전략적인 기획력을 소개해 ‘문화도 전문 분야’라는 인식을 심어줬으며, 전문가들과 활동

가들이 서로 만나 고충을 듣고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소득이랄 수 있다.

2. 지역사회 소규모 특성화프로그램 발굴 지원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조그만 문화행사들에 사업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총 1백개의 행사에 각 2백 50만원을 지원했다. 11월 20일 현재 95개의 사업이 진행됐고 5건이 남은 한달 간 진행될 예정이다.

3월과 5월에 각각 상하반기 심사를 거쳐 총 백개의 사업을 선정했으나 그 가운데 사업을 포기한 지역들이 있어 3건이 새로운 사업으로 교체되기도 했다.

지원한 사업비의 액수는 비록 적지만,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작은 행사를

기획하고 실시하는 데에는 제법 도움이 돼, 직접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방문을 하면 주민들이 앞다퉀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사업비 보다 자신들의 행사를 알아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데 대한 고마움이 더 컸을 것이다.

3.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 활성화 (지역내·지역간 교류)

이 사업은 지역문화예술단체에 1백 30만 원에서 3백만원을 차등 지원해 광역단위로 교류를 하도록 하는 사업이었다. 총 76건이 접수돼 11월 20일 현재 70건의 사업이 진행됐고, 6건이 진행될 계획이다.

다른 사업보다도 교류사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문화예술 향수기회가 적은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각종 공연행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였다.

4. 인터넷 홈페이지

11월 30일 현재 조회수 14만 명. 이와함께 26개의 콘텐츠(게시판 7개 포함), 게시판당 평균 93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네티즌의 활발한 참여와 조회수가 돋보인다. 이는 '새로운 예술의 해'가 30만 명(2000년 12월 말)의 조회수와 1개의 게시판에 50여개의 게시물이 전부였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짜임새 있고, 네티즌과 상호교감의 폭이 깊고 컸음을 의미한다. 총방문객수가 적으면 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있었던 것은 결국 지역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진 네티즌들이 집중적으로 방문했음을 뜻한다.

언론계와 학계·연구기관의 반응 뜨거웠던 한 해

1. 언론과 방송

직접적으로 '지역문화의 해'와 관련해 지난 1년간 언론과 방송에 총 1백 78건(11월 1일 현재 방송 19건, 인쇄매체 159건)이 보도됐다. 중앙과 지방을 나눠보면 중앙 116건, 지방 62건으로 분류된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에서 발간하는 「민족예술」은 2001년 2월호부터 5차례에 걸친 '지역과 문화' 시리즈에서 우리나라 지역문화의 현황과 실태를 점검해 보는 기사를 내보냈고, 상반기 동안 EBS-TV는 매주 금요일 밤 교육문화뉴스 시간에 3분 가량 정기적으로 지역문화 관련 뉴스를 방송했다.

이밖에도 각종 매스컴들의 지역문화와 지방자치에 관련된 기획들이 그 어느 해보다 많았다.

2. 학계와 연구기관

1월 3일 청주민예총 주관으로 청주 예술의전당에서 「지역문화의 해와 지역문화」라는 제목의 문화예술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4월 13~14일 양일간 한국공연예술매니지먼트협회는 '지역문화 활성화와 공연예술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가 있었다.

8월 23일에는 건양대학교 부설 충남 지역문화연구소(소장 김형곤)에서 '논산시 지역문화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심포지움이 열렸다. 11월 7일에는 민예총 부설 연구기관인 문화정책연구소가 월례 문화정책 포럼으로

「2001, 지역문화의 해와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회의를 개최했다.

11월 12일에는 한국문화정책개발원(원장 이종석)이 '지역사회, 지역문화'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화정책개발원은 이에 앞서 '대도시에서의 지역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펴낸 바 있다.

3. 기타

서울 남산의 지구촌민속박물관이 지역순회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3회에 걸쳐 후원을 요청해 왔고, 12월 6~7일 양일간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함께 '아태지역 문화전문가 세미나'를 공동개최하기로 하는 등 '지역문화의 해' 사업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대단했다.

'지역문화의 해'는 가고 '지역문화의 시대' 온다!

지난 1991년 '연극영화의 해'를 시작으로 10년째인 2000년에 '새로운 예술의 해' 사업을 추진했으니, 문화예술의 대부분을 일순한 셈이 된다. 이에 정부는 문화의 중앙집중화와 그로 인한 지방주민의 문화소외, 지역특징이 소멸된 문화의 표준화를 우려해 지역문화를 21세기의 가장 큰 문화 현안으로 인식했다.

그리하여 2000년 8월, 문화관광부는 2001년을 '지역문화의 해'로 정하고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와 사무국을 구성해 지역문화 활성화
를 위한 사업을 벌여온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내년부터는 '문화예술의 해' 사업이
더이상 추진되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문화예술의 각 분야와 지역주민의 문
화향수 기회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그
침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지역문화의 해'의 남은 사
업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월간 『우리
문화』 '뉴스파일' 시리즈를 마치고,
'지역문화의 해'가 끝나더라도 '지역
문화의 시대'는 영원히 우리 앞에 남
은 숙제이자 지향점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당부드린다.

1. 유네스코 컬처링크

컬처링크는 유네스코가 세계문화발
전 10개년 사업의 하나로 1989년 설
립한 세계문화발전정보네트워크로서
오는 12월 6일과 7일 춘천의 두산콘도
다이아몬드홀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
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 강원발전연구원이 공동주
최하며, 주제는 '지역사회 발전과 문화
자원 활성화'이다. 아태지역 전문가 4
명(필리핀·호주·중국·인도)과 국내
전문가 3명이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추진위에서는 강신표 위원이 '지역
문화정책추진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같
등과 해법'이란 제목으로 발표할 예정
이다.

2. 백화제방과 폐막식

오는 12월 20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에서 전국의 문화활동가들이 모여 백
화제방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
론회는 연초의 백가쟁명과 10개월간의
탐방대화에서 제기된 문제 중 빈도수
가 높은 현안들을 중심으로 분과를 구
성하여 토론하게 된다.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2001, 지역
문화의 해' 사업의 공식적인 폐막식이
치러지게 되며, 사업보고서와 공모사
업의 결과가 보고될 예정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지역문화를 위
한 공로가 인정된 활동가들에게 대통

령 표창 등이 있게 되고, '지역문화의
해'와 관련해 지역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된 활동
사례들을 10건 이내로 선정해 격려지
원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이벤트 사업 중
'문화도시 꿈꾸기'와 3종의 영상공모
등에 선정된 26명에게 시상과 상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2001, 지역문화의
해'는 공식적으로 마감하게 된다.

3. 각종 보고서 발간사업

폐막식 이후 1년간의 사업을 정리
하고, 언론보도 기사와 화보를 곁들인
백서 2종을 발간할 계획이다. 특히 컨
설팅과 각종 토론회의 보고서는 문화
관광부에 전달해 문화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위한 제안서로 활용하게 될 것
이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친 뒤 내년 봄에
'2001, 지역문화의 해'의 이념과 사업
들, 각종 정책대안을 한 권으로 요약한
도서를 발행해 일반 시민들이 구입하
여 읽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



활활 타오르는 '지역문화의 해'.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은 영원히 계속 될 것이다.
(사진은 제주도 셋별오름에서 열렸던 '2001, 지역문화의 해' 불글씨 점화모습)

지방문화원 운영활성화 방안 컨설팅

“조례제정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박계현 기자 fire@kccf.or.kr

지난 11월 15일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내 회의실에서 ‘지방문화원 운영활성화방안 컨설팅’이 개최됐다. ‘2001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문화원은 많지는 않아도 어찌든 국고보조를 받고 있고, 법적으로도 차별화 돼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지방문화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편으로 ‘조례’ 제정을 위해 지방단체에서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안진수 추진위원(전국문화원연합

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컨설팅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조직 및 인력체계(동두천문화원) △지방문화원의 재정체계(안산문화원) △시설 및 기자재체계(구리문화원) △공연 및 전시프로그램 추진(수원문화원) △향토(사)문화 자료 생산 방안(연천문화원) △문화강좌와 추진(부천문화원) △문화예술행사 수행체계(이천문화원) 등 7개 항목에 걸쳐 지방문화원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뤄졌다.

각 항목들에 대해 이계홍 동두천문화원 사무국장·이현우 안산문화원 사무국장·이영규 구리문화원 사무국장·김현덕 수원문화원 사무국장·송대진 연천문화원 사무국장·

백수현 부천문화원 사무국장·이인수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등이 질문자로 참석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원의 식구로서 경영상의 어려움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이에 대해 2001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인 이중한(한국문화복지협의회 회장)·이종인(2001 지역문화의 해 상임위원)·강준혁(추계예술대 예술경영대학원장)·김명자(한동대 박물관장)·이원태(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 등이 컨설턴트로 참석해 지방문화원 운영활성화에 대한 해결책 내지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서로의 고충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논의가 한창인 컨설턴트들(위)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이 ‘지방문화원활성화방안 컨설팅’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옆)

<질문자>



이계홍
동두천문화원 사무국장



이현우
안산문화원 사무국장



이영규
구리문화원 사무국장



김현덕
수원문화원 사무국장



송대진
연천문화원 사무국장



백수현
부천문화원 사무국장



이인수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제1과제 '지방문화원의 조직 및 인력체계'

Q이계홍 동두천문화원 사무국장=예전에 비해 지방문화원의 인력은 줄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인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향토사나 문화를 전공한 공익근무 요원을 문화원 내에 근무하도록 할 수 없겠습니까.

A이중환 추진위원장=문화원이 행정업무도 많고 재정도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익근무요원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인력, 프로그램운영 조직자를 찾는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A이종인 상임위원=문화원의 구성인력이 젊어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젊어지는 문화원으로 탈바꿈해야 지역주민들이나 활동관계자들과의 거리가 좁아질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젊은층이 늘어나는 조직으로 만들어 갑시다.

제2과제 지방문화원의 재정체계

Q이현우 안산문화원 사무국장=일년에 천만원인 사무국장의 인건비, 강제규정이 없는 회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원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보수체계를 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사업비가 많아해도 인력이 없어 사업을 충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이종인 상임위원=조례 제정으로 기금을 마련한다면 문화원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질 것입니다. 막연하겠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돈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A이원태 추진위원='운영회원'을 만

들어 회비도 받고 행사에도 참여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문화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설득하는 노력을 하면서 스스로의 위상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제3과제 '시설 및 기자재 체계'

Q이영규 구리문화원 사무국장=자체 원사를 가지고 있는 문화원은 전체의 13%에 불과합니다. 문화원 위상 정립을 위해 안정적으로 지방문화원 기반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이중환 추진위원장=일부에서는 문화원 원사를 문화회관이나 박물관, 청소년 수련관처럼 공적으로 '시리즈화' 할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이원태 추진위원=시당국과 협조해야죠. 의지가 있다면 마음에 드는 건물을 '짬'해 놓고 5년정도 끈질기게 신청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문화활동 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제4과제 '공연 및 전시프로그램 추진'

Q김현덕 수원문화원 사무국장=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공연이나 전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지원받는 공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문화예술인 단체와 협조체제로 나가기도 하죠. 하지만 이들 단체와 문화원이 어느 정도 규합되어야하지는 그 경계가 혼란스럽습니다.

A강준혁 추진위원='지역의 문화예술인이 중심이 돼 공연이나 전시를 활성화시킨다'는 원래의 목적대로 가야 합니다. 지방문화원이 특별법으로

제정돼 있고 비영리 집단이라해도 경영적 측면에서 문화원을 바라보니까 강화된 위상에 비해 사정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문화예술활동은 '돈을 지불한 만큼 일을 시킨다'라는 논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각 문화원마다의 성격을 규정해 목표와 목적을 새삼 정돈할 때입니다.

제5과제 '향토(사)문화 자료 생산 방안'

Q송대진 연천문화원 사무국장=지방문화원은 지역에 묻혀 있는 역사적·민속학적 사료를 실증적으로 발굴·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고작 천만원인 향토사 연구비로 향토사료를 발굴한다 해도 그것들이 문화원의 소유가 되진 않죠. 그래서 향토사료관에는 발굴·조사한 사료의 사진만 보관돼 있습니다. 향토사료에 대한 규정과 실무요강 기준을 정리해 주십시오.

A김명자 추진위원='유형'의 것보다는 '무형'의 것이 중요합니다. 세시풍속의 유형자료는 이미 존재하지만 그 자료를 재생산할 수 있는 기술, 즉 무형문화는 매우 부족하죠. '무형'의 문화에 역점을 둔다면 향토사료관에 사진만 있다는 고민은 쉽게 풀릴 것 같군요.

A강준혁 추진위원=그렇습니다. 판소리와 같은 무형의 문화를 발굴해나간다면 그리고 그 정보를 피고 있다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가장 확실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6과제 '문화강좌 추진'

Q백수현 부천문화원 사무국장=문화학교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의 지원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그리 넉넉치 않습니다. 재원을 덜 들이는 운영법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A김명자 추진위원=문화학교의 강좌 프로그램은 50여가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집약된 강좌를 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다른 문화단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정리하고 그 지역의 문화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을 추진해야 합니다. 차별성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죠.

A이원태 추진위원=맞습니다. 많은 종류의 프로그램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만 특성화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지침 강좌같은 것은 굳이 문화원에서 안해도 된다는 거죠.

제7과제 '문화예술행사 수행체계'

Q이인수 이천문화원 사무국장=문화관광을 살리기 위한 포장기술과 전문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노하우, 또는 향토축제가 성공하기 위한 홍보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A강준혁 추진위원=우리나라 축제는 전문가가 누적될 만큼 시간이 흐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축제를 진행한 사람들끼리라도 서로의 경험에 비춰 '이렇게 하니 효과적이더라' 하는 식의 초기단계의 정보를 교환하는 법을 택해야죠. 홍보법에 있어선 기사화시킬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언론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4억정도 지원되는 향토축제비용으로 몇 십억 비용이 드

<사회자>



안진수
추진위원

<답변자>



이중한
추진위원장



이종인
상임위원




강준혁
추진위원



김명자
추진위원



이원태
추진위원

는 중앙의 TV광고를 홍보법으로 택할 순 없을 테니까요. 중요한 건 열정입니다. 

2001 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 결과

‘서산문화원’ 최우수문화기반 시설로 선정

광진·강릉·당진·영암문화원은 ‘우수상’

문화관광부는 지난 11월 12일 금년 전국문화기반시설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문화관광부가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 의뢰해 전국의 지방문화원을 비롯,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 1천여개 문화시설과 2백32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서면평가, 현지실사, 종합평가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분야별로 총 55개의 우수시설(단체)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지난 11월 29일 오후 2시 경남 진주시 경남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전국문화기반 시설 관리 책임자 대회’에서 거행됐다.

분야별 선정결과를 보면 우선 지방문화원 분야에서는 충남 서산 문화원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 광진·강릉·당진·영암문화원이 우수상을, 대전대덕·온양·진도·청송문화원은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서울 동작·충남 천안문화원은 최우수 문화기반시설에 해당되나 농어촌·중소도시 문화원에 비해 월등한 제반여건 차이를 감안해 시상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서관 분야는 경북 안동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분야는 충북 청주 고인

쇄박물관, 문예회관 분야는 경북 구미 문화예술 회관, 문화의 집 분야는 광주 북구문화의 집이 각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지난 11월 29~30일 경남 진주 소재 경남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제4회 전국문화기반시설 관리책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과 함께 우수사례들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문화기반시설 발전방안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해당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1~2천만원의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동 평가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일간 총 5부로 나누어 분과별 특강과 전문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전국 문화기반시설 책임자 및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을 배양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김** (편집부)

구 분	시 상 내 역				소 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지 방 문화원	서 산 문화원	도 시 농어촌	광진, 강릉 당진, 영암	대전대덕, 온양 진도, 청송	9
도서관	안 동 도서관	대도시	인천화도진 대구남부	서울종량 부산빈송 인천중앙 수원선경 구미도립 구미시립	16
		중소도시	성남, 창원	대구달성 경남남지 옥천	
		농어촌	울주, 증평		
박물관	청주고인쇄 박물관	공 립 사 립 대 학 미술관	부산시립 중남미 서울대 대전시립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지구촌 단국대 전남옥과	9
문화의집	광주북구 문화의집	도 시 농어촌	김포 성산일출	전주진북 금산	5
문예회관	구 미 문화예술회관	광 역 기 초	경기도 순천	경상남도, 제주도 김천 고흥	7
자치단체	제 주 시	도 시 농어촌	춘천시, 진해시 부여군, 북제주군	전주시, 김천시 안도군, 진도군	9
총계	6		22	27	55

단위축제의 자생력 강화 방안 필요하다

문 화관광부는 지난 11월 16~17일 이틀간 강원도 속초시 한화콘도에 서 '2001 지역문화행정 워크숍'을 개최했다. 2001지역문화행정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의견을 수렴해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기 위해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는 문화관광부 전통지역 문화과 최원식과 장을 비롯, 16개 시·도 관계자 등 35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분야별, 기관별 주제발표와 평가의 시간을 갖고 지역문화현장을 방문하면서 지역문화정책·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유롭게 토론했다.

시·도별 발표는 1조와 2조로 나뉘어 11월 16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제1조는 제1실에서 이홍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연구실장의 사회로 '지역간 정보 교류 및 활용방안'이란 주제 아래 △김용원 서울특별시 문화과 담당사무관, △홍성주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과 담당사무관, △양희수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과장이 각각 주제발표 했다.

제2조는 2실에서 장정룡 교수의 사회로 '지역문화 특성화 및 발전방안'이란 주제 아래 △윤광수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담당사무관, △황흥구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장, △박종득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과장이 주제발표 했다.

이어 오후 1시40분부터는 1조의 △김정도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장, △최순규 강원도 문화예술과장, △정남균 충청남도 문화관광과장, △정병재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장, △유혜숙 경상남도 문화예술과장의 주제발표가, 2조의 홍승표 경기도 문화정책과장, △박대현 충청북도 예술과장, △최성섭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담당 사무관, △김경술 경상북도 문화예술과장, △오성휴 제주도 문화예술과장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들의 발표에 대해 1조에서는 대전서구·안산·강릉·천안·구례·청송·등 6개 문화원이, 2조에서는 광주 북구·동두천·영동·서산·순천·김해문화원이 토론에 참가해 지역문화정책·사업전반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또 오전과 오후에 결

쳐 발표하고 토론한 결과에 대해 이홍재 연구실장과 장정룡 교수의 평가가 뒤따랐다.

다음날인 11월 17일에는 고성지역 청간청·오봉 왕곡마을·통일전망대·건농사지 등 지역문화를 탐방하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문**(편집부)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고찰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축제관련 행정력 강화
2. 축제의 역사성 확보
3. 무형·유형문화재의 축제 활용 강화
4. 축제관련 전문인력의 전문성·현지성 교육강화
5. 단위축제의 자생력 강화 유도
6. 다양한 계층이 참여 할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 개발
7. 축제의 관광 마인드 확산
8. 축제의 참여도를 제고 시킬수 있는 통일성 확보
9. 축제관련 외래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10. 축제 프로그램 안내정보의 효과적인 연출
11. 축제의 홍보 마케팅 강화
12. 축제 개최 시기의 정례화
13. 축제의 분산개최
14.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축제프로그램 설정
15. 축제관련 상징성 요소(거리, 상징탑 등) 개발
16. 지방소재 정부산하 기관, 단체 및 다양한 단체 참여 확대
17. 축제관련 교육프로그램 도입 강화
18. 행사장 주변업체의 환경개선 및 업체의 상가래 신뢰성 확보
19. 축제의 사후관리(평가 및 기록)

윤광수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담당사무관 주제발표내용 중

일본 公民館 연수를 마치고

순서

1. 公民館의 실태
 - ① 역할 ② 특색 ③ 사업 ④ 시설현황
 - ⑤ 운영예산 ⑥ 관리 및 운영 ⑦ 사업 계획
 - ⑧ 이용 사업체 수와 이용 주민의 수 ⑨ 이용계층 ⑩ 연수결론
2. 일본인의 전통예절문화
3. 일본 속의 우리문화
4. 奈良(나라)라는 지명
5. 일본 초·중·고생들의 凡節
6. 한글강좌 프로그램
7. 끝맺음

1. 公民館의 실태

나는 지난 10월 30일 부터 11월 3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해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문화관광부 최천식 전통지역문화과장을 단장으로 문화부 권도현씨, 전국문화원연합회 장상호 부장, 지방문화원장과 함께 日本國, 市·町·村에 설치돼 있는 公民館, 社會教育會館, 市民交流센터 등의 운영실태를 살펴봤다. 30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4시간 후 東京都에 도착, 연수일행과 연수때의 질문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첫째날(10월 30일), 東京都 三鷹市(미다카시)의 社會教育會館을 시작으로 둘째날(10월 31日) 東京都廳社會教育課, 셋째날

(11月 1日) 京都八幡市(교토야와다시)의 市民交流센터, 넷째날(11月 2日) 奈良縣廳教育長(최천식단장 예방)과 奈良縣 大和郡山市(나라켄 야마도 고오리야마시) 中央公民館을 訪問한 結果를 내가 습득한 주관적 입장에서 記述하고자 한다.

먼저 독자의 이해를 얻기 위해 '公民館' '社會教育會館' '市民交流센터' 등의 명칭은 설립법적 근거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다르나 업무는 같다고 보면 된다(△社會教育法→公民館·社會教育會館, △教育基本法→市民交流센터). 통틀어서 '公民館'이라 지칭해도 무관하다고 한다.

① 公民館의 역할

- ▲ 주민들의 자유로운 모임의 장
- ▲ 주민들의 집단활동을 할 수 있는 장
- ▲ 주민의 입장에서 자아개발학습을 위한 自己大學
- ▲ 주민에 의한 문화창조의 광장으로써 주민상호간의 만남으로 친화감을 중요시하고 누구나 부담없는 평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公民館'을 이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학습, 문화활동으로 지역문화를 주민 스스로가 창출해 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② 公民館의 특색

- ▲ 여러가지 관련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縣立이나 國立은 없고 市立만이 있다.
- ▲ 설치기준은 학군단위(초·중·고 5개교)로 1개소.
- ▲ 단순한 학습시설이 아니고 지역의 여러 형태의 집회나 행사 등에 이용되며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풍요로운 도시로서의 거점적 기능을 갖고 있다.

③ 公民館에서 하는 사업(현실적으로



이 만 희
상주문화원장



일본을 방문한 문화원 관계자 일행이 생애 학습센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주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교육적·문화적 사업)

- ▲ 정기강좌의 개설 △지역특성활용사업(역사) △가전제품안전사용법 △교양 △외국어 △영어 △한국어 △양육방법 △건강관리 △자격취득 △자연환경...
- ▲ 토론회, 강연회, 실습회, 전시회의 개최(요리, 화장, 회화, 서도, 사진, 공예, 꽃꽂이(화도), 다도, 한자검정, 창가...)
- ▲ 스포츠, 레크레이션(연식정구, 유도, 空手道, 日本傳統武道, 연식야구, 핸드볼)
- ▲ 각종 단체 기관과의 연계(강습회, 세미나, 각종 지방축제)
- ▲ 이벤트 안내 (일본전통문화의 계승과 진흥을 목적으로 한 주민문화활동의 향상을 위한 邦樂의 연주회)
- ▲ 각종 서클 활동안내(건강체조, 포크댄스, 민요, 사교 댄스, 음악, 피아노, 수공예품, 편물 등)



京都八幡市 시민교류센터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일행들.

- ▲ 홍보(주민에게 뉴스 전달)
- ▲ 시설의 이용제한 (특정인의 정치활동과 종교활동, 개인의 영리 목적 활동의 경우)
- ④ 公民館 시설현황
다양한 학습과정에 걸맞게 잘 정비돼 있다. 특히 영화, 연극, 음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시설이 마련돼 있다.
- ⑤ 公民館 운영예산 → 시·교육위원회에서 지원
京都八幡市(교토야와다시)의 경우 연간 일화(日貨) 6천만엔(円). 한화(韓

貨)로 약 7억원 정도.

- ⑥ 관리 및 운영 → 시·교육위원회 소속공무원 2명에서 3명 정도
- ⑦ 사업(프로그램) 계획 → 시·교육위원회에서 장기적 운영사업 계획 수립
- ⑧ 공민관이용 사업체수와 이용(참여)주민의 수
▲ 京都八幡市(교토야와다시)의 경우 2백50개 서클이용 횟수 1만여회.
▲ 이용주민 연간 연인원 15만명.
- ⑨ 이용계층 → 초·중·고생 일반 성인 남녀

〈표〉 일본공민관과 한국의 지방문화원 역할 비교

일본공민관의 역할	한국의 지방문화원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강좌(역사) • 시민의 문화창달 • 문화의 국제교류 • 주민학습활동의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문화개발, 보급 보존, 전승, 선양 • 향토사조사연구, 자료수집, 보존, • 문화에 관한 자료수집, 보존, 보급 • 지역전통문화국제교류 •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 지방문화에 대한 교육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축제 • 재정—시·교육위원회에서 전액보조 • 공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문화행사 • 재정—정부나 시·군에서 소액보조 • 특수법인체

⑩ 公民館 연수결론

생소하게 여겼던 公民館의 운영실태를 짧은 시간이나마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운영관리책임자의 현황설명과 학습현장, 그리고 시설들을 돌아보고 얻은 것을 한국의 지방문화원과 비교해 몇가지 정리하면 〈표〉 같다. 〈표〉에서 보듯 일본의 공민관 역할은 우리나라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서클 활동보다 학습활동의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따라서 우리 문화학교에 상응되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있다면 우리도 일본의 '공민관'을 능가할 수 있는 지역문화창출의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결론 짓는다.

하나 더 부연한다면 근년에 와서 일본주민들은 '공민관'에서 자유로운 학습을 하면서도 일상생활에 있어 여가 선용에 대한 관심이 높고 각종의 직업기능의 획득이나 자격의 취득 등에 기대를 갖는 성향이 고조됨에 따라 '생애 학습'을 지향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키 위해서 생애학습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학습상담체 제정비 △생애학습 Adviser 배치 △대학과 연계해 강좌의 개최 △지도자의

양성(Leader의 연수) △생애학습 Volunteer 양성 △公民館 관리운영의 〈각종 시설을 집중적(集中的), 체계적(體系的), 종합적(總合的)으로〉 총괄(總括) 등의 기능을 가진 학습센터로 교육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새롭게 설치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곳에선 주민들의 생애학습을 '공민관'의 자유학습보다 앞지른 적절한 생애학습정보지를 발행해 생애학습센터는 물론 공민관, 교육, 문화, 스포츠, 레크레이션, 복지, 보건, 환경, 인권 등 시에서 지니고 있는 여러부의 학습기회를 집약시켜 놓고 있다. 이같은 사업은 21세기를 지향해 새로운 학습사회를 구축, 주민의 문화창출로 인한 풍요로운 도시로 발전시키고자하는 시정의 일환이라고 본다(물론 시의 교육위원회가 주무역할을 한다).

2. 일본인의 전통예절문화

어느 곳의 연수장에 들어가서도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우리나라 국기와 일본의 국기이며 시장이 부재중일 경우에는 조역(조애기=부시장)의 환영사에 이어 시의회회장의 축사 그리고 관

장 설명 순으로 연수설명을 한다.

연수가 끝나자 일일이 시설을 견학했고 현관을 나와 버스에 올라 탔다. 버스가 떠날 때까지 직원들이 밖에서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전송했다. 그 자세를 보고 나는 순간적으로 그 옛날 백제 근구수왕때 왕명을 받은 왕인박사가 논어 10권과 천자문 1권을 갖고 도일해 일본인들에게 사람이 지녀야 할 윤리도덕관을 심어줬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리고 일본인들의 예절이 우리를 앞지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으나 자신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다. 오늘날 일본인들은 왕인박사를 훌륭한 학자로 숭배하고 있다.

3. 일본 속의 우리문화

나는 일행과 함께 각 지역의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을 견학했다. 그중 가장 가슴에 닿은 유물에 대해서 느낌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奈良의 法隆寺(나라의 호우류지)를 관람하면서 아름다운 관음상을 봤다.

法隆寺 직무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 관음상은 6세기에서 7세기 전반에 建造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관음상은 그간 보존이 여의치 않아서 이곳 저곳으로 전전되다가 法隆寺로 모셔오게 됐는데 정교하게 建造된 상의 머리부분을 고증해보니 남



구다라(百濟)관음상.

방에서 도래한 것이 아니고 百濟國(구 나라)에서 도래했다는 사실이 立證됐다 한다. 法隆寺 역내에 3년전인 1998 년도에 百濟觀音像(구나라간온소)이라는 殿堂을 건립했다는 설명을 듣고 보니 감회도 깊고 우리 文化임을 실감 했다. 이 百濟觀音像은 일본불교미술을 대표하는 불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또 일본불상으로서는 드물게도 팔등신의 날씬한 몸매에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자비가 넘치는 표정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아름다운 이 불상이 '百濟觀音像' 이라고 하니 마음이 흐뭇했다.

4. 奈良(나라)라는 地名

日本 奈良(나라)에 처음으로 統一王權이 樹立된 時期(6세기에서 7세기 전 반까지)를 飛鳥(아스카)시대라고 한다. 본래 이 飛鳥(아스카)는 百濟에서 渡來한 사람들의 삶의 근거지였을 뿐만 아니라 奈良(나라)지역에 '明日香村(아스카무라)'의 이름을 가진 地名이 있는데 이 지역 역시 백제사람들의 삶의 근거지였다고 한다. 지금 이 지역은 '明日香村にオケル歴史的風土ノ保存に關スル特別措置法(明日香村에 대해 歴史的風土의 保存에 關한 特別措置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奈良(나라)가 우리와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었나하는 것은 讀者의 추리에 맡기고자 한다. 다만 朝·日 古代國家의 이름에서 알수 있듯 우리나라는 '아침'을 한자로 '朝'를 썼고 日本나라도 '아침'을 漢字로 '朝'라는 공통된 글을 썼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5. 일본 초·중·고생들의 凡節

나와 우리 일행이 東京都 국립박물관을 견학할 때 初等學生, 中學生들을 만났다. 학생들이 "곤니찌와"라고 인사를 하기에 나는 옆으로 다가가서 "곤니찌와"라고 답례를 하고 나는 이웃나라 한국에서 왔다고 하자 "2002, サッカ(축구)"라고 말하며 반겨줬다. '월드컵'에 대한 관심 표현이 귀엽기만 했다.

6. 한글강좌 프로그램

東京都 三鷹市(미다카시)사회교육회관(公民館 역할과 같음)에서는 일본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워서 상호간의 이해를 촉진해 문화교류를 증진하자는 취지에서 강좌를 개설했다.

강좌의 내용은 △한글의 기원과 구조 △한국으로의 여행 △21세기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 △한반도의 역사-2천여년동안의 교류사 △공생하는 지역사회의 창조 △한국의 요리 등으로 16세이상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었다.

우리 문화역사와의 관계는 이와같은 강좌에서 뿐만 아니라 京都八幡市(교토야와다시)의 市民交流센터(公民館 역할과 같음) 방문때 松本市助役(마쓰모도·副市长격)의 환영사에서 들을수 있었다. 그는 "한일간의 交流는 긴 역사속에서 이뤄졌고 오는 2002년의 '월드컵'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의 문화원장님들의 뜻깊은 방문으로 한일 양국간의 우호가 더욱 증진될 것"이라고 환영 했다. 그렇다. 앞으로 한일간의 문화교류역할은 양국의 이해증진에 크게 공헌하리란 확신이

생긴다. 4박5일의 짧은 일정에서도 日本地方公民館의 역할뿐만 아니라 불교 문화(奈良의 東大寺·法隆寺(나라의 도오다이지·호우류지)), 예술문화(國立博物館, 縣立美術館) 등을 견학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은 지방마다 주민들의 개성을 살리고자 하는 충실한 내용의 강좌와 함께 제반 학습환경이 잘 정비돼 있고 또한 그 지방문화창조에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얻은 이번 연수의 보람이었다고 자부한다.

7. 끝맺음

이번 연수에 참가한 문화원장들의 소감을 집약해 이 지면을 통해서 발표하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연수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주신 문화관광부 전통지역문화과 최천식 과장님, 권도현 직원, 연합회 장상호 부장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地方文化院에서도 점진적으로 재정지원이 마련된다면 지방문화의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



△ 활짝 웃는 초등학교생들도 예절을 갖추고 있었다. 일본인들의 예절이 우리를 알지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욕망의 끝에서 꿈꾸는 飛上, 그러나 폐곡선에 갇혀버린 새

새
는
폐곡선을
그린다

The bird who stops in the air

박계현 기자 fire@kccf.or.kr

영화 <새는 폐곡선을 그린다>(개봉 미정)는 지방대학 영화과 교수로 재직 중인 주인공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시적 영상으로 잔잔하게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다. 주인공은 자신이 갈망하는 이상과 답답하고 고단한 현실 사이에서 느끼는 괴리감,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새'의 이미지에 담아 영화로 표현하려고 한다. 하지만 영화는 '새' 역시 자신이 그린 지도에 따라 움직이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인간도 자신이 설정해 놓은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을 역설한다.

“이렇게, 새의 이미지는 비상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지...”

지방대 영화과 교수이자 독립영화 감독인 '김(설경구 분)'은 학생들에게 영화란 자신의 이상을 펼쳐보이는 무대라고 가르치지만 현실은 꿈만 꾸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영화과 졸업 후 막막한 현실과 부딪쳐야 할 학생들 앞에서, 가르치는 일도, 영화 만드는 일도 자신을 무겁게 만들지만 한다.

자신이 꿈꾸는 이상(理想)대로 흘러가지 않는 현실에서 '김'은 자꾸만 도피하고 싶다.

그런 '김'에게 중학교 과학교사인 '영희(김소희 분)'는 마치 휴식처같은 존재. 구속하지 않는 관계가 지속될 것 같았으나 영희가 가족에게 '김'을 애인으로 소개시키길 원하자 '김'은 이런 상황들이 부담스러워진다. 갑갑한 현실에서 힘들어하는 '김'에게 영희는 구원같은 존재이나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김'과의 관계가 답답하기만 하다. 영희는 '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임신 사실조차 감추지만 '김'은 점점 그녀를 힘들어한다.

영희의 고향집으로 가는 내내 지리한 싸움을 하던 '김'은 여관방에 영희를 홀로 남겨둔채 돌아와 버린다.

영화도 사랑도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김'은 어릴적부터 어렵스럽게 기억 속에 자리잡고 있는 '새'를 떠올린다.

가족이라는 현실의 도피처로 영희를 만나고, 자꾸만 현실이 돼 가는 영희에게서 벗어나고자 '새'에 집착하는 '김'.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양, '새'의 이미지에 빠져드는 '김'은 어린 시절 새와 가장 가까이 있던 주남저수지 근처를 다시 찾는다. 그러나 새는 사라지고 낡은 건물만 삭막하게 남아 있다. 쓸쓸히 발길을 돌리는 '김'은 영희에게 다시 전화를 건다.

“새들도 결국 자기가 그린 지도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대사와 음악을 절제하고 이미지를 통한 내용을 전달하는 모던한 스타일’, ‘인간 내면의 디테일한 심리 묘사가 돋보이는 수작’. 이것이 영화 <새는 폐곡선을 그린다> 앞에 따라 붙는 수식어들이다.

감독의 뛰어난 감각과 ‘설경구’의 절제되고 디테일한 연기. 독창적인 형식과 관조적인 시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영화 <새는 폐곡선을 그린다> 스타일에 언론과 평단이 찬사를 보내고 있다.

전수일 감독의 자전적인 스토리만큼 설경구는 영화속에서 감독이 실제 입었던 옷들을 입고, 감독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찰하는 등 세심한 분석과 연구를 거쳐 그것을 연기에 고스란히 녹여냈다. 여기에 다 부산 출신의 실력과 인디 밴드 ‘레이니 썸’의 영화음악 까지. 그들의 1집과 5집에 실려있는 곡 ‘OCEAN II’의 몽롱한 멜로디는 꿈속을 걷는 듯한 느낌을 전달함으로써 주인공인 김교수의 복잡하고도 혼란스러운 심리상태를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지난 97년 <내안에 우는 바람>으로 제 50회 칸국제영화제 ‘주목할만한 시선’에 초청받은 바 있는 전수일 감독은 두번째 작품인 <새는 폐곡선을 그린다>가 베니스영화제 등 국제 영화제에 진출하게 돼 한국을 대표하는 독립영화 감독으로 부상했다.

<새는 폐곡선을 그린다>는 ‘제 4

회 부산 국제 영화제 넷팩상(아시아 영화진흥기구상)을 수상, ‘제 14회 스위스 프리부르 국제영화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 영상 이미지와 음악을 절제한 모던한 스타일로 해외에서 호평이 끊이지 않아 제 56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새로운 분야

(New Territories)’ 부문 공식초청 등 유수의 세계각국영화제에서 공식초청이 줄이고 있다. 해외에서의 화려한 경력은 영화의 작품성 뿐만 아니라 한국영화의 위력을 과시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문**

자료제공: ALL THAT CINEMA



새는 폐곡선을 그린다



日本, 말로만 반성 실제론 역사 왜곡 여전

일본은 1982년의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을 계기로 1995년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에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으며 이에 대한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행 교과서에는 일본의 한국감정이나 식민지 지배 등에 관한 서술에 있어서 일본의 역사를 미화하기 위해 한국사를 폄하하거나,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을 회피 또는 전가하는 내용이 크게 늘어난 실정이다. 그들이 선언문 등에서 보여줬던 것과는 표리부동한 태도다. 이와 관련해 월간 우리문화는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된 한·일 관계자료와 국제기구 관련 자료를 실는다. (편집자주)

한·일 관계 자료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1998.10.8)

양국 정상은 한·일양국이 21세기의 확고한 선린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오부치 총리대신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견해를 함께하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내각총리대신 담화 (1995. 8. 15)

지난 대전이 종말을 고한지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시금 그 전쟁으로 인해 희생되신 내외의 많은 분들을 상기하면 만감이 가슴이 저미는 바입니다.

패전 후 일본은 불타버린 폐허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오늘

날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자량이며 그것을 위해 기울인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지(英知)와 꾸준한 노력에 대해 저는 진심으로 경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내진 지원과 협력에 대해 다시 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 아시아·태평양 근린제국, 미국, 구주제국과의 사이에 오늘날과 같은 우호관계를 구축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일본은 평화롭고 풍요로워졌지만 우리는 자칫하면 이 평화의 존귀함과 고마움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두 번 다시 되풀이 하지 않도록 전쟁의 비참함을 젊은 세대에 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특히 근린제국의 국민들과 협조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확

고히 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 여러 나라와의 사이에 깊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를 키워나가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특히 근현대에 있어서 일본과 근린 아시아제국과의 관계에 관한 역사연구를 지원하고 각 국과의 교류를 비약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하는 평화우호교류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힘을 기울이고 있는 전후 처리문제에 대하여도 일본과 이들 나라와의 신뢰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저는 앞으로도 성실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전후 50주년이라는 길목에 이르러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미래를 바라다보며 인류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그르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줬습니다. 저는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으로 표명합니다. 또 이 역사로 인한 내외의 모든 희생자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바칩니다.

패전의 날로부터 50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나라는 깊은 반성에 입각해 독선적인 내셔널리즘을 배척하고 책임있

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협조를 촉진하고 그것을 통해 평화의 이념과 민주주의를 널리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핵무기의 궁극적인 폐기를 지향해 핵확산 금지체제의 강화 등 국제적인 군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간요(肝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에 대한 속죄이며 희생되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는 길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의지하는 데는 신의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기념할만한 때에 즈음해 신의를 시책의 근간으로 삼을 것을 내외에 표명하며 저의 다짐의 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역사를 교훈으로 평화에 대한 결의를 새로이 하는 결의 (1995.6.9, 일 중의원 채택)

본 국회는 전후 50주년에 즈음해 전 세계의 전몰자 및 전쟁 등에 의한 희생자에 대해 추도의 뜻을 바친다. 또한, 세계 근대사에 있어서 여러 식민지 지배와 침략적 행위를 생각하며, 우리나라가 과거에 행한 이러한 행위와 타국민, 특히, 아시아의 여러 국민에게 끼친 고통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의 마음(念)을 표명한다. 우리는 과거 전쟁에 대한 역사관의 차이를 극복하고, 역사의 교훈을 겸허히 배워, 평화로운 국제사회를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본 국회는 일본국 헌법이 표방하는 항구평화의 이념하에 세계 각국과 손을 잡고 인류공생의 미래를 개척하는 결의를 이에 표명한다.

상기 내용을 결의한다.

위안부 관계 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내각관방장관 담화 (1993. 8. 4)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재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금번 그 결과가 정리됐기에 발표하기로 했다. 금번 조사의 결과, 장기적이고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됐으며 많은 위안부가 존재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위안소는 당시 군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 운영됐으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서는 구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위안부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담당했으나 그 경우도 감언, 강압 등에 의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으며 더욱이 관헌(官憲)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하에서의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전지(戰地)로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에 대해서는 일본을 제외하면 한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한반도는 일본국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모집·이송·관리 등도 감언·강압 등에 의해,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졌다.

어쨌든, 본건은 당시의 군의 관여하에 수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다시금 그 출신지의 여하를 떠나 소위 종군위안부로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심신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전한다. 또 그와 같은 마음을 일본국이 어떻게 표현하

능가에 대해서는 지식인들의 의견 등도 구해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역사의 진실을 피하는 일없이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해 나가 고자 한다. 우리들은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영원히 기억해 똑같은 잘못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번 표명한다. 또한 본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소송이 제기돼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어 정부로서도 앞으로 민간연구를 포함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

역사 교과서에 대한 문부대신 담화 (1982.11.24)

1. 일본의 교육은 평화적인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을 육성함이 목적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깊게 함과 동시에 국제 이해와 국제협조의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점에 관하여는 교과서 검토에 있어서도 종래부터 배려해 오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얼마전 한국·중국 등으로부터 일본의 역사교과서의 기술에 대해 의견이 들어 왔다. 이와 같은 의견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 검토를 거듭한 결과 8.26자 '역사교과서에 관한 판방장관 담화'가 발표됐다. 본인은 동 취지를 받아들여 9.14 교과용 도서검정 조사심의회에 대해 '역사교과서의 기술에 관한 검토의 절차에 관하여' 자문했다. 심의회는 신중하게 심의해 11.16 자문결과를 매듭졌다.

2. 자문결과는 교과서 검토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중국을 비롯한 인근

아시아 제국과의 불행한 과거의 관계를 고려해, 이들 제국의 국민감정 등에 대하여도 금후 일층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따라서 검토기준에 국제이해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3. 동 자문결과에 따라 의무교육제 학교 교과용 도서검정 기준 및 고등학교 교육용 도서 검토기준을 개정해 "인근 아시아 제국과의 관계에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에는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규정을 추가했다.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정신에 관해서는 종래부터 교과서 검토가 있어서 배려해 온 바 있으나, 새로운 검토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일본과 인근 아시아 제국과의 우호, 친선을 일층 전진시켜 교과서의 기술이 보다 적절한 것이 되도록 길을 열고자 한다. 금후에는 저자, 발행자가 검토를 신청하는 교과서에 대해 새로운 검토기준이 적용됨으로써 교과서의 구체적 기술의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4. 상기 신검정 기준은 자문결과에 따라 1982년도 교과서 검토부터 적용기로 했다. 또한 1981년도 검토를 필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정오 정정의 절차에 의해 수정하지 않고 신검정 기준에 의한 검토를 가능한 빨리 행하기 위해 자문결과에 따라 차기 개정 검토를 1년 앞당겨 1983년에 실시코자 한다.

5. 문부성으로서 금후에는 일·한 공동성명 및 일·중 공동성명의 정신을 존중해 인근 제국과의 상호 이해의 촉진과 우호협력 관계의 발전에 노력

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 교육의 현장에 있어서 이상의 취지를 감안, 금후 일층 인근 아시아 제국을 비롯, 제 외국과의 국제이해와 국제협조를 배양함에 배려가 있기를 기대한다.

국제기구 관련 자료

평화·인권·민주주의교육에 관한 선언 및 통합 실천체계(UNESCO, 1994, 1995)

〈교육자료와 교육자원〉18. 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적합한 교육 자료와 교육 자원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부정적인 고정 관념과 타인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고치는데 쓰도록 교과서를 개정해야 한다. 교과서 제작을 위한 국제협력을 장려할 수도 있다. 새로운 교육자료나 교과서를 만들고자 할 때는 늘 새로운 상황을 적절히 고려해 기획해야 한다. 교과서는 주어진 주제에 관한 다른 관점을 제시해야 하며, 그 국가적, 문화적 배경을 솔직히 보여줘야 한다. 교과서 내용은 과학적 연구결과를 기초로 삼아 제작해야 한다. 유네스코와 그 밖의 유엔기구 문서를 널리 배포해 교육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특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자료 생산이 더딘 나라에서는 더 그렇다. 원거리 교육기술과 모든 현대적 통신수단을 평화, 인권, 민주주의 교육을 수행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국제이해·협력·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 (UNESCO, 1974.11.19)

〈Ⅷ. 교육시설과 자료〉39. 회원국은 교육 보조재, 그 중에서도 특히 교과서가 오해, 불신, 인종 차별주의 또는 다른 집단이나 국민에 대한 경멸이나 증오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요소가 전혀 없도록 보장해 주는 적절한 조치를 장려해야 한다. 배우는 사람이 이 권고의 취지에 반하는 것 같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보급받는 정보와 사상을 제대로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배경지식이 광범위하게 포함된 교육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Ⅸ. 국제교육〉45. 회원국은 폭넓은 교과서 교류, 그 중에서도 특히 역사와 지리 교과서 교류를 장려해야 하며, 또한 적절한 지역에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쌍무 협정이나 다자간 협정을 체결해 그들 자료가 정확하고, 적절하며, 새로우며, 편견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고 다른 나라 사람과 지식을 나누고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상호 연구와 교과서 및 기타 교육자료 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65.12.21)

〈제7조〉체약국은 특히 수업, 교육, 문화 및 공보분야에 있어서 인종차별을 초래하는 편견에 대항하기 위해 민족과 인종 또는 종족 집단간의 이해, 관용과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해 그리고 국제연합헌장, 세계인권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연합선언 및 이 협약의 제 목적과 원칙을 전파시키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청소년의 평화이념 및 국민간 상호 존중과 이해의 증진에 관한 선언(1965.12.7, 유엔총회)

〈원칙 I〉모든 인간과 제 국민의 평등권, 경제 사회적 진보, 군비축소, 그리고 국제적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은 평화, 정의, 자유 및 상호 존중과 이해의 정신으로 자라야 한다.

〈원칙 II〉부모나 가족이 주는 안내 및 청소년을 위해 의도적으로 제공되

는 가르침과 정보 등 중요한 수단을 포함한 모든 교육수단은 청소년들 사이에 평화, 인간성, 자유 및 국제적 유대의 이념과 국민들이 더욱 가까워지는데 도움을 주는 다른 이념들을 고취해야 하며, 평화의 보존과 유지, 그리고 국제적 이해 및 협력의 촉진 수단으로서 유엔에 맡겨진 역할에 대해 청소년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출처 :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수정 요구 자료 중(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대책반)

생활문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하철 예의

지하철을 탈 때마다 굳은 표정의 사람들을 볼 때면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막막하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눈을 스킨스름 감아버리는데요. 이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소리가 굉장히 크게 팡팡 들려오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조그만 카세트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지만 도저히 이어폰을 꽂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옆에서도 그 음악 다 들을 수가 있을 정도니까 말이죠. 눈살을 찌푸려 보아도 별 도리가 없더군요. 조금만 볼륨을 낮추어 주면 좋을텐데. 또 한가지 신문예절이 있습니다. 지루한 시간 동안 잠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공간이 조금 있을 때야 괜찮지만 뽀뽀는 지하철에서 꼭 신문을 펼쳐들고 보아야 할까요? 넘기기도 힘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부시럭 부시럭 부딪히고, 또 넘기는 소리 또한 대단하지요.

일본엔 지하철용 포켓북이 있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에게 피해 없이, 또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알맞은 크기의 문고판 도서죠. 신문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만 정 보고 싶다면 신문 쪽을 좁혀서 읽거나 조금만 참았다가 사람이 적을 때 보면 어떨까요?

조형숙(초등학교 교사, 인천광역시 서구)

〈전국문화원연합회 발간 '생활문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중에서〉



서울특별시

【전국문화원연합회】

이수홍 회장 등 2차 일본공민관 연수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지난 1차 일본공민관 연수에 이어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 5일간 2차 일본공민관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을 비롯 안진수 사무총장·전국의 문화원 관계자 등 29명과 문화부 관계자 3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전국공민관연합회를 공식 방문하고, 세미나

공민관과 카이쓰카시립아미테지구 공민관도 견학했다. 또 일본의 국립역사박물관·국립교토박물관·동대사·국립나라박물관·민족학박물관·오사카성·신바이바시 등도 관람했다. 이번 2차 공민관 연수로 일본의 문화를 견학하고 한·일간 원활한 문화교류를 다지는 기회가 넓어졌다.

【문화관광부】

제4회 전국문화기반시설 책임자대회

문화관광부는 지난 11월 29~30일 이틀간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기반시설 운영책임자들의 교류·협력 및 문화기반시설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제4회 전국문화기반시설 책임자대회'를 개최해 우수시설 및 자치단체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경상남도 진주시가 주최한 이 행사에는 전국문화시설 운영책임자 및 관련담당자 1천3백여명이 참석해 개회식에 이어 특강·시설 분야별 워크숍 및 운영사례 발표·공연관람 및 향토

유적 탐방·합동워크숍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다음은 문화원 분야 시상내역. △명예 최우수=서울 동작문화원·충남 천안문화원, △최우수상=충남 서산문화원, △우수상=서울 광진문화원·강원 강릉문화원·전남 영암문화원·충남 당진문화원, △장려상=대전 대덕문화원·충남 온양문화원·경북 청송문화원·전남 진도문화원 등.(관련기사 52P)

【서울특별시】

서대문문화원 설립인가

서울특별시는 최근 서대문문화원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제1항 및 제2조 제2항에 의거해 설립인가 했다.

【중대문화원】

진실한 바보가 그림다 출판기념회

중대문화원은 지난 11월 7일 오후 6시 크리스탈부페식당에서 권태하 사무국장 이 발간한 '진실한 바보가 그림다'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노원문화원】

제3회 노원음악회

노원문화원은 지난 11월 9일 오후3시 당고개 지구 공원에서 '제3회 노원음악회'를 개최했다. 이 음악회에는 교향악단 챔버·남미 민속음악 그룹 KANTUS·경기 민요 김완수 외 7명·마들가요제 상계4동 대표·미사리 인기가수 허응·신인가

수 신우진·인기트로트가수 최유나 등이 출연했다.

【도봉문화원】

도봉서원 추(秋)-향제(享祭)

도봉문화원은 지난 10월 26일 오전 11시 도봉서원에서 도봉구의 전통문화행사인 '도봉서원 추(秋)-향제(享祭)'를 개최했다.

【성동문화원】

조창현 원장 유임

성동문화원은 최근 제3차 임시총회를 열어 제2기 임원진을 선임했다. 다음은 임원진 명단. △원장=조창현(유임), △부원장=이동표(신임)·신동호(유임)·정진섭(유임)·허필수(유임).

[마포문화원]

제2회 마포향토어린이 동화 연구대회

마포문화원은 지난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성공적인 문화월드컵 행사를 위해 지역내의 서활인서터 등 17개소의 문화유적지 순회청소 및 내외 환경정비 행사를 가졌다. 한편 지난 11월 10일 오후 2시 마포관내의 유치부와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2회 마포향토어린이 동화 연구대회'를 개최했다.

[청룡문화재보존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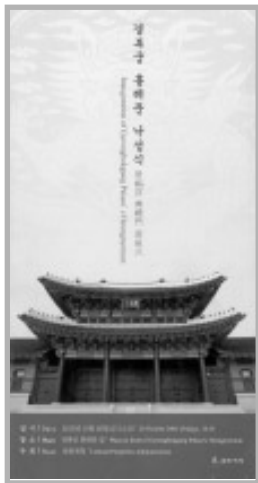
제11회 청룡문화제

청룡문화재보존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 오전 9시 40분 용두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전통문화향연인 '제11회 청룡문화제'를 개최했다.

2001년은
지역문화의 해

[문화재청]

경복궁 흥례문 낙성식



문화재청은 지난 10월 26일 오후 2시 30분 경복궁 흥례문 앞에서 흥례문 복원 준공을 기념한 '경복궁 흥례문 낙성식'을 개최했다. 흥례문은 조선초 경복지도에 정문으로 표기돼 있고 왕의 근위대가 지키던 곳이었는데 1910년 일제 통치에 접어들면서 조선의 맥을 끊는다는 의미로 훼손하기 시작해 조선총독부가 '시정(施政) 5주년 기념식'을 열면서 상당부분 철거됐다. 이어 조선총독부 청사가 들어서면서 흥례문을 비롯한 행각(行閣) 등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에 정부는 일제 잔재로부터의 결연한 단절과 우리의 민족정기를 되세우기 위해 19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흥례문 일대 복원공사를 시작했다. 이번 흥례문 복원 완성으로 변형된 문화재를 본 모습대로 돌려놓아 다시 한번 우리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동시에 문화국민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됐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4일까지 서울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대관 신청서 받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2002년도 상반기(1.1.~6.30.) 서울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공연장 대관을 실시한다. 다음은 대관신청 안내.

△ 대관시설 = 국악전용극장(풍류극장)-객석: 147석(보조석 100석)/공예전용전시장(전통공예관)-전시실: 100평형(상설전시장), 150평형(기획전시장)

△ 대관대상 =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행사, 우리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연 및 전시행사.

△ 제출서류 = 시설대관신청서 1부, 행사계획서 1부, 출연자 약

력 또는 단체 소개서 1부(www.fpcp.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대관 신청 결과 = 일괄 심사후 2001.12.26(수)까지 개별통지 (대관 가능일을 문의한 후에 신청바람)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2001.11.19(월)~12.14(금) 09:00~18:00

• 접수처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공연전시팀

• 주소 : (135-090)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2-2

• 문의 : TEL(02)566-7037, 5951~2/FAX 566-6314, 5954/

E-mail fpcp@fpcp.or.kr

지역문화 뉴스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

제8회 문화복지포럼

한국문화복지협의회는 지난 11월 8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정동빌딩 별관 4층에서 '문화프로그램에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제8회 문화복지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지역사회, 지역문화' 토론회 개최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은 지난 11월 1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지역사회, 지역문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그동안 지역문화를 연구해온 학자들과 지역의 일선 문화행정가들이 참여해 지역차원의 문화정책과 문화산업정책 방향을 진단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간의 협력방안 등을 짚어봄으로써 21세기 지역문화의 창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부 산 광역시

【부산광역시문화원】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부산광역시문화원은 지난 10월 8~13일 6일간 문화학교 회원 사진전·서화 및 생활도예전시·꽃꽂이 전시를 비롯,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한 회화대회·강변사생

대회·가람백일장·제9회 강서풍년제를 개최했다.

【기장문화원】

김광수 사무국장 임명

기장문화원은 지난 11월 1일 그간 공석이었던 사무국장직에 김광수씨(50)를 임명·발령했다. 한편 기장문화원은 차성문화제 5회를 즈음해 '기장의 한시문화 2집'과 '동서역사조감록' 발간하고 지난 11월 12일 기장문화원 강당에서 출판기념식을 가졌다.

대구 광역시

【대구광역시지회】

사무실 이전

대구광역시지회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07번지 대구상공회의소 7층 703호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전화=(053)744-7950, △전송=(053)744-7951. 한편 대구광역시지회는 지난 11월 1일 오전 11시 30분 현풍면사무소 3층 강당에서 사회교육을 통해 건전한 생활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관내 여성을 대상으로 '제5회 달성충효여성문화학교 입학식'을 개최했다.

▽부산광역시문화원

대전광역시

【대전시지회】

문화유산해설사 양성·배치

대전광역시시는 권역별로 문화유적에 대해 능숙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문화유산해설사를 양성·배치해 대전관광문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 '문화유산해설사'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재(사찰, 민속, 무형문화, 사적, 천연기념물 등) 및 지역문화를 흥미있게 설명·안내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이해와 체험을 돕고 있다. △활용신청=전국문화원연합회 대전시지회(042-637-7517)



지역별 (배치장소)	문화재 및 관광지	배치인원
우암사적 공원권 (우암사적 공원안내 사무실)	남간정사, 남간사, 기국정, 송자대전판목, 전시관, 박팽년선생유취지, 고산사	4명
동춘당권	동춘당, 동춘당고택, 송용역가옥(쌍청당, 송애당, 회덕향교, 제월당, 옥오재, 옥류각)	5명
서남부권 (선사유적지 사무실)	둔산선사유적지, 도산서원(월평산성, 내동리고인돌, 진잠향교)	6명
보문산권 (뿌리공원 사무실)	보문산성, 보문산마애여래좌상, 봉소루(뿌리공원, 유희당, 정생 동가마터, 신채호생가)	5명



인천광역시

[연수문화원]

인천 연수문화원 개원

연수문화원은 지난 11월 9일 오후 2시 연수문화원 대강당에서 개원식과 함께 11월의 문화인물 대각국사 의천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인천 관내에서 4번째로 설립된 연수문화원은 전국에서 2백 13번째 문화원이 된다. △원장=최정학, △부

원장=김의환·김원옥, △사무국장=고미애, △문화학교장=오선숙, △감사=유혁규·이성옥,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2동 584번지, △전화=(032) 821-6229, △팩스=(032)821-6229.



연수문화원 현판제막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으로부터 연수문화원 기를 수여받은 최정학 원장(위)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전서구문화원]

제5회 문화학교 전시회와 발표회

대전서구문화원은 지난 11월 13일 둔산1동 상설전시관에서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전시회'를 가졌다. 5회째 맞는 이번 전시회의 개막식에는 가기산 서구청장을 비롯 내빈·수강생·일반시민들이 참석했고 분야별로 총91점이 전시돼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솜씨와 기량을 과시했다. 이어 15일에는 민요·판소리·풍물·고전무용·가야금 강좌 수강생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문화학교 수강생 발표회'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로 문화학교 수업을 자체평가하고 문화생활 저변확대에 큰 성과를 올렸다.

인천광역시

[부평문화원]

홈페이지 개설

부평문화원은 최근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홈페이지 주소=www.bpcc.or.kr

경기도

[경기도지회]

제2의 건국운동 실천 백일장

경기도지회는 지난 10월 2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부천시 중앙공원에서 도민의 문예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풍요로운 문화향유와 정서를 함양키 위해 '제2의 건국운동 실천 백일장'을 개최했다.

[남양주문화원]

제15회 다산문화제

남양주문화원은 지난 10월 6~8일 3일간 다산기념관 일대에서 다산 정약용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실학사상을 계승하고자 '제15회 다산문화제'를 개최했다.



[동두천문화원]

홍경섭 신임문화원장 취임

동두천문화원은 지난 10월 24일 오후 5시 유림호텔에서 홍경섭 신임문화원장과 조인희 전임문화원장의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이천문화원】

‘거북놀이’ 무형문화재 지정 본격 추진

이천문화원은 지난 10월 13일 ‘거북놀이 보존회’를 재창립했다.

이 보존회는 1978년에 결성됐다가 없어진 ‘이천군 거북놀이보존회(회장 유광렬)’와 1982년에 결성됐다가 없어진 ‘대월면 초지리 거북놀이 추진위원회(위원장 최의상)’의 뜻을 계승하는 의미로 창립된 것이다.

이천거북놀이는 수숫대와 벧짚으로 거북모양을 만든 뒤 그 속에 두 사람이 들어가 마치 거북처럼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무병장수와 행운을 빌어주는 전통놀이이다.

그러나 지난 50년대를 정점으로 쇠퇴의 길을 걷다 60년대 들어 민간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 뒤 맥이 끊어진 거북놀이는 지난 70년대 김종린(66) 향토사학자가 심우성 민속학자의 고증을 받아 재현해 냈다. 이 ‘거북놀이’는

78년과 85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문공부장관상과 99년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종린씨를 비롯 이은구 이천문화원장·유광렬 해강도자미술관장·유승우 이천시장 등이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보존회의 창립으로 경기도 이천지방에 전해져 내려오는 ‘거북놀이’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작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천문화원은 홈페이지 주소를 ccichon.or.kr에서 <http://www.cc2000.or.kr>로 변경했다.



【과천문화원】

제4회 과천향토사료전

과천문화원은 지난 11월 16~22일 과천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삶의 기록문화를 주제로 ‘제4회 과천향토사료전’을 개최했다. 이에 앞서 과천문화원은 지난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열렸던 ‘세계도자 기엑스포2001’ 행사기간 동안 생활문화 육성사업의 일환인 문화가족유적지 순례

행사로 여주·이천·광주행사장을 견학했다. 또 지역문화개발사업의 하나인 문화박물관교실 하반기 현지견학행사로 한강 이북인 파주문화유적지를 방문했다. 청백리의 표상인 황희정승 묘와 반구정·울곡 이이선생의 자운서원·화석정·고려 윤관장군의 묘·용미리 자연마애사면 석불 등을 둘러보면서 우리조상들이 남긴 문화에 대해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여주문화원】

명성황후 숭모제전

여주문화원은 지난 11월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명성황후 생가 및 기념관 앞에서 명성황후 탄신 제150주년을 기념해 황후의 큰 뜻을 기리기 위한 ‘명성황후 숭모제전’을 거행했다.

【파주문화원】

서교송 사무국장 임명

파주문화원은 지난 11월 1일자로 신임 사무국장에 서교송씨(35)를 임명했다.

【화성문화원】

박지영 사무과장 임명

화성문화원은 지난 9월 11일 퇴직한 박대진 사무국장 직무대리로 박지영 사무과장을 임명하고 신임 김숙이 간사를 채용했다.

【과천향토사연구회】

제4회 과천향토사료전

과천향토사연구회는 지난 11월 16~22일 7일간 과천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삶의 기록문화를 주제로 한 ‘제4회 과천향토사료전’을 개최했다.

강 원 도

【동해문화원】

전통문화예술 종합발표회 및 학술강연회

동해문화원은 지난 11월 6~8일 3일간 동해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및 제1·2전시실에서 동해문화원 문화학교의 ‘전통문화예술 종합발표회 및 학술강연회’를 개최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다.

충청북도

[충주문화원]

제6회 김생 전국서예대전

충주문화원은 지난 11월 17~21일 5일간 충주시문화회관 전시실에서 동방서도의 제1인자였던 명필 김생선생을 추모하고 서예문화의 창조적 개발을 통한 향토문화 창달을 위해 '제6회 김생 전국서예대전' 입상작품 전시회와 시상식을 개최했다.

충청남도

[서천문화원]

정해성 사무국장 임명

서천문화원은 지난 11월 1일자로 신임 사무국장에 정해성씨(52)를 임명했다.

[온양문화원]

다양한 문화 사업 실시

온양문화원은 지난 9월과 10월 청소년이 참여하는 문학동아리 머루네 모임의 문학토론회 및 시낭송발표회를 비롯,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도서대출 및 열람, 서예, 사물놀이, 꽃꽂이, 사진강좌, 향토사연구, 문화재 감상, 영화상영 등을 실시했다. 또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물놀이 한소리패의 실습, 창덕궁·비원·창경궁·종묘·이천도자기 엑스포의 문화현장 탐방, 향토사료관 운영, 제4회 청백리 맹정승 축제 등 다양한 문화 사업을 실시했다.

전라북도

[고창문화원]

이기화 문화원장 선출

고창문화원은 지난 10월 30일 임시총회를 열어 타계한 조정승 문화원장 후임에 이기화씨를 신임문화원장으로 선출했다.

[진안문화원]

사무실 이전

진안문화원은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81-11번지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전화 = (063)433-1674, △팩스 = (063)433-6674.

[담양문화원]

제18회 청소년 서·화 백일장 대회

담양문화원은 문화의 달을 맞아 지난 10월 12일 담양문화원과 죽물박물관 일원에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8회 청소년 서·화 백일장 대회'를 개최했다. 1천 4백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이 대회는 평소 학교에서 배우고, 갖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보는 기회가 됐으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5백 83명의 학생들에게 시상했다. 한편 담양문화원은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리문화 한아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문화유적지 현장교육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관내지역문화를 깊이 인식시켜 지역문화를 계승발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전라남도

[함평문화원]

제14회 함평문화제



함평문화원은 지난 11월13~16일 4일간 군민복지회관과 함평농협광장에서 함평의 발전에 걸맞는 향토문화를 진흥하고자 '제14회 함평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문화제에는 향토작가초대전·학생작품 전시회·한시백일장·함평의학·예술인 초청 위로연·2001향토문화논단·공모전 입상자 시상식·민속놀이 경연·푸른 함평 문화 축제 한마당이 개최돼 군민 모두가 함께 하는 잔치가 됐다.

담양문화원



경 상 북 도

【경상북도지회】

제8회 경상북도 향토민요 경창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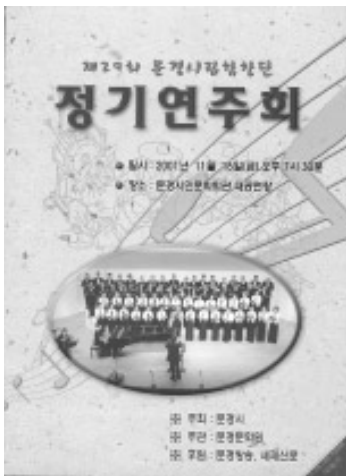
경상북도지회는 12월 1일 오후 1시부터 문경시 문경시민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경상북도내 시·군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제8회 경상북도 향토민요 경창대회'를 실시한다. 참가자들은 민요에 조예가 깊은 인사들의 심사를 거쳐 상장과 상금을 받게 된다.

한편 경상북도지회는 지난 11월 23~24일 이틀간 문경관광호텔 강연장에서 도내 문화원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보완해 지방문화원의 활성화와 지역간 문화교류 등에 관한 토론의 시간을 갖고자 '2001년 경상북도 지방문화원장 연합회'를 개최했다.

【문경문화원】

제29회 문경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문경문화원은 지난 11월 9일 문화원 강당에서 '제27회 학도문화예술대회' 시상식과 아울러 서예·미술부분 입상 작품을 전시했다. 한편 문경문화원은 지난 11월 16일 오후 7시 30분 문경시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제29회 문경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이 공연에는 기관단체장과 시민·문화가족·학생 등 5백여명이 참석해 별이 빛나는 밤에 시립합창단의 감미로운 화음을 감상했다.



【김천문화원】

전통혼례식 거행

김천문화원은 지난 11월 28일 김천시 농소면 아미랑 가든 정원에서 신랑 이재호(29.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군과 신부 이은영(29. 김천시 지좌동)양의 전통혼례식을 개최했다. 이병택 이사와 정택 부원장의 진행으로 거행된 이날 혼례식에는 하객과 시민 3백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2001년은
지역문화의 해

【청도문화원】

이문섭 원장 취임

청도문화원은 최근 총회를 열어 임원진을 선임했다. 다음은 임원진 명단. △원장=이문섭(유임), △부원장=박영광(신임)·이두식(신임)·장용기(신임).

【청송문화원】

제15회 청송문화제

청송문화원은 지난 10월 22~26일 5일간 청송읍 용전천과 주변 각 행사장에서 '제15회 청송문화제'를 개최해 각종 민속행사와 문예행사를 실시했다.



경 상 남 도

【거제문화원】

거제문화상 시상식 및 민속한마당 잔치

거제문화원은 지난 10월 27일 오전 11시 장승포초등학교 강당 및 운동장에서 '제30차 문화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활동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문화지킴이를 발굴해 문화시민의 긍지와 향토애를 북돋아 주기 위해 '제2회 거제문화상 시상식 및 민속한마당 잔치'를 개최했다.

[김해문화원]

대입수험생들을 위한 공연 가져

김해문화원은 지난 11월 14일 김해문화원 공연장에서 대입수능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들에게 문화적 감수성을 키워주고자 전문 청소년극단인 '노동자'를 초청, 연극 '골짜기로 간 어부'를 공연했다. 또 11월 16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씩 2회에 걸쳐 '지역현장문화시민교육'을 실시했다. 예절교육문화원장을 맡고 있는 지현주 원장과 김해출신의 전 공보처 장관인 손주환 장관은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세와 수능시험 이후 희망을 기질 수 있는 내용으로 강연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5~6일 문화원 임직원, 회원, 향토사 연구위원 등 문화가족들은 전남 강진과 해남 일원에서 문화탐방의 시간을 가졌다.

[사천문화원]

다채로운 문화행사

사천문화원은 지난 9월과 10월 초·명연합군 전물위령제, 추계 전국문화유적지 탐방, 제6회 와룡문화제, 제3회 민속경연대회 및 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 등의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의령문화원]

서예 이론 및 실기 특강

의령문화원은 지난 11월 15일 부림면소재 서우화서실에서 한메 조현판씨를 초청해 '서예 이론 및 실기 특강'을 실시했다. 서예단체인 연목회(의령)를 비롯, 서우회(부림)·향목회(유곡)·연서회(지정)·정목회(정곡) 및 주부서예교실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이번 특강에는 한문의 해서와 행서의 비교, 행서의 조형적 특징, 계백당후의 원리, 한글의 기본필법, 낙관의 원리 등에 대한 강의가 이뤄졌다. 한편 의령문화원은 지난 10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남산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군민회화대회'를 개최했다. 전원용 의령군수를 비롯한 30여명의 내빈들이 참석한 이 대회에는 회화대회 참가자 1백32여명이 2시간동안 자운을 겨뤘다. 입상자들은 이날 오후 4시 군민회관 회의실에서 상장과 상금을 받았다.



[진해문화원]

우리고장 문화유산 그리기 공모 작품 시상

진해문화원은 지난 10월 27일 오후 2시 문화원 2층 회의실에서 '제4회 우리고장 문화유산 그리기 공모작품 시상식'을 가졌다. 진해시 초·중학교 21개교의 1천2백8점이 접수된 이번 공모전에서는 엄정

한 심사를 통해 총 1백41명이 입상했다. 김해동 진해미협지부장은 심사평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우리고장 문화유산그리기 공모전을 통해 우리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지켜나갈 것"을 강조했다.

고려 도공의 후예 이용희씨



강진고려청자

‘강진’ 하면 ‘청자’고 ‘청자’ 하면 ‘강진’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책은 ‘청자’를 다루고 있지만 ‘강진’을 소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강진 고려청자 안내서’라는 점에서 반가움을 느낀다. 지금까지 강진고려청자를 논한 학술서는 많았지만 이처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게 서술한 책은 없었다. 천년의 꿈과 신비를 간직한 청자의 다양한 명품들과 이를 구워낸 도요지, 그리고

고려 도공들의 후예 이용희씨 등이 살아가고 있는 삶과 혼을 담고 있다. 책 중간에 ‘강진 청자자료 박물관에 강진산 명품은 하나도 없다’고 꼬집고 있기도 하다. 부록으로 ‘강진 대구면 도요지 연표’·‘강진 청자 가마터 현황’·‘강진산 고려청자 명품 일람표’·‘청자 제작과정 일정도’·‘용어해설’을 실었다. 소설가 박혜강씨가 현장을 발로 뛰며 썼다.(강진문화원刊)

이 글은 ‘강진고려청자’에 소개된 고려도공의 후예 이용희씨에 관한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

척 박한 농촌에서 태어나 배운 것이 라고는 서당에서 천자문을 댄 것과 초등학교 과정을 마친 것이 전부였던 소년, 농촌계몽운동에 앞장서서 정열을 불태웠던 청년, 지도와 배낭 하나 달랑 둘러메고 산천과 들녘을 쏘다니다가 미치광이나 사상이 불순한 사람으로 오해받았던 사람, 6백여 년 동안 단절됐던 강진 고려청자 재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이 인정돼 광주·전남지방의 신지식인 1호로 선정된 인물. 이것이 바로 강진 고려청자 사업소 개발연구실장 이용희 씨의 간략한 이력(履歷)이다.

소년시절 한 장롱을 ‘청자박물관’ 삼아

그는 청자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의 토박이다. 이 마을의 소년 소녀들이 모두다 그러했듯이 그도 산천 들녘 여기저기에 지천으로 널려있던 청자 파편을 가지고 놀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예전에 이 마을 사람들은 청자 파편에 귀신이 붙었다고 해서 가까이 하기를 꺼려한다거나 집안에 들여 놓으면 재앙이 온다고 믿었다. 그런데 소년 이용희는 그런 청자 파편을 주위 집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4천원을 주고 산 한 장롱에 붓으로 ‘당전청자박물관’이라는 글씨를 써 붙이고, 그 속에 청자 파편들을 보관 진열했다. 물론 어린 마음에 장난 삼아 했던 일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훗날 바로 이 청자 파편들 중에 끼어 있던 청자기와편(靑瓷蓋瓦片)이 학계에 보고됨으로써 고려사에서 기록으로만 전해오던 청자기와가 사실적으로 존재했고 또 강진의 청자가마에서 제작됐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런 것으로 미뤄볼 때 소년 이용희는 어릴 적부터 고려 도공의 마음을 무의식적으로 읽었다거나, 고려 도공들이 청자 파편을 통해 자신들의 혼을 그의 몸체에 넣어넣었는지도 모른다는 신비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청년 이용희는 청자 파편 수집에 남달리 관심이 많았던 것을 제외하면 평범한 농사꾼이었으며, 대구면 사당리 일대의 땅이 모두 그러했듯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논밭이 박토였기 때문에 먹고살기 위해 흙과 씨름해야만 했다.

그는 고향의 농촌 현실을 바꾸어보기 위해 개흥회(開興會)라는 모임을 만들어 농사 연구뿐만 아니라 독서운동이나 야학회 그리고 마을문고와 금고운동을 주관하기도 했다. 황소 같은 똑심과 끈기를 유감없이 발휘했던 시절이었다.

1964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실시됐던 국립중앙박물관 발굴조사

팀의 강진 가마터 1차 발굴조사는 농투성이었던 그를 변화의 새 바람 속으로 몰아넣었던 대사건이었다.

발굴조사팀은 1963년 이용희 씨 집에 모아 놓았던 청자 파편들을 구경하고 인근에 대규모의 고려청자 가마터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때만 해도 사당리 117번지 이용희 씨 집은 고려청자 가마터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수집된 청자 파편을 구경하면서 그것들이 사당리 117번지에서 수집됐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고, 그 일대를 연구 조사했던 것을 토대로 과학적인 분석을 한 결과 대규모 가마터가 있다는 확증을 갖게 됐던 것이다.

발굴조사팀은 미지정 청자가마터였던 사당리 117번지 일대를 발굴조사하기 위해 이용희 씨에게 협조를 구해야만 했다. 그는 발굴조사팀이 자신의 집마당 뒤뜰의 담을 헐고 땅을 파헤쳐 발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쾌히 승락했다. 만약에 그가 거절했다면 개인 소유지인 대지를 합부로 파헤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소유지를 파헤치도록 승락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 발굴작업을 돕게 한다거나 연장을 구해주는 등 자질구레한 잔심부름을 도맡기 시작했다.

그는 논밭이나 마을 여기저기에 지친으로 굴러다니는 청자 파편을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또 감탄사를 터트리는지 처음에는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이용희 씨 집터인 발굴조사 현장에서는 청자파편외에도 청자와(靑瓷瓦) 암막새기와가 출토됐다.

나중에 자세히 알았던 사실이지만

이 발굴조사작업은 실로 사계를 경악케 하는 큰 수확이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터에서 고려사의 기록으로만 전해오던 청자기와를 비롯해 각종의 청자파편이 출토됐던 것이다.

이용희 씨는 청자 파편이 출토될 때마다 감탄사를 터트리며 흥분에 휩싸이는 발굴조사팀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분위기에 빠져들어 갔다.

배낭메고 고려청자 가마터 찾아나서

이용희 씨의 새로운 인생은 1차 발굴조사 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으나 어쩌면 청자파편을 만지작거리며 놀고, 청자파편을 수집하기 위해 돌아다니고, 흙을 사랑할 줄 알며 철석같이 믿었던 농투성이 시절부터 이미 새로운 인생이 열릴 것을 예견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1/25,000지도와 배낭 하나를 달랑 둘러메고 대구면 일대의 고려청자 가마터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누가 시켰던 일도 아니고 밥벌이가 되는 일도 아니었지만 틈만 나면 대구면 일대를 샅샅이 조사했다. 입방아 찧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멀쩡한 청년이 미쳐간다고 혀를 끝끝 차기도 했고, 혹시 고정간첩이 아니냐는 헛소문까지 나돌았다.

그러나 주위에서 미치광이나 불순분자로 취급받았던 그가 고려시대 청자가마터를 새롭게 발굴해내는 쾌거를 이룩하기 시작한다. 그 당시 지정된 청자 가마터는 1백개였는데, 현지 사정에 밝았던 그가 88개소를 추가로 발견했던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청년 이용희는 청자 파편을 수집하거나 새로운 청자가마터

를 찾는 일 외에도 마을 청년들과 힘을 모아서 '고려청자 마을박물관' 건립 기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아무튼 청자 연구에 헌신적인 노력을 쏟아 부었던 청년 이용희는 1977년에 청자재현사업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간사로 선임됐고, 곧이어 청자재현사업이 시작될 때는 무등요(현 광주광역시 평동 영산리 소재)의 조기정(曹基正)씨와 함께 고려청자 재현 담당을 맡게 된다.

이용희 씨는 강진 고려청자 재현을 위해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에 군비 5백만원을 들여 '강진요(康津窯) 1호'를 만들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강진요는 1973년 사당리에서 발굴한 청자가마터의 원형을 본따 일부 과학적인 수정을 가하여 만들게 됐는데, 이 가마를 만드는 것이 곧 강진 고려청자 재현사업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자 가슴은 부풀대로 부풀었으며, 현장에서 가마를 직접 만드는 동안 내내 손길이 떨리기만 했다.

그런데 그해 여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미완성인 가마가 유실될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거센 폭우에 쌓다만 가마들이 하나 둘 허물어질 때마다 그의 꿈도 허물어져 내렸다. 한 사내의 꿈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그냥 주저앉아서 하늘만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다. 오랜 세월 동안 흙과 더불어 살아왔고, 청자파편을 수집하고 가마터를 찾아 헤맸던 모든 열정을 한꺼번에 끌어올렸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세게 쏟아지는 폭우 속

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가마가 유실되지 않도록 비닐을 씌우고 배수구를 파면서 혼신의 힘을 다 쏟아 부었다. 엄청난 폭우도 그의 열정 앞에서는 무력했다. 속절없이 무너져버릴 것으로 예상했던 가마가 아무런 탈없이 보호되었던 것이다.

그런 노력 끝에 마침내 1977년 6월 18일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120번지에서 청자재현 가마술 기공식이 열리게 된다. 그해 10월까지 작품제작에 따른 기본 시설을 모두 갖추고 11월부터 본격적인 작품 제작에 들어간다. 이용희 씨와 조기정 씨 두 사람이 기능적 지휘감독을 맡고 공장장에 손양호(孫良浩) 씨, 성형사에 안열수(安烈秀) 씨, 조각사에 김광철(金光喆) 씨, 정형사에 홍성준(洪成準)과 윤재진(尹在珍) 씨 등 7명의 도공들이 작품제작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1977년 12월 27일 오후 3시는 6백여년 동안 불이 꺼져 있었던 강진 고려청자 가마에 다시금 불을 지피는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그 동안 7명의 도공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 제작했던 2백여 작품을 가마에 넣고 초벌구이 불을 지피 1978년 1월 6일 오전 10시에 초벌구이 도기를 가마에서 꺼내게 됐다.

가마 안으로 들어간 이용희 씨는 벽찬 감정을 이기지 못해 눈물이라도 흘릴 지경이었으며, 가마 밖에서 초벌구이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군수는 한 점 한 점 도기가 나올 때마다 긴장



상감청자 제작에 열중하고 있는 이용희 청자전시관 연구개발실장.

하다 못해 손까지 떨리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는 중이었다.

화목가마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던 초벌구이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공률을 보여주자 그 자리를 참석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흡사 강진 고려청자를 완벽하게 재현해내기도 했다는 듯이 들뜬 표정들이었다. 그러나 이용희 씨는 청자 재현을 거의 완벽하게 성공시키기까지 수많은 역경과 난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착잡한 심정이었다.

이름 없이 사라져간 고려도공들이 그러했듯이 청자 제작이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청자는 아무리 완벽한 공정을 거친다고 해도 완성률이 10~20% 정도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었다.

초벌구이에 성공한 도기 1백 50점에 유약을 바르고 드디어 본벌구이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1978년 1월 29일에 역사적인 본벌구이 불을 지피게 된다.

본벌구이는 20~24시간 동안 불을 순조롭게 넣어야 한다. 그런데 불을 지핀 지 10시간이 채 안 됐을 때부터 불

길이 비정상적인 흡입과 배출을 반복하는 돌발사태가 발생했다.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역풍이 엄습하자 불길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 못하고 아궁이 쪽으로 밀려 나왔던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악전고투였다. 눈물 콧물이 뒤범벅된 상태로 어떻게 해서든지 불길을 순조롭게 돌리려고 갖은 애를 써보았으나 자연이 부린 심술을 잠재우기 힘들었다.

청자 재현의 책임을 함께 맡았던 도예가 조기정 씨의 얼굴에 낭패한 기색이 역력했다.

“내가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청자 연구와 제작을 해왔지만 오늘처럼 어려운 시련을 겪은 적은 없소. 야, 지독하구먼”

역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소리였다. 이용희씨는 조기정 씨의 낭패한 얼굴빛과 절망에 가까운 소리를 들으면서 하늘이 내리는 시련 치고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 여기서 본벌구이를 실패하게 되면 그야말로 끝장이었다.

혀를 날름거리면서 아궁이 쪽으로 밀려나오는 불길은 악마의 혀와 같았다. 그 불길이 자신의 몸뚱이를 금세 삼킬 것처럼 사납게 밀려왔다. 청자재현을 꼭 성공시키겠다며 다부진 각오로 살아왔던 지난날들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악마의 혀처럼 날름거리는 불꽃이 현기증을 불러일으켰다. 유년 시절에 겪었던 배고픔의 현기증보다 훨씬 강도가

높았다. 청자재현 실패라는 결과를 눈 앞에 보는 듯해서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몸뚱이를 가마 속 불길에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럴 즈음에 청자재현 성공을 학수고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 둘 불꽃 위로 나타났다. 이어서 낮선 얼굴들이 지글거리고 허를 날름거리는 불꽃 위에 또렷이 나타났다. 누구일까? 저 사람들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이마에 구슬 같은 땀방울을 매단 채 흠을 빗고, 문양을 새기고, 가마에 불을 때는 사내들. 아, 그들은 이름 없이 사라져갔던 고려도공들의 혼백이었다.

살아야한다는 생각이 탐진만을 가득 메운 썰물처럼 밀려왔다. 죽음을 택하는 길이 해결책은 아니었다. 목숨을 끊는 것으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죽음은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처사였다.

‘살아야한다. 그리고 기어코 청자재현을 성공시켜야한다. 6백년 동안 꺼져있던 가마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이 불길을 결코 다시 꺼뜨려서는 안 된다. 세계적으로 찬란한 빛을 떨쳤던 고려도공의 후예답게 강인해야만 한다. 기어코, 기어코 성공하고 말리라...’

이용희 씨의 눈동자에 집념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 화목을 잡은 손등에 시퍼런 핏줄이 꿈틀거렸다. 이름 없이 사라져갔던 고려도공들의 장인정신이 가마의 불길보다 더 뜨겁게 그의 몸 속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 뜨거움이 온몸 구석구석 살피줄까지 가득차기 시작했다. 화염과 연기를 상대로 악전고투를 하면서 다음날 오후 3시에 가까스로 불마감을 했을 즈음에는 거의 탈진상태였다.

1978년 2월 3일 오후 1시. 청자재현 추진위원회 이사들과 보도진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공개요출(公開窯出)을 하게 된다.

구름 한 점 없는 희맑은 날이었다. 겨울 햇빛이 넉넉하게 뿌리고 있었지만 동장군이 몰고 온 매서운 바람이 피부를 저미고 있었다. 그러나 잔뜩 긴장해있었기 때문에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다. 전날부터 몰려든 국내외 보도진들이 무려 50여 명, 일반인들을 포함해 무려 6백여 명이나 되는 인파들이 강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귀추를 주목하고 있었다.

이용희 씨가 가마 안으로 들어갔다. 가마 안의 어스름 속에서 청자 작품들이 침묵을 지킨 채 기다리고 있었다. 가마 안의 어스름을 혼자 지키고 있는 빛, 그것은 비색(翡色)이었다. 틀림없는 고려청자의 비색이었다. 그 신비스러운 비색이 그의 가슴팍으로 다가왔다.

“청자 나왔네!”

이용희 씨가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질러댄 첫 마디였다. 가마가 들썩거릴 만큼 큰소리로 “청자 나왔네”를 외치는 순간 그의 눈시울은 금세 뜨거워지고 말았다. 천년의 비색을 고스란히 담은 음각국당초문화병(陰刻菊唐草文花瓶)을 부등켜안았다. 꿈인가 생시인가. 그토록 갈망했던 꿈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무려 6백여 년의 긴 세월 동안 깊은 수면에 빠져있던 청자가 마침내 기지개를 켜며 햇살 아래 비색(翡色)을 연출하는 광경은 필설로 감히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이었다.

강진요 1호에서 역사적으로 탄생한 고려청자 재현 완성품 32점은 단순히 청자재현을 이룩했다는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단절됐던 우리의 청자 역사를 새롭게 쓰는 쾌거였으며 이름 없이 살다가 죽어서 지금도 중음신으로 구천을 헤매는 고려도공들의 혼령을 해원상생시키는 일이기도 했다.

청자 전시관 연구개발실장으로 활동중

이용희 씨를 위시한 강진 고려청자 사업소 도공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완벽에 가까운 고려청자 재현을 위해 숭한 세월을 집념 하나로 살았다. 그 결과 1982년 9월에는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분석하고 제조한 유약과 강진 고려청자사업소에서 개발한 자연유약을 비교해본 결과 강진요의 청자가 비색에 훨씬 가까운 것으로 밝혀져서 우수성을 인정 받기에 이른다.

그런 결과가 나오자 청자 재현사업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새로운 안이 수립되고 검토됐으며, 그 안이 내무부에서 승인됨으로써 1986년 1월 7일에는 ‘강진군 고려청자사업소’가 대대적으로 문을 열게 되었다. 이때부터 이용희 씨는 강진청자사업소의 실장을 맡아 지방공무원으로 14년간 봉직하다가 정년 퇴임했고, 현재는 청자전시관 연구개발실장으로 있다.

고려청자 재현사업에 일평생을 헌신적으로 살아왔던 이용희 씨는 그 공로가 인정돼 도지사상 4회, 문화재관리국장상, 문화공보부장관상, 강진군민의 상 등을 수상하게 됐으며 1999년도에는 광주·전남지방의 신지식인 1호라는 영예를 얻었다.  (편집부)



김해관광안내 교육자료집 김해문화원

2천년전부터 가야문화의 발상지로, 초기 가야연맹의 맹주국으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김해시의 역사를 재조명한 책. 문화유적지와 유산을 국내·외 관광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초 강의 자료들을 모아 정리했다. 근래 가야사의 재조명과 함께 가야문화의 환경재정비사업이 활발히 진척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책은 '문화와 관광'에서부터 '김해지방의 민속'에 이르기까지 김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내국인은 물론 이웃 일본·중국과 구·미 여러 곳의 관광객들에게 김해에 대한 사전 지식 습득을 위한 자료집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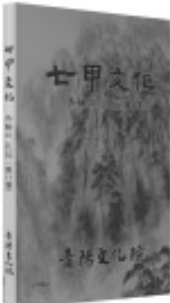
오! 변산 그 꿈에 살고 싶다 부안문화원

부안일대의 현장풍경을 시와 음악과 스틸사진으로 읊고 있는 향토사랑 시선집.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만지면 신비로운 음악이 샘솟는 시로 만들고 싶었고, 고향산천의 꿈이 사진으로 모자라고 음악으로 서운한 조화를 혼연과 화합으로 엮어보면 어떨까 하고 텅없는 시도를 해보았다"라는 작가의 말처럼 그 '텅없는 시도'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시를 읽다보면 옆에 실린 사진에 더욱 매료되고 그러다보면 배경음악을 자신도 모르게 따라부르게 되는 시집이다. 김민성 부안문화원장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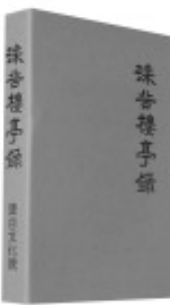
천안의 鄕校와 書院·祠宇 천안문화원

천안 지역의 향교와 서원에 대한 조사·연구서. 1999년 충청남도에서 간행한 '충남의 향교' '충남의 서원·사우'의 천안시 부분을 토대로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이 책은 모두 3편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천안시의 현존 향교인 천안향교·직산향교·목천향교를, 제2편에서는 천안시 지역의 유일한 사액서원이었으나 현재 터만 남아 있는 도동서원 지(道東書院址)와 현존하는 양현사·육현사를, 제3편에서는 향교의 역사와 운영실태를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현장사진과 함께 실고 있어 천안시 향토문화에 대한 고찰에 생동감이 느껴진다. 임선빈 지음



七甲文化 청양문화원

청양의 민속 11호. 그동안 산발적으로 수집·발표했던 청양의 민속을 전문가가 통합·재수집해 집대성한 책이다. 임동권 박사와 정형호 박사를 비롯 중앙대 민속학과 학생들이 현장을 직접 밟고 뛰며 청양민속자료를 조사·발굴했다. 민속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변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변화 이전의 모습을 보존하기 위해 제보자들의 증언과 기존의 청양군지·칠갑문화·청양의 향기 등에 수록된 자료를 포함했다. 청양의 사회·관습·일상생활·세시풍속과 놀이·민간신앙·일생의례·민간의료 등을 실고 있어 청양의 민속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漆谷樓亭錄 칠곡문화원

칠곡군의 정자와 누각, 재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향토사료 제3집. 칠곡군의 명현석학들의 컴퓨터로 그들의 체취와 고민이 묻어 있던 정자와 누각이 풍상을 겪으면서 빛을 잃어가고 옛것의 기품조차 문명의 물결에 밀려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겨 칠곡지역에 흩어져있는 정자와 누각을 12개 면별로 조사·정리했다. 자칫 우리 기억에서 잊혀질 뻔 했던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시도하고 있어 우리 문화를 알고자하는 많은 이들에게 귀중한 역사자료집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우동 한 그릇에 담은 일본 컬처라인

일본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할 오뎅·우동·덴푸라·라멘 등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음식을 비롯, 음식 한 그릇에 녹아 있는 일본의 문화와 관습·정서·라이프스타일·가치관 등을 저자 특유의 감수성으로 섬세하게 포착하고 있는 책. 오사카에서 한국식과 일본식이 공존하는 식탁을 치러온 주부로서의 감각, 생활인으로서 이웃사람들과 교류하며 일어났던 해프닝들이 음식과 연결돼 잔잔한 감동과 유쾌한 재미를 선사한다. 또 한국인들이 자주 가는 긴자와 시부야·신주쿠에서 일본 음식 문화의 전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명점 31곳을 소개해 여행가이드로서의 역할도 겸했다. 김자경 지음



이벤트 성공의 노하우 월간이벤트·(주)인플러스넷

이벤트의 개론부터 기획·제작·실시·효과분석까지 전과정을 총망라한 실무 핸드북 시리즈. 프로젝트 업무와 흐름을 파악하고 실무를 진행할 때마다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는 실무의 체크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 책은 이벤트 전문회사와 광고대행사의 이벤트 실무자들 뿐 아니라 이벤트 기획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과 교수·연구자들에게 훌륭한 참고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기업체 마케팅·판촉담당자·관공서의 지역문화축제 담당자들에게 성공적 이벤트 개최를 위한 좋은 지침서가 되기에 손색이 없다. 이각규 지음

이달의 정기간행물

- 간행물윤리 통권280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갑천문화 2001.11 (대전서구문화원)
- 강진문화마당 2001년 상반기 (강진문화원)
- 公主文化消息 통권228호 (공주문화원)
- 레일로드 2001.11 (철도방송)
- 목포문화사랑 통권60호 (목포문화원)
- 문화공간 2001.11 (세종문화회관)
- 문화도시 문화복지제115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文化藝術 2001.11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유성 2001.11 (유성문화원)
- 미르 2001.11 (국립극장)
- 민속소식 제74호 (국립민속박물관)
- 민족예술 2001.11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수원사랑 2001.11 (수원문화원)
- 스산의 숨결 제216호 (서산문화원)
- 야호코리아 2001.11 (국정홍보처)
- 오산문화 24호 (오산문화원)
- 藝術世界 2001.11 (한국예총)
- 仁川文化 통권 84호 (인천문화원)
- PEOPLE WORLD 2001.11 (인간개발연구원)
- 흥성문화 가을호(흥성문화원)



지방문화원은 전국에 214개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지회(02-518-1294)
- 종로문화원(02-731-0628)
- 중구문화원(02-775-3001)
- 용산문화원(02-703-0052)
- 성동문화원(02-2290-7714)
- 광진문화원(02-447-9364)
- 동대문문화원(02-2241-9300)
- 중랑문화원(02-492-0066~7)
- 성북문화원(02-765-1611)
- 강북문화원(02-984-8086~7)
- 도봉문화원(02-905-4026)
- 노원문화원(02-938-1244)
- 은평문화원(02-383-9300~2)
- 마포문화원(02-312-1100)
- 양천문화원(02-651-5300)
- 강서문화원(02-3661-8233)
- 동작문화원(02-822-8500)
- 관악문화원(02-885-5975)
- 강남문화원(02-518-1295)
- 송파문화원(02-414-0354)
- 강동문화원(02-476-6681)
- 금천문화원(02-896-8553)
- 영등포문화원(02-846-0155)
- 서대문문화원(02-376-6218)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지회(051-555-1441)
- 동래문화원(051-555-1441)
- 북구낙동문화원(051-301-2710)
- 강서문화원(051-972-6369)

- 연제문화원(051-759-3113)
- 기장문화원(051-724-2224)
- 사상문화원(051-310-4894)
- 금정문화원(051-581-9071~2)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지회(053-744-7950)
- 중구문화원(053-255-5123)
- 달성문화원(053-611-0010)
- 남구대덕문화원(053-652-4450)
- 북구문화원(053-326-2555)
- 서구문화원(053-563-9066)
- 달서구문화원(053-553-4800)
- 동구팔공문화원(053-984-8774)

인천광역시

- 인천문화원(032-761-2778)
- 부평문화원(032-505-9001)
- 강화문화원(032-932-0011)
- 연수문화원(032-821-6229)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지회(062-527-7701)
- 동구문화원(062-225-5815)
- 서구문화원(062-652-4148)
- 남구문화원(062-361-7256)
- 북구문화원(062-527-7701)
- 광산문화원(062-941-3377)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지회(042-627-7517)
- 동구문화원(042-274-2135)
- 중구문화원(042-256-3684)
- 서구문화원(042-488-5474)

- 유성문화원(042-862-6969)
- 대덕문화원(042-627-7517)

울산광역시

- 울산동구문화원(052-234-2202)
- 울산남구문화원(052-266-3786~7)
- 울주문화원(052-279-0527)
- 울산중구문화원(052-244-2007~8)

경기도

- 경기도지회(031-239-1020)
- 수원문화원(031-244-2161~3)
- 성남문화원(031-781-1020)
- 의정부문화원(031-872-5678)
- 안양문화원(031-449-4451)
- 부천문화원(031-651-3739)
- 광명문화원(031-618-5800)
- 평택문화원(031-655-2184)
- 동두천문화원(031-865-2923)
- 안산문화원(031-480-9823~5)
- 고양문화원(031-963-0600)
- 과천문화원(031-504-6513)
- 구리문화원(031-557-6383)
- 남양주문화원(031-592-0667)
- 오산문화원(031-375-7755)
- 시흥문화원(031-315-6465)
- 군포문화원(031-397-0195)
- 하남문화원(031-795-1020)
- 용인문화원(031-335-2033)
- 파주문화원(031-941-2425)
- 이천문화원(031-635-2316)
- 안성문화원(031-673-2625)

- 김포문화원(031-984-6550)
- 양주문화원(031-840-6467)
- 여주문화원(031-883-3450)
- 화성문화원(031-353-6330)
- 광주문화원(031-764-0686)
- 연천문화원(031-834-2350)
- 포천문화원(031-532-5055)
- 가평문화원(031-582-2016)
- 양평문화원(031-771-3866)
- 의왕문화원(031-456-4994)

강원도

- 강원도지회(033-255-5105)
- 춘천문화원(033-254-5105)
- 원주문화원(033-764-3794)
- 강릉문화원(033-648-3014)
- 동해문화원(033-531-3298)
- 태백문화원(033-553-3161)
- 속초문화원(033-632-1231)
- 삼척문화원(033-573-2882)
- 홍천문화원(033-434-2080)
- 횡성문화원(033-343-2271)
- 영월문화원(033-373-3434)
- 평창문화원(033-332-3546)
- 정선문화원(033-563-5471)
- 철원문화원(033-452-6235)
- 화천문화원(033-442-2607)
- 양구문화원(033-481-2681)
- 인제문화원(033-461-6678)
- 고성군문화원(033-681-2922)
- 양양문화원(033-461-6678)

‘지역문화’가 궁금하면 노크하십시오

충청북도

- 충청북도지회(043-733-5588)
- 청주문화원(043-256-3624)
- 충주문화원(043-847-3906)
- 제천문화원(043-646-3646)
- 청원문화원(043-257-2858)
- 보은문화원(043-544-2314)
- 옥천문화원(043-733-5588)
- 영동문화원(043-742-2215)
- 진천문화원(043-533-2744)
- 괴산문화원(043-832-3588)
- 음성문화원(043-872-4084)
- 단양문화원(043-423-0701)
- 증평문화원(043-836-3400)

충청남도

- 충청남도지회(041-667-0417)
- 천안문화원(041-575-3004)
- 공주문화원(041-852-9005)
- 서산문화원(041-669-5050)
- 논산문화원(041-732-2395)
- 금산문화원(041-754-2724)
- 부여문화원(041-835-3318)
- 서천문화원(041-953-0123)
- 청양문화원(041-943-4774)
- 홍성문화원(041-632-3613)
- 예산문화원(041-335-2441)
- 태안문화원(041-674-2192)
- 당진문화원(041-354-2367)
- 대천문화원(041-934-3061)
- 온양문화원(041-545-2222)
- 조치원문화원(041-865-2411)

- 아우내문화원(041-564-1022)
- 성환문화원(041-581-2101)

전라북도

- 전라북도지회(063-287-5509)
- 전주문화원(063-288-7500)
- 군산문화원(063-451-2138)
- 익산문화원(063-835-0120)
- 정읍문화원(063-532-8723)
- 남원문화원(063-633-1582)
- 김제문화원(063-547-4659)
- 완주문화원(063-263-4335)
- 진안문화원(063-433-1674)
- 무주문화원(063-324-1300)
- 장수문화원(063-351-5349)
- 임실문화원(063-642-2211)
- 순창문화원(063-653-2069)
- 고창문화원(063-564-2340)
- 부안문화원(063-583-2101)

전라남도

- 전라남도지회(062-223-0019)
- 목포문화원(061-244-0044)
- 여수시문화원(061-682-5388)
- 순천문화원(061-723-4563)
- 나주문화원(061-332-5115)
- 광양문화원(061-763-0496)
- 담양문화원(061-383-6066)
- 곡성문화원(061-362-0890)
- 구례문화원(061-782-8802)
- 고흥문화원(061-835-5245)
- 보성문화원(061-852-2629)
- 화순문화원(061-374-3333)
- 장흥문화원(061-863-6362)

- 강진문화원(061-433-7373)
- 해남문화원(061-533-5345)
- 영암문화원(061-473-2632)
- 무안문화원(061-452-8648)
- 함평문화원(061-322-0505)
- 영광문화원(061-351-3255)
- 장성문화원(061-392-1796)
- 완도문화원(061-552-4834)
- 진도문화원(061-542-1108)
- 신안문화원(061-242-8131)

경상북도

- 경상북도지회(054-556-5234)
- 포항문화원(054-242-4711)
- 경주문화원(054-743-7182)
- 김천문화원(054-434-4336)
- 안동문화원(054-859-0825)
- 구미문화원(054-482-5422)
- 영주문화원(054-631-3300)
- 영천문화원(054-334-3030)
- 상주문화원(054-535-2339)
- 문경문화원(054-555-2571)
- 경산문화원(054-815-0593)
- 군위문화원(054-383-2003)
- 의성문화원(054-834-5048)
- 청송문화원(054-873-2527)
- 영양문화원(054-682-1378)
- 영덕문화원(054-734-2456)
- 청도문화원(054-371-2514)
- 고령문화원(054-954-2347)
- 성주문화원(054-933-0700~1)

- 칠곡문화원(054-974-0450)
- 예천문화원(054-654-3833)
- 봉화문화원(054-673-2350)
- 울진문화원(054-783-2270)
- 울릉문화원(054-791-0245)

경상남도

- 경상남도지회(055-2293-1186)
- 창원문화원(055-284-8870)
- 마산문화원(055-243-5222)
- 진주문화원(055-746-5001)
- 진해문화원(055-544-8880)
- 통영문화원(055-645-7755)
- 사천문화원(055-833-3163)
- 김해문화원(055-336-2646)
- 밀양문화원(055-352-3010)
- 거제문화원(055-681-2603)
- 양산문화원(055-386-0890)
- 의령문화원(055-573-2034)
- 함안문화원(055-583-2290)
- 창녕문화원(055-533-3777)
- 고성문화원(055-672-3805)
- 남해문화원(055-864-6969)
- 하동문화원(055-884-3929)
- 산청문화원(055-973-0977)
- 함양문화원(055-963-2646)
- 거창문화원(055-942-6166)
- 합천문화원(055-931-2401)

제주도

- 제주도지회(064-722-0203)
- 제주문화원(064-722-0203)

진안문화원(www.jinan.or.kr)

컴퓨터 화면 안에서 진안군으로 여행을

박계현 기자 fire@kccf.or.kr

www.jinan.or.kr 엔터! 진안문화원 사이트 안으로 들어가면 '진안문화원의 이모저모' '진안군의 이모저모' '진안의 문화재' '진안의 인물' '진안의 지명/산천' '자료실' 코너가 진안문화원의 방문을 환영하고 있다.

이중 '진안문화재'와 '진안의 인물'을 클릭해 보면 그 많은 문화자원과 이곳 출신 문인, 그리고 예술인이 가득하다. 또 진안군의 자연환경과 역사·교육·문화·산업·교통·관광을 안내하고 있는 '진안군의 대략보기'를 뒤져나가다 보면 굳이 진안군에 가보지 않아도 한눈에 진안군을 꿰뚫어 볼 수 있어 컴퓨터 화면 안에서 진안군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다.

헌데 문제는 그러한 진안군의 소개가 '이모저모'라든지 '대략보기'라든지 하는 타이틀의 하부구조에 속해 있어 잘 정리된 내용이 상위 타

이들 명이 주는 애매모호성에 묻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잘 정리된 하부내용이라는 것도 상위제목이 주는 느낌을 완전히 극복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두꺼운 전화번호부처럼 그 인물과 문화재 나열에 그치고 있다는 감이 든다. 즉 사안별로 세세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초기사이트 화면의 "진안문화원의 자료실에 문화관련자료가 업로드되었습니다.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분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updated 2000.5.5]"라는 문구대로 여기를 클릭하면 등록된 자료가 없어 더욱 아쉽다.

물론 모든 코너안의 자료는 앞으로 더욱 탄탄히 보강될 것이고 그것은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진안의 인적·물적 자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고 싶다. **문**



알림

본회 편집실에는 전국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사료나 향토지를 비치하고 있어 수시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 史料 및 情報資料 提供

전국 시·군지, 향토사 자료등 각종자료 3천여권이 비치되어 있는 본회에 訪問하면 됩니다.

◎ (향토지) 각종 圖書 復刊相談

지방에서 발행할 각종 책자의 편집 및 출간을 위해 자료, 견본 등을 제공하고 편간에 대한 자세한 상담도 해드립니다.

◎ 海外 刊行物 交流

해외에서 발행되는 여러 간행물을 통해 우리의 文化遺産에 대한 올바른 評價와 자료의 수집을 위해 “海外刊行物 交流事業”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련자 여러분이 소장하고 있는 서적이나 관련자료 또는 정보의 교류추진을 알선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안내

月刊 우리문화는 5천여년 간 숨쉬어 온 民族文化를 아름답게 꽃 피워보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自矜心을 기르고자 합니다. 이 책은 특히 海外에서 한민족의 自矜心을 갖고 곳곳이 살아가는 분들에게 권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구독료(권당 3,000원)

- 국내 : 1년 정기구독료 36,000원 (우송료 본회 부담)
6개월 구독료 18,000원
- 海外 : 1년 정기구독료 36,000+우송료
6개월 구독료 18,000+우송료
(*문화원 회원은 1권당 2,000원)

● 송금방법

- 송금은 농협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십시오.
- 온라인번호 농협 032-01-013084 문화원연합회

● 보낼곳

- 121-715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 전국문화원연합회 우리문화 편집실